

王의 修業

사무엘상 강해

김 현 철

Book City

THE CITY SET ON A HILL

ISBN 978-89-964856-1-2

저자 소개

김현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Faith Mission Bible College(U.K.) 졸업.

흙에서 천국을 찾은 농부 목사.

전자책 출판사(북씨티) 운영.

왕의 修業

사무엘상 강해

저 자: 김현철

발행인: 김현철

발행처: 북씨티, 032-433-0542, ebookcity.co.kr

인천 남구 관교동 502-2번지 2층

© 김현철, 2010

제1판 2010년 8월 16일

ISBN 978-89-964856-1-2

값 5,000원

王의 修業

사무엘상 강해

김 현 철

Book City

THE CITY SET ON A HILL

차 례

입문: 사무엘서에 나타난 2와 성화	1
왕의 修業 01. "사무엘①-한나의 찬송"	5
왕의 修業 02. "사무엘②-충실한 제사장, 견고한 집"	21
왕의 修業 03. "사무엘③-말씀으로 나타내시니"	40
왕의 修業 04. "법궤①-하나님의 임재"	55
왕의 修業 05. "법궤②"	77
왕의 修業 06. "왕의 선택①"	97
왕의 修業 07. "사울①-나귀 찾는 사울"	117
왕의 修業 08. "사울②-사울의 구원"	132
왕의 修業 09. "사무엘④-마지막 재판"	149
왕의 修業 10. "사울과 요나단①-7일 전쟁"	172
왕의 修業 11. "사울과 요나단②-두 개의 리더쉽"	190
왕의 修業 12. "사울과 요나단③-두 나라①"	212
왕의 修業 13. "사울과 요나단③-두 나라②"	233
왕의 修業 14. "사울③-후회하시는 하나님"	245
왕의 修業 15. "다윗①-왕의 선택②"	275
왕의 修業 16. "다윗②-왕의 수업①"	290
왕의 修業 17. "다윗③-다윗과 골리앗①"	304
왕의 修業 18. "다윗④-다윗과 골리앗②"	331

王의 修業 19.	"다윗⑤-사울과 요나단④"	347
王의 修業 20.	"다윗⑥-두 종류의 사랑"	365
王의 修業 21.	"다윗⑦-다윗과 사울①"	384
王의 修業 22.	"다윗⑧-다윗과 사울②"	399
王의 修業 23.	"두 번의 언약"	419
王의 修業 24.	"다윗과 사울③"	438
王의 修業 25.	"아들람굴의 다윗"	451
王의 修業 26.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470
王의 修業 27.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490
王의 修業 28.	"견리사의(見利思義)"	503
王의 修業 29.	"일어나 바란 광야로"	520
王의 修業 30.	"왕 같이 그리고 왕답게"	534
王의 修業 31.	"두 길을 가는 사람들"	550
王의 修業 32.	"나쁜 왕, 이상한 왕①"	570
王의 修業 33.	"나쁜 왕, 이상한 왕②"	588
王의 修業 34.	"시글락방성대곡"	601
王의 修業 35.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615
王의 修業 36.	"활의 노래를 불러라"	632

입문: 사무엘서에 나타난 2와 성화

“왕의 수업”이란 의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장하며 자신의 생애와 사명을 통해 영원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구속사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며 그 나라를 예비하는 현실적인 적용으로 이어나갑니다.

Audience Absolute

Audience Absolute(절대 청중)!

이 말은 계시의 원주인이시고 말씀을 조명케 하시고 설교자로 하여금 설교를 하게 하시며 또 듣고 계시는 하나님과 설교자 자신을 뜻합니다. 자신이 감동받지 않은 설교는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 설교 원고에 언제나 기록하는 말입니다.

이 설교 시리즈는 강해설교입니다. 이 시리즈의 모티브는 북아일랜드의 방골 전도집회에 참석할 때 북코너에서 산 Charles R. Swindoll의 “David”과 에딘버러 한인학교를 위해 주말마다 빌렸던 어느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본 내셔널지오그래픽의 동굴탐험 사진들입니다. 그때 그 책과 사진들이 살아있는 다윗의 경험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급 잡지책의 동굴탐험 사진은 사치스러운 맛은 있지만 동굴의 끝없는 깊이와 크기에서 다윗의 비밀스러운 엔케디 동굴 체험을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정상 중간에 개역판에서 개정판으로 변경했습니다. 신학적 참고를 위해 주로 사용한 주석은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과 Keil-Delitzsch(Eerdmans) 구약주석입니다. 그 밖에 일일이 소개할 수 없는 많은 저서와 인터넷 자료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동서고금의 사역자들의 영감 있는 글과 설교에서 도움을 얻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사무엘서(상)에는 묘한 수수께끼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이중적인 표현의 흐름’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2장의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 그리고 ‘사울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기록’ 등입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했던 저자는 물론 하나님의 간섭과 영감에 의해 사무엘서를 기록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는 독특하고 놀라운 역사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관점과 방법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사무엘서가 비전문가가 짜깁기한 허점투성이 편집처럼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서설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사무엘서의 기록 연대를 비롯해서 성경책들의 하나님의 영감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서의 기록 방법을 저는 “사무엘서에 나타난 2와 성화”로 다시 해석하고 설교에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독특한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을 만족시키는 일에 우선하지 않으시고 보다 더 영원하고

깊은 진리를 계시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영광 속,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신앙과 불신, 진실과 위선, 거룩과 죄악, 내면과 외면, 거듭남과 성화, 초림과 재림, 영원과 현실 등 신자들이 살면서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우리 자신의 신앙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인용성구가 많습니다. 설교 중에 청중들에게 도표나 사진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거나 인용성구가 많을 때는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설교자와 청중간의 아이콘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스크린에 청중의 시선이 머물게 하는 것은 전통적인 설교에 상충하는 방식이지만, 설교자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는 청중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스크린을 보게 하는 것도 그들을 돕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감 있는 설교는 방법이 어떠한데 결국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고문을 100% 작성해서 설교시에 읽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의 삼분의 일은 원고를 보게 됩니다. 이런 방법의 장점은 설교시의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실제 설교시 원고와 다르게 순간적으로 침삭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는 합니다.

설교(문)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설교자에게 영감을 주시기도 하지만 먼저 고민하며 같은 길을 걸어간 다른 설교자들의 결과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설교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다면 전체 인용이든 부분 인용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다. 설교자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reacher burned his sermon then caught fire himself. (설교자가 설교 원고를 불에 태웠을 때 그 자신이 불에 사로잡힌다.)

이 설교문들이 말씀을 갈급해하는 성도들의 영적 양식에 보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설교자들의 성경 연구와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된다면 그저 감사한 일입니다.

2010. 8. 16.

콩알초록별농원에서 Heaven under your feet,
김현철

왕의 修業 01. “사무엘①-한나의 찬송”

사무엘상 2:1~12,

[1]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2]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3]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4]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9]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뢰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11]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

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2]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서의 배경은 롯기라고 했습니다. 특히 1장과 4장을 보면 베들레헴 마을에서 시작해서 오벳의 탄생까지 약 11년의 흐름이 있습니다. 고엘제도에 따르면 롯과 보아스의 아들 오벳의 할아버지는 엘리멜렉이 되고 할머니는 나오미입니다. 전통과 율법에 의해 오벳이 그들의 기업과 가업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가 바로 다윗이 된다는 족보로 롯기를 마치면서 새로운 족보, 보아스의 족보를 꺼내드립니다. 성경은 보아스의 족보를 오벳의 진정한 족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가문은 오벳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각 가정의 족보로만 따지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도대체 오벳이 어떤 가문에 속해야 맞는가라고 혼돈스럽지만, 4장에 나오는 남성(백성들과 장로들)합창단과 여성(동네 여인들)합창단의 찬송을 보면 우리는 비로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웅장한 오페라와 같습니다.

[11]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

며 [12]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4]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들은 보아스의 집안이나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집안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았습니다. 아니 그들 모두가 결국 한 집안, 유다의 자손들입니다. 유다지파 혹은 베들레헴 마을이라는 전체 공동체(교회) 안에서는 엘리멜렉이나 보아스나 같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고엘이 될 수 있었고 모두들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그들이 4촌간이든 5촌간이든 결국 유다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공동체적 시각에서는 결국 한 가정의 구원과 고엘의 참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 신약적인 구원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이건 출신이 어떠한건 다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방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그의 아들이 ‘종’이라는 뜻을 가진 ‘오벳’이라는 사실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마을사람들의 합창은 미래적으로,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나라를 보여주는 예비적인 계시와 그림자 역할을 합
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노래했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
셔서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성
경으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남자들의 찬송 중에, ‘룻이 라헬과 레아 같게 하
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내용입니
다.

당시는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사라는 말
이 없습니다. 사사들의 공백 기간일 수도 있고, 잠간의 평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민족에게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란한 시대 중의 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미래에 구원자가 나오기
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기원은 룻과 보아스의 가정에 축복
했고, 오랜 세월이 지나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예언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9:8~12,

[8]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

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9]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 갔도다 그의 옆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 흠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특히 10절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치리자 즉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파를 통해, 즉 다윗을 통해 하나님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세워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룯기의 마지막 절에 다윗의 족보를 밝히면서 결국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그 다윗의 영원한 후손인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찬송 중에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대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구원자(고엘)가 나타나서 구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당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을 지닙니다. 흉년으로 고향을 떠났고, 다시 남편과 아들들이 죽는 고난을 당했다가 베들레헴의 복음을 듣고 며느리 룯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엘인 보아스의 자원적인 행사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대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절망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입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은혜로 구원되고 회복되었고 미래의 듅직한 희망의 상징인 아들(손자)까지 얻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름 그대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네 생명의 회복자.”

이 모든 찬송과 축복의 말들이 마침내 다윗왕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마지막에 기록된 다윗 왕가 족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왕권과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나사렛 마을의 한 여인에게 천사가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30~33,

[30]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31]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로마서 5: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나라에 있어서의 룯기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준비의 한 단계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특히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난 한나의 찬송시와 룯기 4장의 찬송시를 비교하면 마치 옆에서 짜고 한 것처럼 그 흐름이 일치합니다.

룯기의 찬송시는 좀 포괄적이고 단순합니다. 반면에 한나의 찬송시는 좀 더 감정몰입이 돼 있고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구원자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면에서 두 가지가 일치합니다. 한 번 찾아보십시오.

먼저 한나의 찬송시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나가 어떻게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고 그 서원기도로 아들을 얻고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찬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몇 몇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사건들의 공통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삼손의 부모(마노아)가 그러했고, 신약에 서는 세례 요한의 부모(사가랴와 엘리사벳)가 그러했습니다.

한나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지나가면서 누구나 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멸시와 모욕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데”라는 말은 요즘의 ‘백수’나 능력이 안 돼서 결혼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견디면서 한나는 자신의 운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것, 능력은 본래 없으니 주신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나라의 가장 주요한 통치 원리입니다. 즉 한나의 기도 와 찬송시는 사무엘서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원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바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전반부(1~3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4~10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방식이 나옵니다. 힘 있는 자를 망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은 하나님이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경건한 자들에게 향하시고 악인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뭐라고 할 여지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후반부의 마지막 절(10절)은 기원이나 기도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당신의 통치의 대리자를 세우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에서 ‘기름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의 ‘기름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도자나 왕을 말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드리면서 사무엘을 예언하지 않고 사무엘이 기름 붓게 될 다윗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나 자신은 다윗이 앞으로 있겠다고 의식하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에 넣으신 말씀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의 감사와 찬송으로 이렇게 놀라운 예언과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훗날 그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도록 합니다.

이렇게 다윗왕의 통치를 바라보고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면서 노래한 것처럼, 그 후 1천년이 지나 또 다른 아이 못 낳는 부부가 찬송을 합니다.

사가랴의 찬송:

누가복음 1장:

[67] 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68]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별을 그 중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0] 이것은 주께
 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
 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72]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
 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 곧 우리 조상 아
 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74]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75]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76]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77]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
 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 이는 우리 하
 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돌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
 에게 임하여 [79]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특히 마리아의 찬송은 한나의 찬송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마리아의 찬송:

[46]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9]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 긍휼하심이 두려
 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54]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의 찬송은 그 구조와 사용된 단어들이 한나의 찬송과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노래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찬송 가운데 어떤 ‘통일성’이 꿰뚫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의 찬송의 주인공인 ‘그분’에 대한 통일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사사기와 룯기를 통해 어렵פות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구약적 형태인 다윗의 나라 이야기를 사무엘의 탄생으로 그 기초가 닦여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과 다윗의 등장은 신약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준비시켰고 하나님나라의 통치를 준비하였듯이,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앞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찬양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세계인 **하나님나라에 연계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나라의 통치원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건설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래 한나의 서원기도는 어떤 역사적이거나 사회적인 일이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그 응답으로 역사가 바뀌는 일을 시행하셨습니다.

한나의 대적은 브닌나였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라는 뜬금없는 생각이 떠오르면 곤란합니다. 때로 신자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2주 전에 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생애’ 동영상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는 고귀한 사랑과 희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와 신앙의 원리가 다른 세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나의 이야기, 아이를 낳지 못하느냐 낳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한 가정의 일로, 우리에게 그 차이를 극명한 예로 보여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인간의 무(無)에서 출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능력하여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조상인 이스라엘민족은 아예 처음부터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반해, “나는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가치관이 인간의 생각이고, 이 세상의 원리요, 바로 브닌나의 철학이었고, 브닌나가 대표하는 사사시대의 진실체였습니다.

다윗을 가장 괴롭힌 사람은 사울왕이었지만, 오히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의 가정을 파멸로 이끈 원수는 다윗 자신의 죄악들이었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이름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꺾박받던 한나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3남 2녀가 더 생겼죠.

생물학적으로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대로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웃고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요 바로 브닌나입니다.

브닌나 자신은 그냥 동서나 형제나 가까운 한 사람을 놀려주고 있다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관계된 사건을, 비록 그것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원

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우월하면 으스스대고 없으면 배 아파하고 꼭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어린아이 같은 인격 수준인데, 어른이 되어서도 아파트니, 자동차니, 명품이니, 자식들이 어떤 대학이니 이런 것들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이 뭔가 새로운 것을 갖고 있으면 살살이 그 옵션까지 확인하고 자기와 비교하고, 사람들을 그 소유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너무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비교하는데서 악이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브닌나가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에게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퀴즈! 예수님에게는 누구였을까요? - 헤롯왕, 바리새인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옆 사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나라의 원수는 불신자들이나 여러분을 핍박하는 윗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가장 큰 원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무엘이 탄생한 시대는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영적으로는 가장 극심한 혼란과 영적 무지의 시대였습니다. 종교계통도 엉망이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아직 너무 어려서 그냥 성막 심부름꾼 정도입니

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성인이고 막강한 가문적인 배경과 자신들이 제사장들로서 영적인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데 그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시대가 어두웠으면 성경에서 별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엘리의 사사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2,

[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3:3)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경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힘을 높이는 시대와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한나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송이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나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 12:19).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승리케 하심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왕의 修業 02. “사무엘②-충실한 제사장, 견고한 집”

지난 시간의 ‘왕의 수업’ 첫 번째 강해에서, 우리는 룻기 4장의 베들레헴 남자와 여자들의 합창, 사무엘상 2장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송,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의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송이 다 한 가지로 공통된 흐름과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특히 한나의 찬송과 마리아의 찬송에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리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모든 세력과 인간의 의지를 굴복시켜 승리하리라는 하나님나라의 완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세계에 초대된 사람들이고 그 나라의 왕 같은 백성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한나에 대한 브닌나처럼, 다윗에 대한 사울처럼, 예수님에 대한 헤롯왕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에 대한 대적들과 고난이 실재하지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내가 낫다. 능력이 있다. 그 까짓 것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아직 사무엘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엘리 제사장의 도제 노릇을 할 때,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 나타난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11~36,

[11]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2]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13]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찢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8]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19] 그 어머니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걸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0]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

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드린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21]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2]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 내 아들이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으로 범과케 하는도다 [25]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26]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27]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8]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를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뻛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29]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30]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31]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2]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 네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35]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36]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옆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엘리의 불량아들 제사장들의 모습과 모범 제사 사무엘의 모습이 매우 대조적으로 비교되면서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로 이 부분이 신학자들에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사람이 편집했다고 주장하는 문서설을 주장하는 어떤 학자들은, 엘리의 아들들의 타

락에 대한 기록이 중복(12~17절과 22~25절)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훗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엘리 제사장의 자손인 아비아달이 물러나고 사독이 대제사장이 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무엘서 2:22 이하의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과 심판의 내용을 추가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출 28:1~4).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는 성별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죽었습니다(레 10:1,2, 민 26:61).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셋째인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엘리의 아들 이름과 같음)에게 전해집니다(삿 20:27,28). 아론-엘르아살-비느하스---사독(아론의 10대손, 대상 6:3~8)--사가랴(세례 요한의 아버지).

엘리는 엘르아살의 가문이 아닙니다(대상 6:1~15). 엘리는 엘르아살의 동생 이다말의 후손입니다(왕상 2:27). 이다말-엘리--아히둡(이가봇의 형)-아히야(아히멜렉)-아비아달-?

엘르아살계는 사독계로, 이다말계는 아비아달계로 불립니다. 이 양대 제사장가문들이 다윗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다윗에 의해 두 가문의 제사장들이 순번제로 직무를 수행

하는 제도가 정착됩니다(대상 24:1~19).

그러나 엘리가 속한 이다말계는 사울왕에 의해, 엘리에게 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멸족의 위기에 이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놉 땅에 갔을 때 그곳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을 미워한 사울이 놉 땅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킵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아비아달(대상 24:16~23)은 이다말과 엘리의 후손입니다.

다윗과 아비아달의 관계는 각별했지만 다윗이 죽기 전 아도니야의 반란에 가담함으로써(왕상 1:7) 솔로몬에 의해 제사장직이 파면 당합니다(왕상 2:26,27).

그 후 아비아달의 자손들은 지방 제사장으로 전락하고 대신 사독계가 중앙을 장악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는 예언(삼상 2:35)과 엘리 가문의 남은 자는 생계를 위해 제사장직을 구걸하리라는 예언(삼상 2:36)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사독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으로 등장할 것을 예언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독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한 이후에 사독 가문의 정당성을 내세우려고 사무엘상 2장 후반부까지 편집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라고 여겨지는 사무엘이 사무엘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그의 사후에 그의 제자나 다른 선지자들이 그의 사후 역

사인 사무엘하 부분을 첨가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소 편집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본문을 기록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엘리의 불량 아들과 사무엘의 대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이들의 이름의 뜻부터 봅시다.

사무엘(쉐무아 shemua + 엘 el)= 하나님께서 들어 주심이 되었다.

엘리의 두 아들, 흠니(올챙이, 애굽어 hfn)와 비느하스(피부가 검다, 애굽어 penhsj)의 의미는 정확한 뜻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둘 다 애굽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 흠니는 ‘손바닥, 싸움꾼’, 비느하스는 ‘신의 계시, 지성소, 뱀의 입’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엘르아살의 아들)와는 동명이인입니다.

다음, 사무엘과 대조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의 대한 극명한 비교를 봅시다.

[11]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2]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17]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와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8]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5]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26]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불립니다. 불량자(benei beliaal, 벨리알의 아들들)란 ‘비류의 자식들’, 곧 배교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특히 그들의 죄악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사에 쓰일 제물들을 먼저 취한 것(2:13~17)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일이었습니다(2:22).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죄악 중 두드러진 일은 여호와와의 제사를 멸시한 일입니다(1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아들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때(2:27~36) 그들이 지은 죄의 원리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30절)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 의식을 엘리의 아들들이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멸시한 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제사 중 화목제에서 제사장들의 몫은 제물의 가슴살과 뒷다리입니다(레 7:34).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삼지창으로 입맛대로 아무것이나 골랐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들이 와서 고기를 요구했다는 말은, 기름 부분을 먼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레 7:23~25)인데도 그 순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자기 것으로 했습니다.

예배는 예배드리는 자들의 삶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하나님 중심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는 크다고 엘리의 아들들에게 하신 것처럼 심판을 행하십니다.

엘리는 자식들의 죄악에 대해 꾸짖는 말을 합니다(22~25절). 엘리는 자식들의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하나님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와 백성들의 관계를 알았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과케 하는도다.” 지도자가 홀륭하면 백성들이 따라잡니다.

출애굽기 32:21,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노

마태복음 23:1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예전에 ‘사사기’와 ‘아모스’서를 살펴보면서 지도자와 백성들의 운명은 하나라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 보여주시는 하나님나라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을 겸했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90이 넘는 노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이 엘리의 일을 대신했습니다. 실제 제사를 그들이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합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고 제사에 대한 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엘리가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단순히 아들들을 꾸짖는 것으로 끝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나이 많고 힘이 부족하지만 아직 제사장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파멸과 자신의 가문에 대한 예언을 들었다면 그는 마땅히 아들들을 폐하고 종교적 개혁을 일으켜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서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젓 떼 후’라고 하는데 3살 정도의 유아가 아니라 10살 전후의 어린이 시기를 말한

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비록 정식 제사장 예복은 아니지만 그가 세마포 예복을 입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6절에, 그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가 모든 면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2:52,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사무엘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속에서도 참되게 예배드려지는 미래의 이스라엘의 가능성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의 공멸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왜요? 사무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 바로 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욱’이란 표현은, 앞선 구절의 엘리의 아들들의 운명과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경고를 하실 때에는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이 계속 중해지고 더해져도 참으십니다. 그것이 경고입니다. 참으시고 아무 심판이 없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는 이런 교차적 대조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셔서 심판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행히 전체의 파멸이 아니라 부분적 파멸이고 제사장 가문의 교체를 전합니다(2:27~36).

사무엘상을 잘못 생각하는 어떤 학자들은 특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전한 예언이 갖고 있는 내용과 이상한 구성 때문에 훗날 솔로몬 집권시의 사독 대제사장 이후에 편집되었다고 말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인 특성을 잘 알지 못한 생각입니다.

다음의 도표(Presentation)에 의하면 사무엘상 2장의 앞부분인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의 교차적인 구별’과, 다음의 ‘이스라엘의 제사장 민족의 선택과 엘리 제사장직을 동일시한 예언’을 서로 엮갈려 대응시키고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연구가 없어서 “**사무엘상 2장의 구별과 동일시의 교차(Crossing Distinction & Identification)**”라고 임시로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전한 심판의 내용과 미래 예언은 이렇습니다.

[35]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서를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가 솔로몬의 왕권과 사독 가문의 제사장권을 확고히 하려고 편집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충실한 제사장’이란 사무엘을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고 다윗을 기름 부어 이

세상의 하나님나라의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제사장은 다윗 시대의 사독 대제사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이나 솔로몬왕의 세속적 왕권에만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솔로몬이 죽은 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 다른 왕조(북 이스라엘)를 세우시면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11:38,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전한 예언과 아히야가 전한 말에서 각각 나타나는 ‘견고한 집’이란, 다윗의 왕권도 솔로몬의 왕권도 여로보암의 왕권도 아닙니다. 새로 등장할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의 등장이나 사독 제사장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어야 할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한 근거를 엘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7,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의 기원은 출애굽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의 표’로서 레위인을 뽑고, 그 가운데서 아론을 대표로 제사장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의의입니다.

출애굽기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
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의 아들이 죄악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사기 때부터 실패해오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가문이고 현재의 제사장은 엘리와 그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체를 넓게 보시고 지금의 제사장인 엘리에게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제사장’(35절)과 대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여주는 하

나의 ‘표징’이 되고, 엘리 가문의 쇠락은 영원한 제사장이 오실 ‘표징’이 됩니다. 이제 그들의 현실은 더 큰 것을 보여 주는 ‘표징’입니다.

곧 등장할 사무엘이나 미래 솔로몬 사대의 대제사장 사독 가문은 각각 앞으로 나타날 충실한 제사장을 보여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다윗이 사모했던 하나님의 집이나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나라의 모델인 한 ‘건고한 집’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이고 ‘건고한 집’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실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봅시다.

먼저 무엇보다 우리의 진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28~8:1,

[28]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8:1]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9: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세상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나라가 ‘**견고한 집**’으로 서있습니다.

마태복음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또 다윗이 세운 세상의 왕조가 아니라, **크고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의 기본 원리로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나라를 대변하는 교회와 제사장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기본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나라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

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
멘

요한계시록 5:10,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오늘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악과 그 속에서
조용히 성장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준비한 ‘충실한 제사
장’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과 그가 기름 부어 세울 다윗왕이
하나님의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그 시대의 중요한 표
징이 되었습니다. 한 쪽은 **범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 다른 한 쪽은 **예배**로서 하나님나라의 시발점이 되었습니
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나라의 표징
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자리의 예배가, 사람 눈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예배가 세상에 하나님나라를
증거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하나
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범죄
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세우시기 위해 영 단번의 제사를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멸시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라고 했

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역자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모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방법처럼, 다윗을 세우신 방법처럼,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나 지식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선택되었고 부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성실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시대에 그러했듯이, 우리는 이 세대에 하나님나라를 보여 주어야 할 하나의 ‘표징’으로 삽니다. 이 자리의 여러분의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왕의 修業 03. “사무엘③-말씀으로 나타내시니”

이사야 41:1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삼상 3:1~21,

[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8]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

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
 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
 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이 듣겠나이다 [1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
 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
 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
 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
 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 그러
 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
 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
 였노라 [15]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
 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
 니 [16]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7] 가로되 네게 무
 었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
 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
 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18] 사무엘이 세세히 말
 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
 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19]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
 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
 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
 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시대가 부패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인 엘리 제사장의 때에 어린 사무엘은 십대 후반 정도의 나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성막 봉사와 엘리 제사장을 돕는 일에 성심을 다하고 그 날도 밤이 되어 성막 안에서 잠을 잡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양식대로 성막 구조를 보면 보시는 바(PP)와 같이 사무엘이나 엘리가 잘 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성막은 완전한 건축물은 아니지만 부속실이 딸린 조금 더 복잡해진 구조를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때는 성막이 아니라 성소라고 불렸습니다.

성막의 성소 안에는 거의 밤새도록 등잔불 촛대를 켜놓습니다. 제사장이 저녁에 불을 키면 기름이 다 타서 저절로 꺼질 때까지 돕니다. 어느날 밤 사무엘이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잠을 잘 때 아직 등잔불의 불이 꺼지기도 전에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부근의 엘리 제사장이 밤중에 자신을 찾는 줄 알고 엘리에게 얼른 갑니다. 당연히 엘리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연거푸 일어납니다.

사무엘은 세 번이나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때마다 엘리에게 가까이 가서 그가 자기를 불렀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것인 줄 엘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번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 번째에도 역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엘리로서는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인 자신을 부르시지 않고 늘그막에 자신의 시중이나 들고 성전 심부름이나 하는 어린 수습생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얼마 전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한 심판의 예언, 즉 자신의 가문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 부르실 때는 약간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부르시는지라”(10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눈에 보이도록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은 자기를 부른 사람이 엘리가 아니라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매우 정겹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는 부모처럼, 자녀의 대답이 듣고 싶은 부모처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미래의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

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10)

여러분은 사무엘이 네 번째야 겨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무엘이 양증맞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림에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사무엘이 너무 어렸다, 경험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음성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나타나셨다면 사무엘이 앞서 세 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간 것처럼 헛수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네 번째에 등장하셨을까요?

설교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해석을 하셨습니다.

“...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러나 그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지식이 없다. 그것을 식별할 만큼의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엘리는 지식을 가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거룩함이 없다. 또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함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식은 없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감성, 그런 깨끗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위에 또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그 지식을 엘리로부터 듣는다. 이렇게 합쳐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깨닫

게 되는 것이다.

그런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의미에서는 그저 식별할 수 없을 만큼 가까이는 듣는다. 그러나 그것이 의식으로 화해서 분별하게 될 때는 지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다.”

사무엘상 3장의 한 부분만 볼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다른 해석이 나와야 합니다.

바로 **엘리 때문**입니다. 만약 곧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고 다음 날 포커페이스 못하는 순진 청소년 사무엘의 이상한 태도를 보고 엘리가 추궁했다면 사무엘이 둘러대지 못하고 그대로 말했을 텐데, 그러면 엘리가 어떻게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 자식이 순진한 줄로만 알았더니 훅니와 비느하스에게 배워서 사기를 치는구나!” 하겠지요.

물론 엘리는 착한 사람입니다. 너무 착해서 자식 교육을 못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것과 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엄청난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듯이 아마 고지식한 엘리는 사무엘의 말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무엘을 쫓아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음을 엘리에게 알게 하셔서 결국 엘리가 알게 될 예언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금 3장에서 사무엘이 받은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엘리를 버리고 사무엘을 택했다는 사실을 엘리에게 입증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음을 보았습니다.

그 후 약 천 년이 지나 예루살렘에서 **두 명의 대체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최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홉니와 비느하스가 제물의 고기를 삼지창으로 푹푹 찢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군이 예수님의 손발을 십자가에 대못을 치고 창으로 가슴을 찌르게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택한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민족을 버리고 새로운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택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2장에 예언된 ‘충실한 제사장’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인 여러분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임명된 제사장 나라의 사람들에게 사무엘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11~14,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마서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마태복음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계시록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위임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나라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신자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면서 또한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하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신념에서 나옵니다.

부르심이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어.”라는 믿음입니다. 사명감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역사와 세상에 접목될 때 그 사명감이 열정으로 불타게 됩니다.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더 뜨거워지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이 선수들을 달아오르게 합니다.

연주자가 청중 앞에서 제대로 된 감정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자신의 연주를 듣는 사람이 없이 혼자만을 위해 언제나 연주할 수 없습니다.

산 위에서 섹소폰 부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집에서 연주하면 워낙 이웃에 방해가 되니 야외에 나와서 연주연습을 합니다. 그러나 힐끗힐끗 봐주는 사람이라도 없으면 그것도

오래 못할 일입니다.

관중을 의식한 연주나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자기 증명’ 이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에는 ‘하나님 증명’ 외에 딴 소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모두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만 자격이 있고 다윗이 믿음의 대담해서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부름 받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을 복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더 귀합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이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또 자신은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요?

예배의 경건함이라든가 은혜로운 말씀이라든가를 구분할 수 없는 수준에서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대부분 “나도 저들의 수준에 올라가보고 싶다”는 열망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소문난 목사를 찾아갑니다.

기존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도를 아십니까?”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지요? 요즘에는 “(관)상이 좋아 보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큰 거리에 있습니다. 속 좋게 응대했다가 잡히면 고생합니다. 아직도 대학가에는 “도를 아십니까”로 한창 인생과 철학에 호기

심 많은 학생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불행히도 여러분이 만약 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그와 같은 반응을 만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주일 이른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 정도 되는 여자 분이 동네 교회에서 나오시면서, 길 가는 저 보고 대뜸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였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아마도 새벽기도를 마치고 뭔가 감정적인 기쁨과 은혜를 담고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도 반가운 느낌은 아니었는데 불신자나 기독교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른 아침부터 전도할 생각이라면 그런 말을 초면에 대뜸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말을 먼저 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라든가. 무조건 예수 믿으라는 말은 요즈음에는 폭력으로 밖에 비추지 못합니다.

“안 쓰는 컴퓨터나 카메라 샅니다.”라고 확성기 키고 골목 골목 단지마다 떠돌고 다니는 분들이 있지요. 이것은 피해를 주는 겁니다. 구월동 신세계 백화점 사거리 앞에는 주말마다 위치만 니(위트니스 리) 교회 신자들이 노래하며 전도합니다. 안 그래도 시끄러운 사거리에서 그리 반갑지는 않더군요. 우리는 이렇게 대단하니 우리에게 붙어라 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하니 대단해 보이지 않나’입니다. 그냥 어깨 띠 두르고 사거리에서 무료 커피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 줍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니면 교회 어깨 띠 안 두른 평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정직하게 믿음을 심어주며 자기 책임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전도입니다. 도로에서 좌우 깜빡이 제 때 잘 켜서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게 하고, 보행 건널목에서는 정지선 잘 지켜서 보행자를 위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특히 한국에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하면 그게 귀한 일이 됩니다. 김여사라고 욱먹어도 할 수 없어요. 순교를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고, 특히 한국에서 상대방, 이웃을 위해 교통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거의 순교할 각오와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을 느끼겠습니다.

‘남들은 다 하지도 않는데 왜 나만 해야하는가’라는 생각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 삶에 기본도 안 된 바탕에서 남들 보라고 하는 전도는 세상이 아무 관심도 없고 오히려 저주합니다. ‘쇼하네’라고 생각하죠.

세상에서 물건 팔고 보험 영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영업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규칙적으로 오는 자동차 보험회사 메일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메일은 보지도 않고 삭제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한테 오는 메일은 꼭 읽어봅니다. 정성이 있

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본 글 중에, 6년 전에 로또 2등이 되서 6천만 원을 탄 친구 이야기를 쓴 걸 본 적이 있는데, 6년간 연락이 두절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니까... 그 친구는 6천만 원을 타서 한 달 사이에 그 중 3천만 원으로 또 다시 로또를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번호 하나만 더 맞으면 몇 십억이라는 미련 때문에 계속 빠져있었다는... 그래서 당첨된 총액은 12만 5천원..-_- 오천 원짜리만 수두룩이 맞은 거래요. 그 친구는 6년간 로또만 연구하고 로또만 생각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결국 취직도 못하고, 학교도 중간에 그만두고.. 로또 2등이 불러온 인생의 변화였다나...

이런거 보면 정말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행운은 어쩌면 독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요. 부자가 될 수 있는 행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오는 거겠죠~?

그 행운을 맞이할 마음가짐을 잘~ 수련해놔야겠습니다!
^^

오늘은 이만 줄일 게요~. 남은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쑹~~!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처럼 제일 먼저 **성전 문을 여는 일**입니다. 평소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섬김과 수고의 땀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유리병이 깨어져 있으면 가서 줍는 일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에 대하여 평소의 소소한 일에 정성과 진심을 보이면 전도가 됩니다. 그 수고한 일로 교회에 한 사람 안 와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공부방, 학생도 없고 이목도 못 끄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침마다 성전 문 열었던 사무엘의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해야 합니다.

2:26에서 사무엘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지난 시간 이 구절과 대응되는 신약의 구절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누가복음 2:52,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흉내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외쳐야 할 것을 하루만 다니면서 사십

일이 지나 니느웨성이 멸망한다고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하루나 사흘이 아니라 십 년, 백 년을 외쳐야 할 일입니다.

옛날 “예수 천당”했다고 말 타고 가던 일본 순사가 떨어졌더라는 전설에만 아직도 붙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노골적인 반기독교 감정이 최고조로 달해 있습니다. 이제 길 가는 사람에게 덩석 “예수 믿으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도 한 사회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희박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열어야 할 여호와의 전의 문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면 믿을만하다고 평가 받는 사람이 ‘교회 다니네’라는 말이,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여러분을 선전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왕의 修業 04. “법궤①-하나님의 임재”

사무엘상 4:1~7:2 (4:1~22)

[1]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벳에 진 쳤더니 [2] 이스라엘을 대하여 향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천 명 가량이라 [3]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라 [5]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 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6]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이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9] 너희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0]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

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삼만이었으며 [11]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2]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13]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곁 자기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와 그의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 오며 고함매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14]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흰화하는 소리는 어찌이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15] 때에 엘리의 나이 구십팔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6]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 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 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이 일이 어찌 되었느냐 [17]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18]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사십 년이었더라 [19]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꾸려 해산하고 [20]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21] 이 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

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22]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4:1의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는 말씀은 3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후의 내용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관련된 고대 역사에 대한 고고학적인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럽의 고대 청동기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아나톨리아, 에게해 일대, 레반트, 그리고 동북 아프리카 일대에서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 그중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 아나톨리아의 히타이트는 강대한 군사력과 고도의 과학문명을 토대로 가히 “제국”이라 부를만한 대국들을 이룩했다.

그 국가들은 모두 역사 속 여느 제국들이 다 그렇듯 궁극적으로는 결국 몰락해 스러졌다. 문명인의 척도였던 청동기는 서서히 철기로 대체되었으며 이후 문명들은 철기예기반을 두게 되었다.

하지만, 그 ‘몰락’과 ‘기술전환’은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바뀌며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몰락은 급작스럽고, 파괴적이었으며, 범국가적인 대재앙을 통해 찾아왔다.

기원전 1206년경부터 기원전 1150년경 사이 50년의 시간 동안(사사기, 롯기 시대) - 고대 역사의 흐름에서 극히 짧은 시간- 에게해를 지배하던 마이세니아 문명권, 시리아와 아나톨리아를 철권통치 하던 히타이트 제국, 나뭇의 문명을 이룩하고 발전해나가던 키프로스 섬 모두 멸망당했다. 이집트 제국만이 유일하게 궤멸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명을 이어갔지만 더 이상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제국'으로서의 위상은 오간데 없이 이후 등장할 다른 제국들의 속국이 될 운명만이 남게 되었다.

그 50년 동안 남쪽으로는 가자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트로이에 이르는 구간 사이에 있는, 인구수가 만 단위에 접어든 모든 주요 도시와 경제구역들이 광그리 파괴되었다. 그야말로 광그리.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 모든 주요 도시들의 유적들은 공통적 기간에 불에 타고 그슬린 파괴의 흔적들과 검상의 흔적이 뚜렷한 희생자들의 유골들이 나타났다.

기원전 12세기 LBA, 즉 후기 청동기 시대(Late Bronze Age)의 유적들은 단 한 개의 예외도 없이 동시기에 DL, Destruction Layer, "파괴 지층"이 뚜렷이 나타난다. 마치 중생대 백악기 말 지층의, 공룡의 흔적이 싹없어지는 KT 경계선 마냥. 그야말로 문명의 상실, 세계의 종말이었다.

무엇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 멸망, 아니 대 재앙을 초래하였는가?

지진, 화산폭발, 가뭄, 대대적 기후변화, 인구증가와 그에

대처하지 못한 구식 체제변화 실패, 전쟁 양상의 변화 등 등이 그 이유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그 어느 하나도 이 멸망을 뚜렷이 설명하지는 못한다. 절충안으로 ‘위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서 멸망했다’라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민자들의 대대적 공격과 파괴’.

필로스 유적지에서 발굴된 어느 마이세니아계 문자판에는 멸망당한 시점에 쓰인 기록이 있다. 그 문자판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바다의 약탈자들이 관측되었다! 보초병들을 급파하고 해안 요새들의 방어를 강화하라!”

“각 신전들에 전령을 파견해 청동 성물들을 가져와라! 창을 만들 청동이 부족하다!”

신전에서 청동을 징발해야 할 정도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일까. 그러한 노력도 부질없이 필로스는 불탔다.

우가리트의 그 기록은 또 다른 도시인 알라시아의 왕이 보낸 구원요청에 대한 응답 편지였다.

“도와줄 수 없소. 적의 함선들이 몰려와 내 마을들을 불태우고 매우 악랄한 짓들을 내 나라에 행했소. 내 모든 병력과 전차들은 하티(히타이트 제국의 중심 지방)를 돕기

위해 파견되어있고, 내 모든 전함들은 루카 지방을 지키기 위해 나가있소. 내 나라는 지금 버려진 상태요! 어제 여기 온 일곱 척의 적함들이 이곳에 많은 피해를 끼쳤소.”

히타이트에 조공을 바치던 우가리트가 오히려 히타이트를 돕기 위해 구원병을 파병해야 될 정도로 히타이트 제국이 동시기에 위급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히타이트를 도우러 갔던 우가리트의 군대는 필시 히타이트 제국과 함께 소멸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는 알라시아에 보내지지 못했다. 우가리트에 이어 알라시아 또한 얼마 후 멸망당했다.

우가리트에서 발굴된 또 다른 기록은 카르케미쉬에서 보내온 편지였다. 그 (점토판) 편지는 우가리트가 요청한 구원요청을 카르케미쉬의 총독이 거절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적의 배들이 해안에 출몰했단 말시오? 예, 그러니까, 힘내시오. 최선을 다해 버티시오! 그대 왕국의 군대와 전차들은 다 어디 갔단 말시오? 근처에 주둔하고 있지 않단 말시오? 그대의 마을들을 방책으로 둘러싸고 방어하십시오. 모든 병력을 송환하여 용기를 가지고 적을 막아내시오!”

카르케미쉬의 총독도 몇 마디 조언 외에는 우가리트를 도와줄 수단이 없었다. 그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람세스 3세의 시대에 정체불명의 “해인(海人 (Sea People))”들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람세스 3세의 공덕을 기리는 메디네트 하부 신전의 벽에 이렇게 적고 있다.

“바다에서 온 자들이 음모를 꾸몄다. 그들의 공격에 모든 땅과 사람들이 모래처럼 흩어졌다. 그들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다. 히타이트, 아르자와, 알라시아, 카르케미쉬 모두 멸망당했다. 아무루 지방의 사람들은 모조리 몰살당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한 적 없는 것 같은 땅이 되었다. 그들은 이집트를 향해 몰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폐하께서는 그들을 위해 불꽃을 준비해 두셨다...”

그 바다에서 온 어마어마한 파괴자들은 누구였을까.

역사학자들은 이 ‘해인’들에 대한 갖가지 가설들을 내놓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새로이 레반트 지역에 정착하게 된, 훗날 ‘팔레스타인’인으로 불리게 될 필리стин 사람들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Drews, Robert. The end of the Bronze Age: changes in warfare and the catastrophe ca. 1200 B.C.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가나안 남서쪽 해안에 자리 잡은 블레셋 민족이 역사기록에서 추측할 수 있는 ‘해양 민족’의 전부라고는 생각되지 않

습니다. 해양 민족은 애굽의 기록에도 남아있듯이 다른 여러 민족의 연합체였습니다.

이들 해양 민족은 기원전 20세기부터 시작한 지중해 지역의 민족 대이동을 따라 그리이스 쪽에서 지중해를 거쳐 지금의 터키와 북동 아프리카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침략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사사기 시대에 가나안땅에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해양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들이 지나간 지역은 거대 제국부터 약소민족까지 모든 문명이 거의 파괴될 정도로 침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세계사에서 세계최초로 철기문명을 이룩했다고 배운(실제는 20세기 이전의 애굽에서도 철기가 있었음) 소아시아 지방(지금의 터키)에 있던 히타이트 국가를 기원전 13세기에 이 해양민족이 멸망시켰다고 믿어지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히타이트가 비록 철기도구를 사용했지만 그들을 침략한 해양민족은 우수한 철기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사무엘 시대 때의 블레셋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전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블레셋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항복시킨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다윗이 되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이 민족과 싸워 이겨내고 오히려 그들을 약화시킨 다윗이야말로 어떤 제국에서 이룩한 공로보다 더 대단한 업적입니다.

사무엘하 8:1,

이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다시 사무엘상 4장 내용으로 돌아갑시다.

그들이 기원전 12세기쯤에 지중해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들이 해양민족이라는 증거 중의 하나는 가나안의 대부분의 우상들이 농사와 관계되어 있는데 블레셋의 주우상만 ‘다곤’이라는 물고기신입니다. ‘다그’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이란 이름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때에도 언급이 됩니다(창세기 21, 26장).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기원전 20세기)에 블레셋이 벌써 등장한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합니다만, 블레셋이 소규모적으로는 이미 가나안 지역에 조금씩 이동해 오고 있었다가 12세기에 대규모로 정착한 것으로 봐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기원전 12세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남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철기문명으로 차츰 세력을 넓혀서 불과 2백년도 안 되어 사사시대 후기와 사무엘 때에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사기 삼손 때부터 이스라엘을 핍박해왔습니다.

그들의 무기도 선진 철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다가 겨우 청동기나 후진국 철기 수준입니다. 탄소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치면 TV드라마 주몽에서 보신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골리앗의 무장을 보면,

[4]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요 [5]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오천 세겔이며 [6]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7] 그 창자루는 베틀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투구와 갑옷, 다리에 찬 경갑, 짧은 창은 놋(청동)입니다. 그러나 주 무기인 창은 약 7kg의 철제 무기입니다. 철기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블레셋일지라도 철제무기는 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아백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천명이 죽는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오자는 것입니다. 다른 제국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들의 이 결정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궤는 성막 내부의 지성소 안에 있는 상자와 같은 모양입니다. 법궤 안에는 10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임재를 물질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실패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임을 깨닫지 못하고 법궤를 전장에 갖고 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전쟁이 벌어질 즈음에 제사장 엘리와 함께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보이는 법궤가 이동됨으로써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줄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이 큰 과오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도 법궤를 전장에 가지고 가지 않았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 성경말씀이 있습니다. 밋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다윗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중에 언약궤, 즉 법궤가 영채 안(in tents)에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11,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채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훈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엘리 시대 때 장로들이 법궤를 진영에 옮긴 것처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한 운명으로 쉼을 움직이는 막사 안에 있는 것처럼 전쟁 중**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훗날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성을 내어주고 떠날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미리 나와 있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24~26,

[24]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25]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6] 그러나 저가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훗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성전 안에 안치할 때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27,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거나 보여주고자 하는 외부적인 것, 시설의 호화로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의 외부적 시설과 의식, 조직을 의지하려는 헛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법궤가 전장에 옮겨질 때, 4절에 나타나듯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법궤와 같이 나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벌써 알다시피 이름만 제사장이지 배교자요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렇게 법궤와 같이 나타난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종교의 최고 지도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거짓 지도자들은 자기가 죽을 자리를 찾아 갑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사탄이 광야의 예수께 시험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인 너를 구해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4:5~6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
딛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
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의 교회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서 자신의
교양과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큰 교회, 유명한 교회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
험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당시 그들의 생각에는 법계를 가지고 오자는 아이
디어는 얼마나 멋진 아이디어입니까? 누가 생각해 냈는지
대단합니다.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습니까? 쉽습니다. 한
30억 들여 논현동 좋은 자리에 큰 교회 지으면 됩니다. 모
두 다 큰 건물 정초석 놓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하는데, 회개
의 제단을 먼저 쌓겠다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
다.

목사들끼리 모이는 자리에서 가장 큰 집중을 얻어낼 수
있는 대화는 교회 건축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 건
축했더라하면 그쪽으로 고개들이 팽팽 돌아갑니다. 무슨 정

보나 좋은 방법을 들을 수 있을까하고요. 그만큼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의 피나는 전쟁은 지하, 쪽방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처럼요.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합니다.

[5] 여호와와 언약궤가 진에 들어 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문학경기장에서 경기가 있을 때 관중들이 소리를 지르면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소리가 들립니다. 요즘 콤플렉스 구장에서는 관중 소리가 위로 올라가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할 때 아마 발을 구르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몇 만 명이 동시에 발을 구르면 지진이 난 듯 땅이 울릴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들은 이미 승리를 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착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들에서 예배드릴 때 숫자가 많으니까 예배가 웅장하고 찬양이 멋있고 뭔가 백적지근한 게 있습니다.

공통의 현상 속에 같이 묻혀서 거대한 공감대에 끌려 가는 것을 대중심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감동으로, 은혜로 착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각종 멀티미디어 장치와 몇 억 원을 하는 음향장비로 사람들을 뺄 가게 만드는 부흥회도 많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집회를 그렇게 인도하라고 교육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가? 영적인 가르침인가?” 하고 다시 생각해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진정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라고 길거리에서 묻는 사람에게 ‘예, 도를 알고 싶어요’라고 얼른 다가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백 만 명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표정이 그대로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세상에 대하여 우월감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한국의 신자들이 세상을 볼 때, ‘불신자들은 구원 못 받은 가련한 인생들이다’라는 표정을 얼굴에 달고 다닌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식이고 너희들은 마귀 자식들이다.’ 그런 생각은 교회 안에서만 가지세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자들이 무례하고 거침이 없는 면이 있

습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배타적이나 위선적이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승리만 맛보고 성장한 한국교회입니다. 법궤를 아주 끌고 다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었듯이 교회에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전쟁에 나섰다. 인간의 의지로 블레셋의 방법으로 했습니다. 결국 졌고, 그들은 그 해결 방법을 법궤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모신 제사장들이 삶과 신앙에서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이 아니라 벨리알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보지 않고 마치 하나의 미신적인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7:43,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어

법궤가 우상이 아니지만 그들이 우상으로 취급했기에 성경은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얻고자 하고 그래서 ‘사랑하세요’라는 말만하고, 교회에 가면 복받는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법궤가 왔다는 소식에 대한 블레셋군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들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고 믿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통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는데 먹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정말 승리 맞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어느 정도 믿고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을 거절하고 순종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블레셋이 반면교사처럼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까?

블레셋의 저항으로 그들은 오히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기고 수행하던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합니다. 홉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생전의 삶처럼 치욕스런 죽음이 되었습니다.

아백전투의 패전과 법궤 탈취의 소식이 베냐민 지파의 전령에 의해 실로에까지 전해집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베냐민 지파 청년은 훗날의 사울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패전과 아들들의 죽음과 법궤 탈취의 소식을 한꺼번에 들

은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런 와중에 비느하스의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패전과 법궤까지 빼앗기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산통을 느낍니다. 그녀는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낳은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법궤를 우상처럼 이용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법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하나 참된 예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듯하나 괴상한 거짓을 말하는 강단이 있습니다. 단지 이단이 아니라 정통교회를 자처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훅니와 비느하스 같은 악한 제사장들과 같이 욕심과 자기 증명을 하려는 양치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도자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어 지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교회의 지도자에 의해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이가봇’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노쇠하여지고 비대해지고 눈이 어두워져

가는 자칭 보수교회들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잠식된 한국교회를 방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법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우상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법궤가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을 알았을 때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한국교회의 미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법궤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삶이 최악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는 방법을 이루어 내십니다.

블레셋이 힘이 있어 법궤를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휴지조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이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용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

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준비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오히려 승리하고 법궤를 빼앗아 가자, 블레셋의 우상 신전 안에 모셔진 법궤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상들의 목과 손이 부러져 몸통만 남은 채 엎드러지고 블레셋 전 지역에 독종이 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 벤세메스 동네의 사람들은 그만 호기심에 아니면 법궤가 무사한지 궁금해서 법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만)칠십 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들을 죽이신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호할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벤세메스 사람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고백

합니다.

사무엘상 7:20,

벤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에 의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 능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9:3,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솔로몬이 비록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는 있어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무능력해도 한 번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의 구원은 스스로 이루실 하나님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왕의 修業 05. “법궤②”

사무엘상 7:1~17,

[1] 기랏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와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 놓고 그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와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 궤가 기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을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5]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8]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9] 사무엘이 젓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뽕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13]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4]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5]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 해마다 뽕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제가 룯기와 사무엘서를 강해하기를 시작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기존의 자료도 많으니 설교가 좀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예상과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상과 달리 설교 준비할 때 마다 해석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거의 하나씩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른 생각과 시야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은 왜 네 번째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렸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주일에 살펴 보았습니다.

또 블레셋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사사시대 부터 사무엘, 다윗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이방민족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하나의 이방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전성기를 잃어버리고 마침내는 희미해지고만 민족일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 블레셋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가졌고 그 의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블레셋과의 전쟁과 빼앗긴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서 7장까지 너 장이나 차지할 정도로 많다는 점에 대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분량이 많다는 것은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보통 성경의 한 사건이나 장면만 보고 설교를 하면 해석이 단편적이고 결론은 신앙 윤리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블레셋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법궤를 끌고 가는 암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신앙생활하자’는 겁니다. 이런 설교에서 요구하는 신앙윤리나 삶의 태도는 매우 훌륭합니다.

제가 그런 해석과 적용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윤리적 결단을 요구할 수 있는 본문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화를 들 수 있지만 설교 본문이 예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말씀하게” 해야 합니다.

그 장면이 왜 들어가야만 하느냐, 그 상황에서, 그 사건으로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는 무엇이나는데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성경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을 평면적인 관점에서 상하좌우가 연결된 입체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학 용어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훈련은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학적인 방법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훈련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계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이야기는 어떤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아직 저도 많은 점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책에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이건 수수께끼다.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하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마침내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의 역사적 가치 즉,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블레셋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블레셋의 당시의 존재 이유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그들의 영적인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간절히 구원을 바라지 않는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로 기록된 삼손의 투쟁은 블레셋과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고귀한 사명이나 해방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원한문제로 벌인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삼손의 일생은 거듭남에 대해 상관없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신자들이 제 잘난 맛에 살다가 세상에 잡혀서 모욕을 당하게 되고 결국 진정한 힘과 구원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벗어나는 과정 중에 있던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어쩌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뭉쳐가는 것을 기다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2차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자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지도 아래 회개를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말하자면 신자가 영적으로 거듭나거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시점이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에벤에셀(도움의 돌)에 기념비를 세

웁니다(7:6~11). 에벤에셀은 과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곳입니다(삼상 4:2,11). 그곳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드립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정해진 제사 의식이 아니라 물을 쏟아 부음과 같이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다는 표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행동입니다. 물 붓듯이 그들의 죄악을 마음에서부터 토하고 물이 낮은 데로 흐르듯이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바로 살겠다고 헌신한 후 무슨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까? 복? 그런데 복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이 정답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닥친 현실은 블레셋의 대대적인 총공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집니다.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정욕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새로이 살겠다는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블레셋은 원래 그리이스 세력권에 속했던 지중해의 크레테섬의 민족입니다. 성경에는 ‘갑도림’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갑돌’이라는 지명이 크레테섬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10:14,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

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신명기 2:23,

또 갓돌에서 나온 갓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었느니라)

예레미야 47:4,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 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
께서 갓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모스 9:7,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
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
레셋 사람을 갓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
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노아 - 함 - 미스라임(애굽의 시조) - 가슬루힘의
후손입니다(창 10:6~14). 노아의 아들 함은 노아로부터 저
주받은 민족입니다.

성경에서 블레셋 족속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특이한
사항이 ‘할례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14:3,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이나 내 백성 중
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

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
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
소서 하니

사무엘상 17:26,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
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
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36,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
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무엘상 31:4,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례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
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무엘하 1:20,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
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할례란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체적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징표**

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9~14,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지 팔일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중에서 끊어 지리라

하나님나라의 백성이라는 육체적 표시가 할례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할례는 신령한 할례, 즉 **심령의 할례**입니다. 구약에서도 육신의 할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할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레위기 26:39~41,

[39]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 같이 쇠잔하리라 [40]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41]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예레미야 4:4,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 6:10,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와 말씀은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예레미야 9:25~26,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대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육적)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
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 젖어있는 바리새인인
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홀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5~6,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로 믿는 육체의 할례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으나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습
니다. 유대인 즉 이스라엘인이 되려면 신체적인 할례를 받아
야하고 그것이 진리로만 알고 있는 율법학자에게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경지일지 모릅니다.

사도들의 시대인 초대교회 때에도 구약의 구원관과 새로운 시대의 구원관이 충돌했습니다. 당연히 중심 테마는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할례는 구약적인 개념을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15:1)고 구약의 율법을 주장했습니다.

또 곧이어 예루살렘에서도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15:5)고 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새로운 신앙이 서기 위해서 아직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들의 대표자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7~11,

[7]...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

고 [9]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라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10]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
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
하던 멩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음을 믿는 자들은 육신
의 할례가 아니라 영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2~3,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
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
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육적 할례를 받았지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멸망하였습니다. 천국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가
는 것이지 육체의 할례는 아무리 받아도 천국에 갈수 없습
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구원이 구원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
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6:15,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로마서 2:28~29,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레가 할레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레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골로새서 2:11,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레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레니라

또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에, 구약의 할레가 신약의 세례로 대체된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점도 있고 아닌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혹은 계약)의 백성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할레와 세례가 같습니다. 그러나 할레는 피 흘림과 죽음,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주지만 세례는 보다 적극적으로 죄 씻음과 거듭남을 조명해 줍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할레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례라는 의식과 행위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람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죄를 씻는다는 표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

는 신앙고백의 행위로 받아들였을 때 세례가 구원받았다는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열왕기하 5장에 아람(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려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엘리사로부터 요단강에 일곱 번 씻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얼굴도 못보고 전해들은 말이 그것도 그가 기대했던 방법도 아니고 자신의 나라의 강들보다도 못한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말에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종들이 나아만을 말립니다. 설혹 엘리사가 더 큰 일을 요구했어도 했을 텐데 그가 명한 일은 그냥 씻는 일뿐이라고 종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마음을 돌리고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들어갔더니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재물을 노리고 거짓말을 해서 나아만을 속여 재물을 얻어 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게하시는 나아만이 갖고 있던 병과 같은 문둥병을 갖게 됩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자신의 나라에서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대접받는 영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한 일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씻는 일이었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욱신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합니다.

게하시는 이스라엘인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에 욕심을 가졌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지자인 엘리사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별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영혼이 죽어 영원한 나라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감각이 죽었기에 욱신의 감각이 없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아만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이고 또 그 게하시와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하시를 보여주시기 위해 외국의 군대장관을 문둥병 걸리게 하셨고 또 그를 낮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인 나아만의 구원을 통하여 영혼이 죽어가는 육적 할례

받은 계하시와 이스라엘이 주인공이고 그들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해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웬 일이냐?’는 식으로 코웃음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아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4:27,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으키실 말씀으로 받을 만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줄립고 지겹구나’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귀속에 들러붙은 문둥병 균을 끄집어내십시오. 영혼까지 죽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새 시대의 영적 할례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적 관점에서 사무엘 시대 때의 **블레셋 족속의 존재 의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비유적인 표현이 룯기 초반부에 있다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사무엘서에서는 여러분의 거듭남의 표현을 전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을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나 거듭남의 체험, 성령의 동행하심 이라든가 구원의 확

신이 없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블레셋 족속은, 거듭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 옛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의 정욕, 계획, 선한 뜻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 안의 모든 인간적 사고와 의지를 상징합니다.

사사시대와 다윗 시대를 가장 괴롭힌 족속이 블레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할레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혹은 거듭난 사람의 영혼 한 구석에 있는 옛 사람, 육신의 마음을 비유합니다.

그들은 기원전 13세기까지 당시의 지중해 연안의 신생 문명권들을 뒤흔들고 수많은 나라들을 파멸로 몰고 간 민족이었습니다. 게다가 겨우 50년 동안에 그들의 강철무기에 히타이트와 애굽이, 가나안 민족들이 약화되거나 망했습니다. 이 민족들이 모두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 블레셋이 이제 새로이 거듭나려는 이스라엘에게 도전했습니다. 2회전에 걸친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했고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 후기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삼상 4:9).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왕을 섬기지 못하면 세상이 주인 노릇하려 합니다.

심지어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육신의 자아에서 벗어나

지 못하면 블레셋은 언제든지 소유권 요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를 얻은 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왕이 하나님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육신의 자아를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합니다.

아니 과거에는 거듭남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단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구원파라는 이단이 나타나서 한국교회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지금도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해외 한인교회들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기존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 생소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불행히도 그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평신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내심으로는 원했다는 반증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목회자들이 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목사들의 수준이 그랬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 영적인 말씀과 교육을 하지 못한 기존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들이 스스로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 성경공부, 평신도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구원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나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해서 각성하게 해주는 사회적인 동기는 과거처럼 종교적 이단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고 사고방식이요 철학입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의 때부터 신자 개인 개인 안에 있는 인간의 자아,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 상태에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것이 미혹의 영에 이끌린 것인지는 지식으로도, 학력으로도, 경력으로도, 인격으로도, 교회 크기로도 당사자들은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영적 싸움에 나가서 에벤에셀에 돌을 세우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마침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처럼 하나님의 전을,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을 경험하는 승리를 바라봅니다.

저는 교회의 목표를 건축이나, 부흥이나, 어떤 성장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교회의 목표는 이 ‘자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임재하시는 그분의 나라임

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회개와 헌신의 물 부음을 올리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거센 도전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뿐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시겠다는 증표인 에벤에셀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왕의 修業 06. “왕의 선택①”

사무엘상 8:1~22,

[1] 사무엘이 늙으매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2]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4]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9]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10]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11]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거케 하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발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13]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락굽는 자를 삼

을 것이며 [14]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 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 너희 양떼의 십분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18] 그 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19]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21]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22]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사사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3절에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판결을 따를 때 법에 의하지 않고 누가 많이 바쳤는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길동, 임꺽정 시대가 됩니다. 가진 자가 승리하고 없는 자들은 무법천지로 살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이고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보는 능력에 있어서는 약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자식들에 대한 판단이 흐렸던 모양입니다.

불만을 품은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시작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정을 원하셨는가?”의 문제입니다.

과거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수고 오래 사사로 활동하자 백성들이 기드온으로 시작하는 세습왕조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거절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제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신명기 17,18장에서 이스라엘의 세 가지 직분 즉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왕에 대하여는 주의하라는 경고를 합니다.

신명기 17:14~20,

[14]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15]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

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 왕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왕정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이나 다윗 왕가가 등장한 것을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왕정을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신 것인가요?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은 왕정의 악함을 예로 들며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세워 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형식적 이유는 사무엘이 나이 들고 그 아들들이 사사로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들 스스로 표현합니까?

5절에 밝혀줍니다.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주변 강대국들도 무너져 가던 기원전 13세기입니다. 블레셋은 든든한 군사력으로 언제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려고 하고 다른 암몬, 미디안 등 가나안의 원주민들도 언제 위협적인 존재로 변할지 모릅니다. 이때 사람들의 생각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왕이라기보다 제사장이요 선지자에 더 가깝습니다. 정치나 사법권을 행사하는 그 아들들도 백성들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고 재물에 눈이 먼 소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통치제도에 의한 국가를 꿈꾸는 백성들이 왕을 세우자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적 사고방식을 하는 훈련의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되자는 것입니다. 인기 있고, 사람들의 눈을 잡아끄는, 대단해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지쳤다. 다른 민족들이 ‘너의 왕이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는 ‘하늘에 계시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 이것이 그들의 요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질투와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7,8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십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우리 자신과 교회들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비록 옳다고 생각되는 목적일지라도 동기가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은밀한 양심의 저항까지 가릴 정도로 욕심에 눈이 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그들이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고통스런 일로 백성들과 더 이상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6]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마을마다 보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16,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거스르고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은 여러분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신이 왕이신 복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훗날 이들은 위대한 임금을 거부합니다.

이 땅에 왕 중의 왕이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왕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9:15,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백성에게서 거절당한 왕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4~9,

[4]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

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서 17절까지 사무엘이 왕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예들이 단순히 고대의 왕들이 행하던 세금을 걷고, 부역과 균역을 강제로 시킨 일들이 아닙니다.

폭정과 자기 위주의 정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왕들이 늘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행해야 할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왕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방처럼 영웅적이고 강력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사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항할수록 자신만을 더 괴롭게 하고, 다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온 사울에게 안수하고 백성들이 제비뽑기로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지요.

하나님은 사울이 선택받도록 하셨지만 그 기준을 백성들의 수준에 맞추어 뽑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통솔력도 있습니다. 군사들을 부릴 줄도 알았습니다. 전쟁도 잘 합니다. 이런 사람 말고 누가 더 왕에 적합한 인물이겠습니까?

백성들은 왕을 원하길 잘 했다고 생각했고, 사무엘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사울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가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원칙은 사람과 동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순종을 통해 구원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떤 목적에 맞게 일을 해야 할 때는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인간이 원하는 종류의 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타입의 왕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울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신정국 이스라엘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통치를 단절하고 자신이 통치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상하권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제사를 멸시한 제사장 문제(엘리와 엘리의 아들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근본 의미를 보여주는 다윗의 제사로 끝납니다.

사울이 제사의 문제로 불순종의 행동을 나타낸 것은 우연

이 아닙니다.

사울 사후에 다음 왕이 되는 다윗은 사울이 왕이 된지 3년 후(BC 1040)에나 태어납니다. 사울의 33년 통치기간 중 한창 주가를 올릴 때 다음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사울을 세우지 않고 곧바로 다윗을 등장시켜 왕국을 세웠으면 33년이란 시간의 낭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방식의 결과와 하나님의 결정을 비교시키기 위해 사사기와 사울왕정 시대의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왕을 세우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세우셨고, 또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5~8,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사회, 국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 자리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주님 오실 때입니다.

그때에는 세상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왕이 누구인가에 의해 소리칠 것입니다.

[18] 그 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당장 종말이 되어서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복된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등장하고 33년이 지나 다윗을 등장시키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왕 시대가 천년이 지나서 오셨듯이, 주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중간의 때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한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왕을 선택해야 하는 기회들을 맞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고 선택한 일 때문에 생명을 버려야 했던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예전 유럽에서 종교개혁 할 때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찰스 1세(1600~1649) 때였습니다. 과거에는 왕이 믿는 종교를 백성들이 따라야 했습니다.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신이 세웠다고 믿는 왕권에 대한 반역을 의미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잉글랜드의 성공회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는 교리가 같습니다. 둘 다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나온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정치문제요 권력의 문제, 왕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같은 공자 믿는 유교학자 관리들이 무슨 파에 속해 있냐에 따라 서로 죽이고 살리고 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게다가 성공회는 왕이나 대주교의 신앙색채에 따라 카톨릭처럼 갔다가 개혁주의처럼 갔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히 찰스 1세 때는 성공회의 고교회파(거의 카톨릭) 대주교가 집권해서 더욱 카톨릭식의 예배와 신앙을 강요했습니다. 기도와 설교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제가 집전했습니다.

예전부터 독립심이 강한 스코틀랜드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로교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강제로 요구하는 예배방식을 거부했습니다.

싫으면 주일에 교회 안 나가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 당시 사회는 교회에 안 나간다는 것은 밥을 안 먹겠다는 말과 같

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거나 따로 모여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해야지 주일을 빼먹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어느날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녹스(1514~1572)가 목회했던 Saint Giles' Cathedral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1637년 7월 23일부터 장로교회가 폐지되고 성공회 의식대로 예배가 드리지도록 되었다. 그러자 이 날에 에든버러의 사제장이 세인트 자일스 교회당에서 성공회 의식을 따라 예배를 집전하려고 할 때, 제니 겐즈(Jenny Geddes)라는 여인이 큰소리를 지르면서 사제장을 향하여 의자를 집어던지는 소동이 일어났다.

그때부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이 찰스 1세의 박해에 대항하기 위해 개혁운동(National Covenanters, 계약파)을 일으켰습니다(1638).

그에 대한 잉글랜드 정부의 피의 숙청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의 유일한 구호는 “우리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도덕의 유일한 규칙으로서 권위적인 입장에서 회복되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교회의 머리로서 재등극하셔야 한다.”(글래스고우 총회 발표, 1646~1652)

이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로틴(단 두대)에 목이 잘렸습니다(1,800명). 어떤 사람들은 투옥되었습니다(1,200명). 에딘버러 그레이프라이어 교회(Greyfriars Church, 충견 보비 Bobby로 유명한)의 ‘지붕 없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 내부에서 3개월 된 아기가 엄마와 같이 굶어죽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순교기념비문(1706년 세움)을 읽어 드립니다.

Halt, passenger, take heed what thou do see,
This tomb doth shew for what some men did die.
Here lies interred the dust of those who stood
'Gainst perjury, resisting unto blood;
Adhering to the Covenants and Laws,
Establishing the same, which was the cause
Their lives were sacrificed unto the lust
Of prelatists abjured. Though here their dust
Lies mixt with murderers', and other crew,
Whom justice justly did to death pursue:
But as for them, no cause was found
Worthy of death; but only they were found
Constant and steadfast, zealous, witnessing
For the prerogatives of Christ their King.
Which truths were sealed by famous Guthrie's head,
And all along to Mr. Renwick's blood,
They did endure the wrath of enemies,
Reproaches, torments, deaths, and injuries.
But yet they're those who from such troubles came,

And now triumph in glory with the Lamb.
 (지나가는 이어, 지금 당신이 보는 것을 주의해 보라.
 이 무덤은 어떤 이들이 죽었는지를 보여주노라.
 여기에 묻혀 누워있는 이들은 거짓 맹서에 대항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섰나니,
 또한 성직자들이 욕정으로 저버린 계약과 율법을 사수하
 려
 자신들의 생명이 희생된 이들이 누워있노라.
 여기에 비록 죽음으로 마땅히 심판받은 살인자들과
 그 일당들과 같이 이들의 유체가 묻혔으나
 이들은 죽음을 당하여야 할 아무 이유도 없었나니
 다만 이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권을
 부단히 쉬지않고 진정으로 증거한 것 뿐이로다.
 이 진실이 유명한 Guthrie의 머리와
 Mr Renwick의 피와 함께 봉인되었노라.
 그들은 적들의 격노와, 비난과, 고문과,
 죽음과, 위해를 인내했노라.
 이들이 그러한 고난에서 나온 자들이었으나
 지금은 어린 양과 함께 영광의 승리를 하였노라.)

그 하단부 발치에는 왕관 형상이 있고 이렇게 비문이
 붙어 있습니다.

**Be thou faithful unto death, and I will give thee a
 crown of life.(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시록 2:10)**

나중에 찰스 1세는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에 의해 패해서

처형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와 전쟁 중에 믿음을 위하여 자신의 참된 왕을 선택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는 아직도 믿음을 지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한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순교나 투옥을 당해야만 참된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에는 현실의 고단함과 정치적 폭력에서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내세신앙 혹은 종말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 7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성장제일 위주의 사회 흐름과 맞물려 부흥이 일어나면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방언 및 신유 등 은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고유의 민속신앙에 뿌리박고 있는 기복주의에 더하여 엄청나게 유행하였고 알파코스, 금이빨 사역 등 지금까지도 힘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미국식 긍정주의, 성공(번영)주의에 근거한 적극적인 신앙(사교)방식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그 후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점검이 없는 감정위주의 은

사운동과 기복신앙이 이단과 같은 운동에 약점을 잡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신앙 양상은 어떻습니까?

90년대 이후 지금까지는 종교다원화가 특징입니다.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고 이타적 사랑의 실천이 목표인데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원인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물질중심의 세속적 사고방식이 원인입니다.

카톨릭도 이제 옛날처럼 정해진 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스타 목사들이 있듯 카톨릭에도 스타 사제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의 신앙 유형들 속에서도 장점이 있고 보고 배울 것이 있습니다. 때로 방언을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서 성공을 위해 노력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예 어느 신앙을 갖지도 않고 어떤 신념이나 철학이나 자기만의 삶의 원리를 갖고 노력하며 살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왕을 바로 자신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기독교, 그중에서 개혁주의 전통을 지향하는 한 교회를 선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잘못된 강단에 대하여 의자를 집어던졌던 에딘버러의 한 여인과 같은 신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신자의 사회’(Dead Pew's Society) 같은 풍토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선택하여야 하는 일과 함께 또한 우리에게는 매일 매일 결단하여야 할 왕의 선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일을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유혹이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멋진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침략 같은 주변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修業 07. "사울①-나귀 찾는 사울"

사무엘상 9:1~27,

[1]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를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2]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3]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4]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5] 그들이 습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6]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흑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7]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8]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분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9]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10] 사울이 그 사

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11]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12]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13]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14]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15] 사울의 오기 전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16]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 보았노라 하시더니 [17]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18]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19]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20] 사흘 전에 잃은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나와 네 아

비의 온 집이 아니냐 [21]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
 까 [22]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
 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삼십 명 가
 량이었던대 [23]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24] 요리인
 이 넓적다리 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
 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
 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
 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25]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26]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 즈음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
 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
 께 밖으로 나가서 [27]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
 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매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간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을 네게 들리리라

1,2절에서는 사울의 가문과 용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
 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울보다 더 잘 생긴 사람이 없
 었다는 기록으로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외형적인 장
 점들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대단한 가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룯의 남편 보아스를 설명한 단어(룯 2:1, 유력한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용사를 말하고, 평화시에는 사회적인 명망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사울의 신앙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9장에 묘사되고 있는 사울은 외형적인 능력을 바란 이스라엘의 기준에 딱 맞는 인물이라는 결론입니다.

그 후에 보이는 사울의 모습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려 한다고 했을 때 그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작다고 겸손하게 거절하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9:21).

[21]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에도 짐들 속에 숨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숨기까지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심지어 직접 농사를 짓기도 했습니다(11:5). 성실히 자신의 책임을 다했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전쟁터에도 앞서 나갔습니다. 정말 이만한 인물을 찾기도 힘이 들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훌륭한 조건들조차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왕을 선택

하셨을 때에 외형적 조건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훗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부을 때 다윗이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지만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그의 얼굴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7,12,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12]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허락하시고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한 명 붙여 나귀들을 찾아오게 합니다.

베냐민 땅과 그 위에 있는 에브라임 지역까지 사흘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흘 동안 찾았다는 것은 사울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효성심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걱정할 아버지 때문에 그만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권합니다. 그 장소가 습 땅(9:5)이라고 하는데 습 땅은 소빔(습 사람)입니다. 소빔은 바로 사무엘의 고향 마을 라마다임소빔(1:1)입니다. 라마다임소빔의 뜻은 ‘습 사람의 두 봉우리’이고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두 개(~im)라는 숫자가 빈번히 사용됩니다. 사무엘의 고향 지방인 에브라임의 뜻은 ‘두 배의 소산’입니다. 그리고 2장에 나타난 ‘충실한 제사장 예언’의 이중적인 표현, 두 왕의 이야기 등, 분명히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을의 물 길러 나온 소녀들로부터 사무엘이 돌아왔다는 것과 그의 위치를 알게 되어 그를 찾아 잡니다. 사울에게 나귀를 찾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국을 수시로 다니며 일을 하는 선지자를 찾는 일은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5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5] 사울의 오기 전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16]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 보았노라 하시더니

이미 전날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의 지도자

즉 왕으로 삼을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린 일도, 사울이 사흘을 헤매다가 사무엘의 고향에 이른 것도 결코 우연히 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울을 마중하러 나오지도, 어떤 외형적인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사람이라면 비록 하나님이나 사무엘이나 진정으로 원하는 인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아마도 기대를 하고, 마당을 두리번두리번 서성거리거나, 낯선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늘 하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울과 그의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갈 때 나눈 대화를 보면 그가 얼마나 영적인 일에 무지한 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의 이름도 몰랐고, 물론 당시 사회의 예의범절이랄 수도 있지만 마치 점쟁이에게 복채를 준비하듯 사무엘에게 드릴 예물을 찾는 것을 보면 신앙의 일에 대해 미신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에서는 그런 사울의 약점이랄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2]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쉘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3]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뽕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4]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5]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 네게는 여호와와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8]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을 기다리라 [9]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

섰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0]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1]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12] 그곳의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무엘은 믿음 없는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된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미리 세 가지 일이 사울에게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첫째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묘지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나 아버지의 안부를 듣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벵엘로 올라가는 길에 떡과 포도주를 가진 세 사람을 만나 떡 두 덩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다음에는 세 사람,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단계마다 사울은 정신이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욕심 없는 순수 청년 사울에게 확신을 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자세히 예언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록된 다른 이야기는 성경에서 별로 없을 것입니다. 분량이나 그 상세함으로만 보면 오히려 다윗의 이야기보다

사울의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감입니다. 그에 가장 좋은 확신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습니다(삼상 10장).

[6] 네게는 여호와와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9]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이 선지자들과 예언을 한 일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는지 비웃는 속담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10:11,12). 물론 이 예언은 특별한 예언도 아니고 영구적인 능력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즉 신약 식으로 하면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처음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폐해는 구원파입니다. 70년대 한국교회에 구원파가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는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 조금씩 갈등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때와 그 시점이 들어맞는 시기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많은 경우, 건강이나 물질의 복 받기 위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자들이 “구원이 무엇이나, 나는 구원 받았느냐”에 대해 젊은이들, 대학생들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그 욕구에 맞추어 구원파가 입점했습니다. 그래서 마른 들판에 불길 번지듯 교회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구원파는 한 종파가 아니고 기독교복음침례회와 대한예수교침례회 등의 기존 교단을 배경으로 혹은 독립교단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표자들로서 박옥수, 권신찬, 이요한(이복철) 등이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계파가 달라집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남미 등 해외에서도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들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최근 소식입니다.

과거 70년대 후반에 이들이 크게 나타날 때 우리나라의 굵직한 선교단체와 대학 동아리들을 통해 젊은이들을 수없이 미혹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교회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수적이고 경건하고 전도에도 열심입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해 성경적인 명확한 답은 주지 못하고 부흥과 헌금만 강요하는 일반 교회에 학을 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교회에 들어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그들이 물으면 쉽게 답변할 수 있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구원의 확신의 교리에 대해 가르치고 다음 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청년 때 여름수련회를 하는데 한 여자 청년이, 마지막 날 밤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그때 구원의 확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꽤 신앙생활에 열심인 청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청년부 모든 봉사활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 문제에 대해 아무 대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신앙의 분위기에서 일반 교회들에서는 성도들이 구원에 확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속에서 신앙을 갖고 유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여러분, 간절히 구원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보고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떤 이적, 은사, 체험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아니 어떤 외적인 체험이 없어도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라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지금은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구원

의 확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언제까지 묻혀있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흥해 주변에만 맴돌고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이 저 멀리 있는데!

구원과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의 확신조차도 무지했다는 반증입니다. 그 이상의 신앙 문제인 성화, 고난 등의 문제에는 완전 깜깜하다는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허약할수록 이단이 강해집니다.

사울왕은 사람이 요구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내적 확신을 주기 위한 여러 환경, 특히 영적인 체험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습니까? 이적이 부족했습니까? 체험이 부족했습니까? 외적인 조건이 부족했습니까? 그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고 남았습니다.

사무엘서가 사울이 주인공이 아닌데도 사울의 왕위 확정과 소명에 대해 그렇게 많은 분량이 기록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우상숭배 하듯(사도행전 7:43) 다른 것에 집착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이, 이적이 아닙니다. 잠시 효과는 줄 수 있어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사울에게도 있었지만 결국 사울에게 결정적인 가치를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울에게 없는 한 가지입니다. 사울이 하지 않은 다만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1~10,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꾀술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

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
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다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제사장 나라와 왕으로 세우셨음을 믿고, 나를 완성시키
고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지켜나갔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
서입니다. 이제 그 길을 바로 여러분이 한 걸음 나가야 할
일입니다.

왕의 修業 08. "사울②-사울의 구원"

사무엘상 11:1~15,

[1] 앎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2] 앎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3]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4]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5]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6]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7] 한 겨리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8] 사울이 베섹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이더라 [9] 우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떠올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10]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11]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삼 대에 나누고 새
 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돌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12]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
 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3]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
 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
 푸셨음이니라 [14]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
 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 모든 백성이 길
 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
 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
 의 소명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처음 역사에
 등장할 때, 그의 여러 조건적인 면, 특히 인간적인 조건에는
 왕으로서 거의 부족함이 없는 면을 보았습니다. 특히 그에게
 부족한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확신을 주고자 사무엘은 그
 가 경험할 일들을 예언하셨고 심지어 선지자들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예언을 하는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사울의 소명에 대한 기록이 오히려
 사무엘서의 주인공이랄 수 있는 다윗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려고 성경에 등장되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사울은 그가 받고 경험한 뛰어난 조건들, 그리고 하님

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만족시킬 조건을 가진 자를 좋아하고 기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니다. 사울에게는 한 가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개인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순종입니다.

그는 왕정 초기 1,2년 동안에는 거의 제대로 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안지나 그는 왕으로서 필수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에 목표를 둡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를 시기하는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서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다윗에 대한 열등감도 한 이유가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사울은 다윗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 범죄들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부음을 했던 것입니다. 식용유로 머리털을 튀긴 것이 아니고 왕으로 임명한다는 예식입니다.

사무엘상 15:26,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 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와 말씀의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즉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따라 행한 것이 범죄였고, 불순종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왕이 되고 3년 뒤에, 사울이 정상적으로 왕 노릇을 한 시기가 지나갈 즈음에 다윗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의 범죄는 지극히 사울 개인적이지 다윗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다시 나올 말이지만,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대감은 사울의 죄로 말미암은 영혼의 억압감이 다윗에게 투사된 것입니다.

사울이 비록 그 모든 좋은 조건과 은사를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사울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즉 사람은 아무리 좋고 놀라운 조건과 영적인 은사, 은혜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의 왕정 초기에 속하는 시기에 암몬왕 나하스의 위협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울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또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건이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dried up)란 지명의 뜻은 ‘길르앗의 메마른 땅’입니다. 아마도 요단강 주변의 습지가 있는 주변 땅에 비해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마른 땅에 마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의 이름 자체가 우리 영혼의 메마름을 상징합니다.

이때 길르앗 지방과 가까운 위치에 있던 암몬족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암몬족은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부끄러운 후손입니다(창세기 19:38).

암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요 세상 정욕을 상징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왕이 나하스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뱀’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몬에게 마을 사람들이 항복하고 요구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암몬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잔인한 나하스는 마을 사람들의 한쪽 눈을 빼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 모두 다 죽이고 요단강 서편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서 승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일은 ‘시험’입니다.

이 사건은 길르앗 야베스 마을 사람들과 사울의 입장에서 동시에 바라보아야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은 아무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얻고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름 받은 소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럴 수도 있고, 얼마 후에 이런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관점에서 성도들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즉 공동체 교회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영적인 교훈을 바닥에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교회에 알렸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도움은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야 합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육신적 사역을 하는 자들은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목회자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영적 도움을 위하여 기름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의 영적인 도움과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2. 기브아에서 사울이 소로 밭 갈고 있다가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소를 잡아 각을 떠서 전 이스라엘 지파에 보냅니다. 경고와 함께 전군동원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행해야 하는 때를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 때가 아무리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합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암몬의 공격을 받게 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었고(삼상 11:6), 사울이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하던 소 두 마리를 토막 내어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전쟁 동원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삼상 11:6~8).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타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의 지파와의 관계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사사기 강해에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빛으로야 만 사사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과거 사사시대에 사사기 19장에 어느 레위인의 첩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자 그 시체를 토막내어서 전 지파에 보내고 전 지파들이 소집되었을 때 소집령에 불응한 유일한 지역 사람입니다.

레위인의 개인 행실이나 거국적 처사도 옳지 못했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도 성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왕이 없던 시절 사람들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던 사사시대의 가장 추악한 역사적 과오로 남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대대로 오랫동안 지역감정처럼 다른 지파들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 소속인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그의 외적 기준은 만족했지만 그에 대해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언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속담을 지어 사울을 무시하는 말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12절에, 사울의 통치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사기에서 전 지파들이 징계하기로 한 마을이 바로 사울의 고향이 되는 기브아입니다(삿 19:14, 20:19). 특히 사울이 밭 갈던 장소 이름이 기브아라고 일부러 기록한 것을 유의하십시오(삼상 11:4).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만 이 공동체 작전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21:8~12,

[8]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9]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10] 회중이 큰 용사 일만 이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11]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12]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사백 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 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마을을 다시 치고 그 마을 남자들은 대부분 죽이고 처녀들만 잡아서 겨우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혼인해서 후손을 이으라고 줍니다.

이 사건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거의 무법하고 즉흥적이

고 비도덕적으로 일을 처리한 사사기의 대표적인 역사적 과오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비록 타의로 인해 그렇게 되었지만 서로 혈연이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 의해 허수아비 왕이 되었을 때에도 길르앗 야베스 지역과 가까운 마하나임에서 7년 동안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왕을 도울 수 있는 지역으로 그곳을 택한 것입니다. 마하나임은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기브아 출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고 기브아와 역사적, 혈연적으로 가까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게 되어 사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사울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만듭니다. 과거 사사시대에 레위인이 자신의 고향을 칠 때 죽은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 보낸 것처럼 자신의 소 두 마리를 죽여 전 지파에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비슷함 속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보낸 것은 사람의 시체가 아니고 자신의 소입니다. 그리고 경고의 내용도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7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고 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결과는 “여호와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 지라”(7절)

이것으로 보아 여호수아와 기드온 같은 사사 시대 이후, 진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최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사울은 승리합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한 마을을 구원할 뿐 아니라 더불어 전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도 있는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들 뜻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에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집행되는 최초의 왕정다운 왕정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해묵은 지역감정을 거의 완전히 해소시킵니다. 비로소 하나 된 공동체의 감격과 기쁨을 승리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유일하면서 가장 훌륭한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사울은 뜻밖의 큰 유익을 훗날 얻게 됩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 자신의 치욕스러운 죽음에서 겨우나마 구원받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아들들이 전쟁에 패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사울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들의 시체들이 벤산 성벽에 매달리는 치욕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시체가 공중에 달리는 일은 저주를 당하는 일입니다.

그 치욕 속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가만히 있을 때 그 시체를 몰래 거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울이 자신들에게 행한 구원을 잊지 않고 보은을 했던 것입니다. 32년 전 암몬의 군사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은혜를 잊지 않았 습니다.

이 일에 대해 다윗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사무엘하 2:4~7,

[4]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5]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이렇게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건 뒤에는 매우 복잡한 역사적, 영적 배경들이 복선으로 깔려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의 오랜 원한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나라의 공동체 회복을 했을 뿐 아니라 사울 자신은 자신의 치욕을 구원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이 많은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살을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의 불순종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사울이 보여주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1.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경고하시되 말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순종치 아니하는 분이 됩니다.

히브리서 4: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2.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을 7년 동안 대적한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있습니다(사무엘하 2:8~10). ‘이쉬’가 사람이란

뜻이고 ‘보셋’은 부끄러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10~15,

[1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1]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베드로전서 2:6,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사울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최고의 왕위권자였으나 그가 갖지 않은 문제, 즉 불순종에 대한 문제로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영적 확신, 구원의 확신을 지금까지 너무 은사나 영적 체험 같은 외적 현상에 국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영적 폐단인 구원파를 예로 들면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빈곤한 영적 기갈의 틈을 타고 이단이 득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외적 표징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 은사를 많이 갖고 경험했다 해도 지나간 경험과 은혜는 단지 경험일 뿐 현재의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면적 확신만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두다 사무엘이요 사울이요 다윗입니다. 여러분의 각자 신앙 경험에서 이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이, 그들의 신앙체험들이 영적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할 것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성경말씀을 놓고 자신을 겸허히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자신이 유일하게 잘한 업적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얻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사울과 함께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왕권은 다윗과 함께 가야 합니다. 다윗과 함께 그 나라에 입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울과 비슷합니다. 과거 7,80년대 부흥을 체험하면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좋아 보이는 조건들, 외형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 힘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물질주의적 교회 성장과 부흥이라는, 사울이 빠져나오지 못했던 달콤한 왕권의 마약에 취해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나라는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지금의 교회 성장주의에 만족하면, 그것을 바라고 목회하고, 그런 교회의 교인이 되어 그 '영광'에 참여한 것을 교양미로, 지성미라고 착각한다면 한국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은 상급 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도 무시합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구원과 삶의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해 달라고 외친 것처럼 하나님께만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용감하게 자신의 소명과 왕직을 수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 왕으로 부름 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세상의 도전과 죄악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참고:

므비보셋(Mephibosheth) 뜻: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
본래는 므립바알(바알의 영웅)이라고 불렀다(대상 8:34).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 그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 원래의 요나단의 재산을 다 주었다. 나중에 암살롬의 반역 행동에 관련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그의 진실함이 인정되어 여전히 다윗의 후대를 받았다(삼하 4:4, 9:6 16:1~4, 19:24~30).

이스보셋(Ishbosheth) 뜻: 부끄러운 사람. 사울의 넷째 아들.

부친 사울왕이 죽은 후에 7년 동안 이스라엘 왕위를 다윗과 겨루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5년 후에 사울왕에게 충성하던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옹립하고 나섰다(삼하 2:8~10). 아브넬도 이스보셋을 떠나 죽은 후 이스보셋은 배반한 레갑과 바아나에게 살해당했다(삼하 4:1).

왕의 修業 09. “사무엘④-마지막 재판”

사무엘상 12:1~25,

[1]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2]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뉘 소를 취하였느냐 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뉘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4]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뉘 손에서 아무 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5]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 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6]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7]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8]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9]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

더니 그들이 치매 [10]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므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11]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12]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
 하스의 너희를 치러 음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
 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3] 이제 너
 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
 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4]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
 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
 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
 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니라마는 [15] 너희가 만일 여
 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
 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
 실 것이라 [16]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
 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17] 오늘은 밀 베
 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
 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리와 비
 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
 하니라 [19]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
 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20]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

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큰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24]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5]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설교라고 흔히 말해지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사사직이 끝나고 새로운 왕정의 시대, 초대 왕 사울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전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1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는 ‘그리고’(ve)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즉 12장 1절은 앞 장인 11장의 연속적인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11장 마지막에서는 암몬족과의 승리 후에 길갈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14~15,

[14]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길갈에서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사울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공인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그들의 첫 번째 왕인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관점의 차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관점은 인간 왕을 초대 왕으로 보았을 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받았고, 출애굽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 사울로 시작하는 초기 시대에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새롭게 하는 근간은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하는 의식은 사울을 제비뽑았던 미스바(삼상 10:17)가 아니고 길갈에서 이루어집니다. 길갈은 어디

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4:19,

정월 십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 치매

여호수아 4:20,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호수아 5:9,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한 길갈은 사사기 초기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곳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고 언약을 세우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했습니다.

사사기 2:1,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곳에서 사무엘은 정기적으로 중요한 사사의 직분을 행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삼상 7:16).

흔히 사무엘상 12장이 ‘사울의 왕권을 확립시키고 떠나는 사울의 고별설교’라고 말을 하지만, 미스 코리아가 손을 흔들고 무대를 한 바퀴 돌고 다음 미스 코리아 뺨에 키스하고 마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고별 설교라기보다 ‘고발장’이요 ‘구약의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마지막 재판’입니다.

본문이 하나의 재판이라는 증거로 재판정에서나 쓸 단어들 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 3절,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여기에서 ‘증거하다’(yanu, to testify)는 법정적(法庭的) 용어로서 증인이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증언 혹은 답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출 23:2).

이 장면에서는 사무엘이 먼저 자신을 피고인으로 세우고 백성들을 기소자로 세워서 사무엘 자신의 죄를 아는 대로 말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2. 7절,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담론하리라’(ishapeta)는 본래 ‘재판하다’, ‘판단하다’, ‘국문(심문)하다’의 의미입니다(신 17:9; 시 67:4; 겔 11:10,11).

* 사사기의 제목은 ‘재판관들’을 의미하는 shopenim 입니다.

사무엘은 3, 5절에서는 자신이 피고(被告)의 위치에 섰었으나, 이제는 백성들을 피고의 위치에 올려놓고, 자신은 재판관의 위치에 서서 그들을 심문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릇된 동기(8:7)에서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정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2장의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누가 죄인인가?(1~5절)

1~5절까지, 사무엘은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재판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피고의 위치에 놓고 백성들이 판단하게 합니다. 그는 뇌물을 받거나 권력 남용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묻고 백성들로부터 그런 일이 없었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백성들은 기소자(起訴者, 즉 고발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엄숙한 증인 앞에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혀 책할 것이 없었음을 증언했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처음 사무엘에게 불만을 품고 왕을 요구(삼상 8장)한 것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명은 사무엘이 뒤끝이 남아있고 또 억울해서 자신이 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과 그 죄를

용서받을 필요에 대해 사무엘이 말하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웁니다. 사무엘이 기소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피고가 됩니다. 이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마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의 의로움의 역사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는 자신들의 국가를 신격화시키기 위해 신화를 가집니다. 개국 조상이 있고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구속사라고도 합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신 입장에서 그들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잘난 것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2.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6~12절)

6~12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요약하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는지 말합니다.

사무엘상 12:6,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답론 즉 재판을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중에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국 역사는 사울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점이 사무엘이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역사를 일으킨 역사의 주인도 모세가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신 이는 여호와”(삼상 12:6)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자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상하지요. 모세, 기드온, 다윗, 엘리야 같은 영웅들을.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의 스타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라고 자세히 가르쳐 주고 그 다음날 다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

제나 그 속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झे고’(잘 이해하세요) 자격이 있고 조건 좀 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았습
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필요
도 없습니다. 절(寺) 찾아 가세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불교처럼 치성 드리고, 불전하고, 기
도 많이 하면 구원 받으니까? 그것은 우상 신앙입니다.

왜 여전히 그 사고방식과 믿음 습관에서 못 빠져나옵니
까? 이것이 지금의 한국 교회의 현 수준입니다. 인간을 자랑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직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어 놓고 싶은 것이 있고,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깡그리 하나님의 손에 파괴되어 기근에 애굽
갔다 온 아브라함처럼, 압복강가의 야곱처럼, 불붙는 떨기나
무 앞의 모세처럼 불에 그슬린 나무토막 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나는 죽고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
습니다.

스가랴 3:2,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Is not this man a burning stick snatched from the
fire?

(이 장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여
사단의 대적 즉 참소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구

원자가 되어 변호하는 모습입니다.)

영웅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고 그들의 리더쉽과 능력을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원리입니다. 그것은 세상 방식이요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것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울의 생애입니다. 부끄럽고 겨우 얻은 구원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에 대한 기록들은 사람들의 대단한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그슬린 나무 막대기 같은 인간들을 사용하신 절대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한 나약한 사람들의 행적입니다. 왜 자꾸 막대기에 시선을 집중합니까? 그 막대기를 변화시켜 왕의 홀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가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사무엘이 진짜 열 받았습시다. 아마 고령에 혈액이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 심정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살펴야 합니다.

3. 사람은 죄인입니다(13~19절).

그들이 이방의 침략에 대비해 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진정한 이유는 사무엘이 나이 든 것도 그 아들 사사들이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세력을 두려워했고 그들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러나 미련한 인간들은 보이는 지도자를 요구했고, 세상 이방처럼 자신들의 국가가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법을 찾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지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무엘상 12:13~15,

[13]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4]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니라마는 [15]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과 그 백성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저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범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겠다는 것이 범죄입니다.

왕을 요구한 것이 비록 잘못된 요구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마치 시험 중에 ‘피할 길’을 통해 겨우 그 시험을 통과하기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를 계속 갖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왕을 주시려 했습니다(신명기 17:14~20).

그 약속이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 행할 때에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들의 자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모든 교회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나라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28:1,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9:13~15,

[13]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4]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러므로 우리들의 구원과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능력이나 자격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통치하시는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아담 이후로 지은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여기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명령을 듣지 않는 죄”가 세상 도처에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만 높고 자기주장만 강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매력적인 컨설팅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이 성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로 사무엘은 건기 계절인 밀 베는 때에 있을 수 없는 “우뢰와 비”를 내리게 하여(18절) 그 진노의 현실성을 보이게 합니다.

우뢰와 비를 그들이 보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간구합니다. 잠깐동안이지만 사울이라는 멋진 인간 왕에게

정신이 팔리고 그들이 세울 대단한 왕국에 대한 환상이 허물어집니다.

그들을 단숨에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이방민족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임을 알았습니다.

4.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십니다(20~25절).

사무엘의 재판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증거로 하늘의 이적을 보고 들으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은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은 바로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데 있습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진실히 섬기라”고 합니다.

[20]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인간의 능력과 조건을 바라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종과 섬김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과 섬김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신자들의 응답입니다.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21절) 즉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24]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앞부분에서 사무엘이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히 말할 때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비시켜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코 이스라엘의 선한 행위나 그들의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요, 우리가 전통으로 갖고 있는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같은 기독교라도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 사람의 행위나 조건을 은근히 강조하는 교단이나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능력을 강조하고 추구하는 신앙은 ‘불에서 겨우 얻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든 율법주의요 오늘날 교회에는 사람을 자랑하거나 인간의 의로움을 높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20~28,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얼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 [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사무엘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
라고 했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구원을 행하시고 온전히
이루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
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구냐가 우리의 구원을 있게 하지 않습니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의 믿음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으로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지도자와 함께 백성이 공동 운명체로 같이 멸망할 것을 경
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상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의 세상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었음을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사무엘의 고별설교라고 불리는 사무엘상 12장의 본문은 사무엘의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재판입니다. 그러나 그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구원이나 멸망이냐는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실패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조차도 100% 순종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오신 ‘왕중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려고 다윗이나 다른 이스라엘 왕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믿고 그 나라의 백성 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더 굳건히 세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믿는 신자 개인 개인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인 신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에서 온전히 모습을 이루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심판받는 끝날에 하나님나라가 완전히 세상을 통치할 때 참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신자들과 교회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야고보 4:12,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사무엘상 12장의 사무엘의 고별설교라고도 불리는 사무엘의 마지막 재판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정확한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지금 사무엘의 재판을 받는 장면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말기에 들어와서 고난과 순교의 피를 흘리다가 대한제국 시대(구한말)에 서양문물의 도입과 함께 민간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를 성경적으로 비유하자면 출애굽에 속합니다. 이 비

유는 그냥 비유이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일대일로 대입되는 진리는 아닙니다. 이 당시에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했고 매우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에도 불구하고 평양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 힘이 긴 일제 강점기 동안 박해와 신사참배의 위협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가 끝나고 얼마 안 되어 6·25전쟁이 일어나 교인들이 대다수 남으로 이동하고 고단하고 힘든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교회와 기독교 복음에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 후 70년대와 80년대 초까지 엄청난 교회 성장과 양적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 성장이 오히려 한국 교회를 갉아먹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기복신앙과 은사위주 신앙체험이 신앙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일반적 성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잘 된 교회도 있고 더 못 된 교회도 있지만 제 경험상 평균적인 교회들의 성향을 말씀드립니다.

보수주적인 교회들에서는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죄의식을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죄송하게 만듭니다. 주일을 못 지켜서, 예배시간에 늦어서, 기도 많이 못해서, 성경 많이 못 읽어서 죄송하게 만듭니다.

목사가 성경적인 설교로 다그치고 꾸짖어서 따라오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꾸짖는데 반박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어느 극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 구약의 월삭예배(매월 첫 날에 드리는 예배)까지 드린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꽤 보수적인 것 같고(성경을 지키니까) 교인들을 끌어들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선전되어서 오래 전에는 진보적인 교회에도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 제 경험으로는 그런 교회 신자들일수록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늘 죄와 율법에 절어 삽니다. 신자들이 말은 잘 듣고 목사한테는 편합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 쪽의 교회들도 이런 율법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왜요? 목회하기 좋거든요.

아마 성경에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보수교회들은 할례까지 하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래 잡는데 하면서.

지방이나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교회에서 이런 목회는 아직은 통합니다. 그러나 요즘 신도시에서 이렇게 하면 자연도

때 됩니다. 새신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기복주의나 은사위주 교회들은 이제 많이 쇠퇴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한국교회 대표적 이적 현상은 알파코스 교회와 관련된 ‘금이빨사역’이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고향력, 중산층 이상의 신자들을 상대로 하는 서울 강남 중심의 대형교회들이 성경공부, 제자훈련, 신앙세미나 등을 중심으로 물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개 그 교회들의 목회자들은 설교에 있어서 특별한 카리스마들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이유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한 마디로, 배가 부르니 찾지 않는다는 원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유주의와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의해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다원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영웅 스타 목사를 쫓아다니면서 사울 같은 왕을 요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례 없이 한국교회는 강단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좌초되고, 앞장서야 할 대형, 대표적 교회와 그 목회자들

이 수치스러운 일로 연루되는 일이 사회화되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암몬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한창 의기양양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엄청난 침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길갈에서 사무엘의 마지막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지금의 한국교회와 비슷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계속 사울왕을 구하듯이 세상을 좇고 성공만을 좇는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고 한다면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스라엘처럼 회개할까요?

자신들의 죄악을 죄악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의 修業 10. “사울과 요나단①-7일 전쟁”

사무엘상 13:1~23,

[1]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십 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이년에 [2] 이스라엘 사람 삼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이천은 자기와 함께 므마스 와 뽀엘 산에 있게 하고 일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4]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히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좇으니라 [5]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삼만 이요 마병이 육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뽀아웬 동편 므마스에 진 치매 [6]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8]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11]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므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
 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
 이어늘 [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
 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
 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15]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
 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을 계수하니 육백 명 가량이라 [16] 사울과 그 아
 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므마스에 진 쳤더니 [17] 노략꾼들이 삼
 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18] 한 대는 벵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 길로 향하였더라 [19] 때에 이스라엘 온 땅
 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
 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20]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삼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21] 곧 그들
 이 괭이나 삼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22]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23]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
 서 므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1절이 우리말 성경에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십 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 년에’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본래 ‘일 년 된 아들’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나이를 밝히는 숫자가 없습니다.

다른 한글번역판은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마흔 두 해였다. (표준새번역)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LXX)의 몇 사본에는 아예 1절 전체가 없습니다.

70인역 이후의 어떤 사본들(오리겐의 6중경)에는 ‘서른 살’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개역(개정판 포함)에는 40세로 되어 있는데 이는 또 다른 사본과 번역본을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번역은 영문 KJV으로 보수주의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Saul reigned one year; and when he had reigned two years over Israel,

(사울이 일 년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가 이 년을 다스렸을 때에)

그렇다면 왜 사무엘상 13장 첫 부분은 ‘일 년 된 아들 사울’ 즉 사울이 ‘일 년을 다스리고 이 년째로 넘어가는 시점’

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엇이든 처음 하는 때가 가장 서툴지만 또한 가장 열정적으로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신혼 시절을 추억해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인간적으로 제일 힘이 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힘들고, 잘 모르고, 실수 많았던 때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의 이 시기에 13장은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사울에게 시험의 때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대대적 침략에 자신이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전혀 모르는 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잘 알려진 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의 빛으로 사사기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일부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같은 역사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기록하느냐에 따라 그 역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울의 첫 번째 전투, 암몬을 대항하기 위해 전 이스라엘을 소집했을 때 모인 이스라엘 전군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330,000명입니다(삼상 11:8). 이들은 무기는 변변치 않았겠지만 이 숫자로 충분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

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전투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준비한 상비군의 숫자는 몇입니까? 3,000명입니다(삼상 13:2). 이것을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각각 2천과 1천으로 나누어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문관 같은 요나단이 멋대로 블레셋 수비대를 건드려서 마치 벌집을 건드린 효과를 냈습니다.

그때까지 몇 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의 강력한 이방민족들과 지중해 해안 지역에 있는 블레셋의 세력 사이에 끼어서 두 강대 세력들의 완충역할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일부분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국경내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에서 영국군 요새들이 스코틀랜드 안에 설치되어져 있는 장면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0:5,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a Philistine outpost, the garrison of the Philistines)이 있느니라

게다가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우는데 있어서도 블레셋은 방관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게도 암몬은 물리쳐야 할 적입니다. 블레셋의 전략은 아마도 이스라엘로 요단 동편의 또 다른 적들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이

제이(적을 적으로 제압한다)라는 방식입니다.

훗날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강해졌을 때 오히려 블레셋을 견제하기 위해 먼저 암몬과 화친하는 정책을 시도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거절당하고 그 기회에 전쟁을 해서 암몬을 이기게 될 뿐 아니라 곧 이어 블레셋까지 항복받게 됩니다(대상 19~20장).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사울의 시대에 암몬의 패배로 이스라엘 동쪽이 당분간 편안해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사울왕의 안정적인 정치 아래 블레셋으로부터 겨우 독립을 하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사무엘상 13장의 배경입니다. 바로 이때 요나단의 첫 번째 블레셋 요새 습격사건이 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스라엘의 대항입니다. 블레셋으로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놔두고 볼 수 없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한동안 잠잠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나라는 마침내 사활을 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대대적 침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병거가 30,000, 마병이 6,000, 그리고 보병은 측정불가입니다(삼상 13:5).

그런데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면 그들의 전술이 주로 평지에서 속도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력이 병거부대입니다. 병거는 평지의 제왕입니다. 블레셋이 위치하고 있는 해안지방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말들이 끌고 뒤에 2~3명의 병사를 태운 빠른 속력이 장기인 병거가 주력입니다.

물론 보병(백성)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하지만 보병들이 상비군이라기보다 전쟁을 위해 농민들을 급히 소집한 예비군적인 성격일 것입니다. 즉 블레셋의 주력은 3만대의 병거와 기병 6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인 해안 평지에 전투에 익숙한 병사들입니다.

이들의 군사력은 거의 천하무적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블레셋이 트로이 전쟁에도 참가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트로이 전쟁시에 아가멤논이 수많은 그리이스 연합군을 이끌고 트로이를 공격했다는 이야기는 고고학자들에 의해 역사적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울과 요나단의 병사들은 주로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이것은 평지 전투에 강한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을 피해 산악지대에 숨어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블레셋의 군대 중에 선봉군(노략군) 3개 부대가 먼저 이스라엘로 습격해 들어옵니다. 3개 부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에 이스라엘 군사는 얼마나 모였습니까?

처음에는 기존의 상비군 3천명 외에 많이 모였던 모양입니다(13:4). 그러나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게릴라 유격전을 하려고 숨은 것이 아니라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결국 남은 숫자는? 600명입니다(13:15).

기드온이 미디안에 대항하기 위해 처음 군사를 모집했을 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입니다(삿 7:3). 그 후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10,000명에서 다시 300명을 추려냈습니다.

사울의 6백은 기드온의 3백의 몇 배입니까? 두 배입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숫자가 6백 명이니 기드온 때 보다 두 배는 강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제사를 지낸 것이 사울의 죄라는 것과 혼자 블레셋의 초소를 습격하는 요나단을 이해 못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제 죽었구나, 이래저래 기왕 죽을 거 싸우고 죽자’는 절망의 상태였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들에게 무기가 있었습니까? 무기가 없었다는 기록이 사무엘상에 매우 ‘의도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철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전체 군사 중에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에게만 있었다고 합니다(삼상 13:22).

심지어 금속제 농기구를 수리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통제 하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철기를 효과적으로 다룰만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이미 반식민지 화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3백 명은 무슨 무기로 싸웠습니까? 사실 무기가 아닙니다. 세 가지 도구가 있었죠? 나팔, 향아리, 횃불입니다(삿 7:16).

‘그래도 철제 무기 두 자루가 있으니 아무 무기 없는 기드온 3백 명 보다는 낫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가진 것과 능력, 그리고 믿음의 힘이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다고 잘못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목사보다는 박사 목사가 더 잘나 보이고, 변두리 상가의 지하실 쪽방 교회보다는 강남의 으리번쩍 교회가 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잘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사무엘입니다. 이미 12장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이 백성은 반복학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눈들이 자연히 사무엘만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해 주시겠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말 한 모양입니다. 오늘이 카드 막는 날인데 7일을 기다리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7일째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7일을 기다리다가 돌려막기가 아니라 다 죽는 추도식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칠 일을 기다리라고 한 것

(8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군요.

사무엘상 10:8,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
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을 기다리라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소명을 주기 위해 여
러 증거가 있을 것을 예언할 때에 7일 후에 만나자고 약속
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사울에게 밀쳐야 본
전인 경우입니다. 만약 사무엘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
도 그는 손해 볼 것이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2년이 지나 어엿하게 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강한 나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이때 블레셋의 공격에
병사들이 대부분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고 했습니다.

이 상황과는 정반대의 일이 20세기에 이스라엘에 일어났
습니다. 1967년 제 3차 중동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과 이집트와의 전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300만이
고 이집트는 1억이 넘는 대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불과 일주일 만에 아랍을 항복시키
고 승리했습니다. 당시의 유명한 일화들이 수없이 세상에서
이야기 되어졌고 설교에도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하숙집에 이스라엘 유학생과 이집트 유학생이 하숙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자 같은 날 둘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스라엘 청년은 조국에 가서 전쟁에 가담하였고, 이집트 학생은 끌려 갈까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랍군의 곡사포가 이스라엘의 비행기 한 대를 쏘서 추락시켰습니다. 추락된 비행기 안에는 놀랍게도 조종사가 만삭의 임신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인과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을 사람들은 7일 전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7일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일곱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자에게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전쟁입니다.

7과 관련된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노아가 방주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7일을 두 번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창 8:10) 또 칠 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으매

(창 8:12) 또 칠 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또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 7일을 일하고

또 7년을 라반을 위해 더 일하며 7년을 수일 같이 여긴 적이 있습니다.

(창 29: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년 동안 라반을 봉사 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칠년을 수일 같이 여겼더라

(창 29:27)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칠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창 29:28)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 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예로는 사무엘상 11장에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의 위협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7일을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교만한 암몬의 나하스는 이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사울의 군대에 패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11:3,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이 7일이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다른 지파사람들이 사울왕이 자신들을 도와줄지, 아니면 도와준다고 해도 그럴 능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소망이었고, 그것이 응답받았습니다.

또 다시 사울에게 7일의 전쟁이 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이 7일을 기다리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무언가 해보겠다고 판단하고 제사장인 사무엘 없이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 때에는 3만 2천명의 숫자를 강제로 줄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때에는 처음 모였을 때 얼마였는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그 숫자가 줄었습니다.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강제로 줄인다면 뭔가 대응이 있겠거니 하고 기대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쪽에 붙는 친블파도 생겼습니다(삼상 14:21). 그렇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숫자가 계속 줄 때마다 커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교회로 치면 분열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시험에 드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이럴 때 한 단체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통해 위기를 승리로 바꾸었다는 많은 위기극복 성공담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사울도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위급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이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과거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은 법궤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미신적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은 제사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미신적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사울이 제사라는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행위라는 겉모습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외적 조건과 능력을 우선시하려는 죄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렇게 제사라는 경건의 모양으로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뒤늦게 도착해서 사울을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변명을 보아 그는 전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자신의 대를 잇는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서도 회개하는 빛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삼상 13:11~15).

다시 사무엘이 사울에게 첫 번째로 7일을 기다리라고 한 이야기로 되돌아가 봅시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8,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을 기다리라

이 일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있었던 사무엘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 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7일을 기다리라는 일이 두 번 반복된 것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0장 이하에서는 7일 후에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산에서 예언을 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릴 정도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번째 7일을 기다리라는 사건을 통해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10장 8절에 의하면, 무엇을 사울이 기다려야 했습니까? “너의 행할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13장에 의하면, 사울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중에 15장에 나타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약속대로 ‘이레’를 기다리기는 했

지만 완전한 이레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한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마지막 고비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때로 한계까지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많은 적군 앞에서 6백 명이 아니라 3백 명까지 남길 수도 있습니다.

3백 명이 남았는데도 그 3백 명으로 너를 구원하겠다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는 완성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완성시키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의 사람들을 처음부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착각하는 큰 차이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 믿음이 썩 사람을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성하라 하고, 뭐 하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은 기준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로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신앙인격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성시켜서 불붙는 떨기나무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야곱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연단을 거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약한 사람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연단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후서 12:9,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회사들은 완성된, 준비된 사람을 찾습니다. 토익 만점을 찾고 실무능력자를 찾습니다. 교회도 세상을 따라가며 박사 목사를 찾고, 의사 장로, 변호사 안수집사, 최소 공무원 서리집사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13: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7일을 기다리는 전쟁'에 같이 참여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3,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
을지니

왕의 修業 11. "사울과 요나단②-두 개의 리더십"

사무엘상 14:1~52,

[1]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2]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육백 명 가량이며 [3]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와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였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4]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5]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6]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 병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8]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

이 되리라 하고 [11] 돌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
 이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
 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12]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
 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13] 요나단이 손발
 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
 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옆드러지매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14]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
 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이십 인 가량이라 [15]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
 꾀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
 라 [16]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17]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고하여 보라 하고 점고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
 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18]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 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19] 사울이 제사장
 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
 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20]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무를 치므로 크게 혼란하
 였더라 [21]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
 이 사망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22]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

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23]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 하시므로 전쟁이 뽀아웬을 지나니라 [24]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25]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26]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27]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28]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29]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30]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31] 그 날에 백성이 므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32]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33] 우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34] 또 가로되 너희는 백

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 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35]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36]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가로대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37]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38]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뉘게 있나 알아 보자 [39]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40]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41]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뿔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42]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뿔으려 하였더니 요나단이 뿔히니라 [43]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꼴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 밖에 없나이다 [44]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

나뵤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45]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 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 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46] 사울 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47]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 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48]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49] 사울의 아 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요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 이며 [50]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아 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51]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 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52]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있 는 자나 용맹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11장에서 야베스 길리앗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병사들을 모을 때 전 이스라엘에서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울이 왕으로서 권위와 지도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암몬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은 사울이 아니고 성령 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승리 후에 사울은 그 군대로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3천명의 상비군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냅니다. 즉 사울은 강대국인 블레셋과의 확전은 원하지 않았으며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확대시키고 맙니다.

군대에서 고문관이라 하면 요령이 없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왕따 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원래 6.25 전쟁 때 미군이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별로 파견한 장교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은 군대가 결성 된지 2년 밖에 안 된 아기라면 미군은 200년 된 경험 많은 군대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미국 장교가 한국군인들 사이에서 생활하면서 원리원칙대로 군사행동과 작전을 참견하니 한국 군인들에게는 때로 도움이 되었지만 상황에 따라 요령을 피울 수도 없는 어찌지도 못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군사작전을 원리원칙 대로 하는 것을 잘못한다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에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순수민족인데다가, 때로 끼리끼리 요령도 적당히 피워야 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어떤 일을 같이 해도 상식과 원칙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이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 습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미군 고문관 제도가 사라지고 나서도 같은 군부대 안에

귀찮고 골치 아픈 대상을 고문관이라고 부르는 일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 말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퍼져서 골치 아픈 나 홀로 원칙주의자를 비꼬기 위해 부르는 은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거꾸로 말하면, 어느 누구를 고문관이라고 부르는 일단의 사람들의 공동체적 죄악성을 말해줍니다.

과거 어느 TV 선전에서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사회 인생 종치는 ‘고문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 칼럼 중에 ‘충고를 잘하는 법’이라는 제목이었던 같습니다. 어느 회사 회식 자리에서 그 자리의 최고 상사가 마음 놓고 자기에게 조언을 하라고, 자신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원성을 많이 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마음 편히 하라는 상사의 말에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동료들의 무언의 지원 아래 그 상사의 잘못된 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바른 말한 사람은 지방발령이 났습니다. 이것이 고문관이란 말을 만들어 내는 한국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의 요나단은 말 그대로 고문관입니다. 요나단이란 사람은 말하자면 왕위 계승권 1순위의 왕자입니다. 그의 일생을 잘 아시잖아요. 그의 충성과 다윗과의 우정(나이가 20년 이상 차이가 날 텐데 평등한 친구관계는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비참한 최후는 유명합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장점이나 매력은 사울을 닮았겠지만 그의 영적인 세상,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사울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에 있어서는 원리원칙주의자였습니다.

사울의 왕정 초기부터 이 부자는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근본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부하 한 사람과 블레셋 초소를 습격합니다. 자신에게 딸린 부대가 있었지만 13장에서와 같이 부대를 이끌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모종의 사울과의 갈등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원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의 공격에 마땅히 나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은 힘이 없으니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한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더 이상 지켜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닥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의 3개 습격부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공황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미 휘하의 부대는 몇 백 명으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땅에 떨어진 사기를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에게 말하기도, 부대를 이끌고 나가

지도 앓고 자신과 다른 부하 하나만 데리고 블레셋 초소를 습격합니다.

믹마스 어귀의 어귀는 ‘입구’ 혹은 ‘들어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믹마스 어귀의 좌우로 보네스와 세네라는 두 개의 커다란 바위가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지형입니다.

이 골짜기로 인해서 남북으로 갈라진 마을들의 이름은 ‘믹마스’(북쪽)와 ‘게바’(남쪽)로서, 골짜기 아래에 도달한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게바 쪽에서 와서 골짜기 바닥으로 기어 내려갔다가 다시 반대편 골짜기 꼭대기로 기어올라 믹마스 쪽으로 블레셋 수비대들이 있는 계곡 위로 건너 올라갔습니다.

13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면서 군사와 무기에서 열세에 놓여있는 이스라엘과 반대로 유리한 블레셋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13장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요나단을 통해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3대로 나누어 쳐들어 온 노략군에 의해 주요 평지와 도시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점령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600명이 주둔한 지역에서 가까운 믹마스로 들어가는 입구 옆 높은 지역에 블레셋의 초소가 설치되어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소를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 두 명이 습격하여 성공하고 그 바람에 전체 블레셋군이 무너지는 내용이 14장입니다.

먼저 블레셋의 초소가 설치된 산꼭대기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위치해 있는 좌우로 요단강의 평야가 바라보이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이곳이 점령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병사들은 겁이 나서 골짜기에 굴속에 숨어 버리거나 개중에는 블레셋에 투항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약 6백 명의 병사만 남았습니다. 이 군대는 미그론 석류나무 부근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사울의 진중에는 법궤가 같이 있었고 함께 있는 제사장은 아히야였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손자입니다. 그가 에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위해 상용하던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이미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사무엘로부터 호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믿음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블레셋과 문제를 일으킬 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사건을 터뜨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4:6~7,

[6]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기드온 때에는 3백 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이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6백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600명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단 두 명입니다.

요나단은 자신들의 승리에 대한 표징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4:8~10,

[8]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진지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병기 든 자는 반대쪽 골짜기에서 블레셋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다 보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블레셋군이 자신들을 발견하고 건너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블레셋 쪽으로 올라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싸움에서나 위에서 아래를 향한 쪽이 유리합니다. 바위산의 지형에서 위에서 돌이나 바위를 굴리면 아래 있는 군사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군사들은 요나단에게 올라오라고 놉니다.

사무엘상 14:11~12,

[11] 돌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온다 하고 [12]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왜 블레셋의 보초병들은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올라오게 했습니까?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북한군 GOP에서 남북 두 군인들이 같이 어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치는 장기 대치상태가 아니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고스톱 치자고 요나단을 올라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블레셋이 뭔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도 투항병이 많다보니 (14:21) 요나단을 투항병이라고 착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 돌이 싸우러 오고 있다고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나단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4:14~15,

[14]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이십 인 가량이라 [15]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반일경 지단이라는 것은 황소 한 겨리 즉 두 마리가 하루의 절반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골짜기 위의 블레셋 초소가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명의 적군과 동시에 전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편 골짜기 위라고 해서 완전히 평평한 곳은 아니고 여기저기 암벽에 구멍들이 있고 그 속에 블레셋 보초들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반일경 정도의 넓은 지역에 몇 명씩 매복해 있는 블레셋군을 찾아 일일이 다니면서 죽인 것입니다.

그중 살아남은 블레셋병사가 도망가서 그들의 패배를 확대시켰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려고 거짓말로 보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군이 쳐들어 온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전초기지가 무너지자 평지의 블레셋군들이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본문에 보니 “떨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떨림’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으키신 떨림이었습니다.

떨다는 것은 무슨 현상입니까? 공포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절망한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보고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7,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
더라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 없는 모습의 가장 중요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계시록 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
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제 반대로 블레셋이 떨고 있습니다. 누가 이 현상을 만
들었습니까? 요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10장에서 사울이 성령을 체험하고 전혀 다른 사람
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0:6,

네게는 여호와와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신자라면 대개 이런 현상을 한 번 기대해봅니다. 영적인 체험과 신령한 은사 이적이 내게도 있었으면...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신자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의 길갈 선언과 제사로 모든 사울과 백성들이 새롭게 되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1:14,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나 사울은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변했습니까? 조금은 변했습니다. 사명감이 생겼고, 약간이나마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3장 이후에서 보이는 사울의 모든 삶의 모습은 새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울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즉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밑의 따르는 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따르는 자들도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요나단의 경우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불신의

모습을 알고 아버지에게 일부러 알리지 않고 행동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세계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살아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무기 든 자와만 단독적인 작전을 수행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생각을 무기 든 자에게 말했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신의 지도자의 믿음에 그도 같이 변화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참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화로 들었던 1967년 6월에 일어난 6일 혹은 7일간의 제3차 중동전쟁은 절대적 열세인 것처럼 보이던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파죽지세로 시나이반도까지 아랍 지역을 점령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참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중동전쟁

1948년 독립, 제1차 중동전쟁: 1948.6.5.~1949.1.7,

제2차 수에즈전쟁: 1956,

제3차 6일전쟁: 1967.6.5.~1967.6.10,

제4차 움키푸르전쟁: 1973.10.6.

후에 군사 전략가들이 그 비결을 찾아보고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모두 동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할 때 아랍군 지휘관들의 공격명령은 “돌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 전투 지휘관들은 “나를 따르

라!”였습니다. 상관이 용기 있게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따르지 않을 병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불가능할 것 같은 전쟁 혹은 전투를 보고 우리들은 사울의 군사들처럼 겁이 나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숨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요나단처럼 전투에 스스로 나서서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전쟁 영웅처럼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는 긍정주의, 성공주의에서 애용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정예병’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3,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인 요나단을 버리고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사울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운명을 같이한 효성스러운 아들이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는 아마 어떤 면에

서는 다윗보다 더 훌륭한 인간적인 면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우 인간적이고 정도 많고 정의감과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사울의 죄악 때문에 같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비참했으나 영예로운 죽음이었고 영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적용해서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건축하는데 목사가 교인들에게 작정 헌금 하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해야지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요나단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니 당신들도 집 팔고 대출받아서 헌금해라, 그러면 승리하고 더 큰 복을 받는다는 식이죠.

물론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분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대신 그런 분은 ‘받을 복’으로 신앙의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요나단 같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는 세상이 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울 같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아무 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양 착각하는 ‘허본좌 믿음’입니다.

영적인 카리스마는 외모, 인간적 매력, 인간관리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육신적인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영적 카리스마 리더쉽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신자들은 그 순종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육적인 카리스마를 가졌다면 요나단은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카리스마는 반드시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은사입니다.

그것은 훈련과 연단 속에서 경험되고 체득되어 집니다. 한번의 영적 체험이나 은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시간과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나라의 왕으로 수업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람들이 보기에 절대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 7일이란 하나님의 손을 통과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100살에 아들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이미 죽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무엇이 죽은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기능과 육신적인 의지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자가 죽도록 놔두십니다.

나사르가 언제 무덤에서 나왔습니까?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가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합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약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준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믿음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경도 부정하지 않고 실제로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높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와 생각에 제한받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9~10,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복음은, 오직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는 전율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까?

누가복음 18:27,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상황이 내 옛 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에 여러분이 진정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9,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왕의 修業 12. “사울과 요나단③-두 나라①”

사무엘상 14:16~52,

[16]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17]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고하여 보라 하고 점고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18]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 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19]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20]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무를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21]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22]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23]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24]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25]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26]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27]

요나단은 그 아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 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28]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29]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30]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31] 그 날에 백성이 므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32]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33] 우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34]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 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35]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36]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가로대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37]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

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지 아
 니하시는지라 [38]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뉘게 있나 알아 보자 [39]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
 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40]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41]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
 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뿔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42]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뿔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뿔히니라 [43]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
 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
 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
 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 밖에 없나이다 [44]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
 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45]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
 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
 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
 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46] 사울
 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47]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
 아간 후에 사망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

다 이기었고 [48]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49]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요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50]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벨의 아들이며 [51]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52]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있는 자나 용맹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성경을 순서대로 강해설교를 하다 보니 어떤 때는 제목을 정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번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설교에도 종류가 있는데 어떤 주제나 제목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가 있고, 저처럼 순서대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으니 여러분은 두 가지 다에서 좋은 점만 추려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제목이 ‘두 나라’인데 제목을 적고 보니 마치 우리나라 어떤 정당 이름을 비유한 듯해서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두 나라’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는 현실의 세상 ‘인간의 나라’를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출애굽과 사사들의 시대 그리고 이제 비로소 왕국을 통해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게 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 나라’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현실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보이는 나라의 대상으로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이 선택받았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까지 이 세상의 영적 대표가 되어 때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이방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여 그곳을 영토로 삼고 살아가던 시대에 주변의 강력한 이방민족들의 침략으로 오랜 세월동안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방민족들의 침략은 사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사기를 통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때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흉내 내면 더 잘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진입 후 사무엘 시대까지 약 4백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 처럼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삼상 8:5)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본뜻은 그 왕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나라처럼 안정된 삶을 갖기를 원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다윗 같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 그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이방을 흉내 내는 원리에 기초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즉 그의 불순종과 세속적인 왕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이 거꾸로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 같은 왕을 사용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나라의 기틀을 준

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나라는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즉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은 오직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는 전을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절을 인용하여 소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9~10,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 자리, 이 공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만드셨고, 수천 년의 역사의 이스라엘의 시간과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즉 교회도 보이는 나라입니다. ‘이 보이는 나라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남서쪽 해안 평야지대에 살던 전쟁민족인 블레셋에 침략을 당하여 싸울 의지를 상실하던 중 그 아들 요나단의 용맹하고 믿음 있는 행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 내륙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고 전략적 주요 지형에 그들의 진영과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단지 이들은 주 병력이 야전에 강한 병거와 기병이라 산악전에 강한 소수의 게릴라 같은 이스라엘 병사와 직접적으로 부딪치지 않고 잠시의 대치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대치지, 실제로는 싸우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영토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도망병들이 블레셋군에 투항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군사는 거의 다 도망가고 사울과 요나단에게 겨우 6백 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부하 단 둘이 습격을 해서 성공합니다. 세속적인 카리스마를 추구하는 사울과 달리 요나단의 영적인 카리스마에 의해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까지 일어나 블레셋 진영은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큰 떨림, 즉 ‘하나님의 떨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떨었고, 블레셋의 사기가 떨렸습니다.

블레셋 군사의 숫자와 무기의 우수함은 전투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다가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앞장서서 추격을 했습니다. 그 승전 소식을 보고 들은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까지 합세해 일대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발견한 사울 진영의 파수병이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사울은 누가 부대에서 빠져 나갔는지 숫자를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울의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군사들이 계속 빠져나가 도망병이 생기는 판인데 다시 점검한다고 누가 사라졌는지 쉽게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빠져 나간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 쉽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사들까지 동원되어 추격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날의 승리가 계속 이어져서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냈다면 훗날 블레셋에 의해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울이 추격전을 시작하면서 시간을 단축할 요량으로 모든 병사들이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즉 죽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런데 사울보다 앞서 가던 요나단은 사울의 금식 명령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요나단도 하루 종일 추격하다보니 당연

히 배가 고프고 싸울 기력도 없을 지경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추격하던 중 어느 숲으로 들어갔는데 나무에서 땅으로 꿀이 마치 흐르는 것처럼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허기진 병사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전투식량이었습니다.

꿀은 어떤 음식보다도 열량이 많고 피로회복을 위한 비타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먹기도 최고 간단한 음식입니다. 전투식량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요나단이 ‘나무 지팡이’ 끝으로 약간의 ‘꿀’을 찍어 맛을 보았을 때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극도로 지친 육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서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뒤를 따라오던 병사 하나가 사울의 금식명령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이 어리석은 아버지 사울왕의 명령에 의해 요나단이 죽을 뻔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어 금식이 해제가 되고 나서 군사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은 짐승을 잡아 너무 급하게 먹느라고 고기와 피를 같이 먹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3:17,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신명기 12:16,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여호와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은 심지어 수술할 때 필요한 수
혈까지 안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그
대로 지키는 것은 죄와 율법의 울무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밤새 블레셋을 추격할 것인지 하나님께 응답을 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이 없자 뭔가 잘못되
었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자신이 내린
금식명령을 누군가 어겼기 때문이라고 확대해석합니다.

사실 사울은 누가 금식을 어겼는지 짐작을 하거나 미리
정보를 들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범인을 밝히는 방법을 매우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것처럼
제비뽑기, 아마도 제사장의 에봇에 담겨있는 우림과 둠뭉으로
제비를 뽑았을 것입니다.

블레셋을 계속 공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것
에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가, 영똥하게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
고 사울의 금식명령을 어긴 자를 찾는 일에는 응답이 나타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두 번의 제비뽑기에서 연속적으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마침내 요나단 한 사람을 향해서 제비가 뽑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은 변명도 안 하고 죽겠다고 순종합니다. 이때의 요나단의 용기는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보다도 더 대단합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는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때는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나서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분명히 요나단은 잘못이 없습니다. 자신은 본대에서 너무 앞장 서 있었기 때문에 금식 명령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자체도 너무 비상식적이고 율법에서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울왕이 내키는 대로 급조한 명령입니다. 사람 목숨을 그것도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가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단지 왕이 한 말이라 그 권위를 위해 지켜져야 했기에 요나단은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백성들이 요나단의 사형을 말렸습니다. 그전까지 왕을 두려워해서 왕의 뜻대로 하라고 두 번이나 말한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용기를 내어 요나단을 변명해 주고 요나단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음을 증거 했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최후까지 공격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사이의 붙을 수 없는 간격이 생기고 맙

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의 리더십의 차이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나단을 죽일 뻔한 사울의 금식명령 사건 속에 숨어있는 두 세계,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 두 나라의 사이의 영적인 갈등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 가지 국면에서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다룹니다.)

- 사울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부족함,
- 요나단의 다윗을 위한 예비적 성격,
- 이 사건으로 ‘두 나라’를 깨닫게 해 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1.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 개인을 볼 때, 그의 리더십이 욕심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그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금식 명령은 어리석은 명령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요나단을 시기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자신의 왕권을 위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신의 아들에게조차 시기심을 느끼고 그를 적어도 깎아내리든가 아니면 죽이려는 목적을

매우 합법적이고 일련의 경건한 과정을 가진 듯 위장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영조임금은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뒤주에 가두어 굶겨 죽인 우리나라 역사도 있습니다.

사울이 훗날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는 시도를 한 것처럼 이때는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에 돌진해 공을 세운 용감한 행위가 사울의 시기를 일으켰습니다. 사울은 두려워서 전투를 피하려 했고 나무 아래에서 겨우 남은 6백 명과 휴식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일을 뒤바꾼 공을 세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블레셋군이 도망간다고 감시병이 보고를 했을 때 사울은 병사들을 세어보게 합니다. 그러나 겨우 6백 명 가운데서 장군 노릇을 하는 요나단이 없어졌다는 것을 사울이 처음부터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짐작을 확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날이 저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요나단이 그것을 듣지 못할 것도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은 블레셋군을 쫓아가서 완전한 승리

를 거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그 원인을 부하들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음식을 먹은 죄를 지었다는 데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39]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으로 보아 이미 요나단에게 어느 정도 혐의를 두고 있었습니니다. 아마 요나단이 꿀 먹은 일이 소문이 군중에 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윗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윗도 자신의 죄 때문에 그에 대한 혹독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물론 다윗과 사울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확실히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란 무엇인지, 그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 대한 지도자의 태도가 어떠한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1989년) 교육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목사님도 국내에서 잘 알려진 분이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새로 교회 건물로 이사했는데 새 건물이 당시 서울 중심에 있는 8층 건물에 20억 원이었습니다.

은행대출 이자가 한 달에 몇 백만 원이었습니다. 백 명 정도 되는 교회에 당연히 경제적 부담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교역자 전체 5명을 불러 놓고 하시는 말씀이 ‘당분간 사례지불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정이 그러니 혹시 사임할 사람은 사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교회 건물이 크다보니 야간에 근무하는 경비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직원이 부교역자 한 사람의 2배 이상의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결혼 한지 한 달이 조금 넘었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한지 두 달 켜였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 때 너무 힘들게 다녔습니다. 학교 다닌 자체가 기적이었죠. 지난 주 담임 목사님이 옛날 총신의 점심결식학생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합신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당시 합신은 소속 교회들이 후원을 해서 점심식사 때는 무료식권이 교내 식당 한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많이 이용했죠.

그래서 뭐, 결론을 짐작하시겠지만, 당시 부교역자들 중에 제일 늦게 들어간 저 혼자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에 대한 감정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분은 신앙과 인격에서 존경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외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어떤 지도자도 사람인 이상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이 교회 직원들을 다루는 일에서 실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되면 지도자로서 합격점은

아니죠. 당신은 강의를 하거나 원고료를 받아서 살 방법이 있는데 아무 방도도 없는 아랫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꺾는 일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당신들은 살고 나는 굶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쉽입니다. 아니면 그보다는 조금 못해도 “함께 죽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같이 나갔어야 했는데 못하는 거죠.

사울은 이미 13장에서 스스로 제사를 드린 사건으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 후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겠다는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2. 또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왕조를 시작할 다윗의 등장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예표(미리 보여주는 그림)가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과 함께 죽음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죽음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나단까지의 시대가 사라져야 다윗의 통치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죽음을 맛보아야 부활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단은 불의한 왕 사울에 대하여 의인을 상징합니다. 특

히 14장에 나타난 요나단의 이야기는 앞으로 나올 다윗의 등장을 미리 보여주는 예시 역할을 합니다.

14장의 블레셋과의 전쟁 때는 다윗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입니다. 요나단의 행적은 다윗의 등장 바로 앞에서 사울의 실패와 죄를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택하신 진정한 왕입니다. 그는 구약 시대에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사울이 거의 동시에 또 다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요나단 같은 의로운 사람이 다음 왕이 되지 못하고 왜 불의한 사울과 같이 죽어야 했습니까? 그가 바로 사울의 아들이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공동체 원리’에 속한 문제입니다. 이미 사울에게는 그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죄로 그 왕위가 보존되지 않을 것이라 사무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13~14,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어늘 [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
고

공동체의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 전체 공동체가 복이 될
수도 있고 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3: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지도자가 단순히 윤리적 책임이 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
님이 세우신 법도는 그 지도자의 결단과 정책과 행동이 그
가 책임진 전체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18:6~7,

[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
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7]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
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
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에는 화가 있도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
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후에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셨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고, 그 후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전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장 국가와 민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5~6,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이 백성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호세아 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민족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적 공동체 안에 속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스라엘)이든 본래의 공동체에 속하는 은혜를 얻습니다. 새롭게 그 나라가 재구성되었습니다.

로마서 11:16,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구원 방식이 바울의 ‘그리스도 안’이라는 개념에서 절정을 이룬다고 몇 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의롭게 되는 은혜에 다 같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로마서 11장, 12장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대표성으로 인해 전 인류가 죄인으로 출생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 엄청난 구원의 대표 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5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5)”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구원의 정점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修業 13. “사울과 요나단③-두 나라②”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이 사건을 볼 때,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은 무엇을 보고 알아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시사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신자는 안 보이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울에게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왕권으로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는 나라만을 만들려고 했고, 또 다른 보이는 나라, 블레셋이 보이는 힘과 무기로 쳐들어왔을 때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포기하려했습니다.

그는 그 전쟁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은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다른 부하 하나만 데리고 용감히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표징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10절). 그리고 그 표징을 얻자마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싸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한 걸음씩 다가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두 세계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경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압복강을 건너려 할 때였습니다.

창세기 32:2,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두 개의 진영)은 하늘과 땅을 구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그곳이 별다른 곳이 아니라 늘 옆에 있는 평범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발견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마하나임 지경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다른 차원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거룩하고 멋있는 곳이 아닙니다. 창피하고 모든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귀 같은 인간들 속에서, 죽일 듯이 노리고 있는

야곱의 형, 에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마하나임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33:10,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은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
오며

그것을 눈으로 발견하기 위해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입에 달콤한 꿀 같은 말씀을 먹고 뱃속에서 쓰라린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무 십자가 체험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지팡이 막대기로 꿀을 짚어 먹었습니다. 그 행동은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즉 그가 꿀 짚어먹은 막대기는 죽음을 가져다주는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요나단이 꿀을 먹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에게는 전투로 피로에 지친 육신에 필요한 완전식품인 꿀이 흡수되어 그의 시력이 제 기능을 회복했다는 말이지만 왜 하필 유독 ‘시력’입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요나단이 허기를 면할 정도로 꿀을 많이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막대기 끝으로 짚어먹을 정도면 한 숟가락 먹은 분량도 안 됩니다.

요나단은 처음에는 그 행위가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시고 그 죽음의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요나단은 처음에는 꿀처럼 단 맛을 느꼈으나 나중에 부하가 음식을 먹으면 죽음이라는 말을 듣고 쓴 맛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계시록 10: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담과 하와가 지혜를 얻고자 먹은 나무의 열매는 지혜가 아니라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열매였습니다. 그것은 참된 선을 선으로 보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는 인간의 교만과 독선입니다. 그 인간들의 모습을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20~21,

[20]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21]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예레미야 4:22,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진실한 눈을 떠야 합니다. 이 빛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3~7,

[3]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6]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얻어야 합니다.

계시록 3:17~22,

[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의 수신자가 교회이고, 계시록의 수신자 역시 교회인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구원은 신자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교회나 공동체를 단위로 하여 받기 때문입니다(행 16:31, 고전 7:14).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영광스러운 경륜과 비밀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는 사명을 다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3:1~11,

[1]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2]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4]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6]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골로새서 1:25~28,

[25]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취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2:1~3,

[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

사울의 군사들이 짐승을 피를 먹어서 하나님께 범죄 했습니다. 왜 구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금했습니까? 그 속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17:14,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생물의 피는 그 생명입니다. 구약에서 피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리었던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구약시대 사람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에덴동산을 둘러싼 화염검에 의해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성령의 계시 없이는 그 생명의 비밀이 가리어졌습니다. 그것이 소경이나 귀머거리라고 비유로 말해지곤 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기까지 그 비밀을 숨기셨습니다.

이사야 29:9~14,

[9]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리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10]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11]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

게 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
하겠노라 할 것이요 [12]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
를 그대에게 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13]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
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 비밀이 만세 전부터 감취였다가 오직 신약시대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이후에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효력이 적용이 됩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
을 믿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6~29,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
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
럽게 하려 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
려 하시나니 [29]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
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7,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마가복음 4:11~12,

[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 비밀이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건물이나 인간 권력의 조직체가 아닌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7: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에베소서 1: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자의 총만이니라

로마서 12: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이 나라에 초대되었고 그 나라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살도록 위임받은 분들입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사울왕은 이 사명에 실패한 자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그 사명을 무시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총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권세자들이 자주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들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울왕은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삶으로 다윗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지만, 단지 베냐민 지파이고 사울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사울 현상’ 속에서 신자 노릇을 해야 하는 의로운 평신도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공동체 원리, 대표 원리에 의해 전체가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의 일원이지만 신앙을 지키고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엘리야 시대의 7천명의 숨어있는 사람들(왕상 19:18)이요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오는 남은 자들(사 10:20~22)입니다.

이사야 10:20~22,

[20]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21]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훼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여러분은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고 사십니까?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중생(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성령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단지 교리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현실을 진단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 같으면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진단받기 위해서 13만원하는 검사비도 마다하고 검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 귀가 열려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그 약속을 받아 온전함을 이루어 살도록(히 11:40) 하여 주소서. 아멘.

왕의 修業 14. “사울③-후회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5:1~35,

[1]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 [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3]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젓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4]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이십만이요 유다 사람이 일만이라 [5]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6]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7]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10] 여호와와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11]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2]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

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은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
 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 갔다 하는지라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
 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행하였나이
 다 [14]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
 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이니까 [15]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
 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
 멸하였나이다 [16]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
 시옵소서 간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17] 사무엘이 가로되 왕
 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
 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
 라엘 왕을 삼으시고 [18]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
 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
 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와 악하게 여
 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
 되 나는 실로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
 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
 을 진멸하였으나 [21]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
 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22] 사무엘이 가로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 이는 거역

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4]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
 가 여호와와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
 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5] 청하오
 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
 께 경배하게 하소서 [26]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와 말씀
 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27]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
 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겹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28]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
 나이다 [29]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
 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
 이다 [30]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
 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31]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
 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32]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 오라 하
 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
 이 지났도다 하니라 [33]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여인
 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머니가 무자하리라 하
 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34]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본
 집으로 올라가니라 [35]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

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늘의 본문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중에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내용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조상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의 이름입니다(창 36:12). 그의 자손은 출애굽 시대부터 사울 왕 시대까지 유다의 남쪽 지경에서 애굽의 국경과 시내 반도에 걸쳐 유랑하며 살던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말렉족과 최초로 만난 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을 제일 처음 방해한 민족입니다(출 17:8~16).

이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적인 방해와 전쟁을 해 온 족속입니다(민 13:29, 14:25, 14:45, 사 3:13, 사 6:3, 6:33, 7:12, 10:12).

그러므로 신명기 25:17~19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을 습격하여 고통을 준 죄로 인해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이 명령한바 있습니다.

[17]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

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19]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다는 것이 그들이 진멸당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8절에 보면,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을 벌여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그들의 재산 중에 값진 것을 빼돌리는 일을 하고 맙니다. 이것은 남김없이 죽이거나 불에 태우라는 ‘진멸’에 순종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의 범죄는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용감하고 믿음 있는 행동으로 엄청난 대군인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사울은 질투와 경솔한 명령으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지도자로서 영적인 안목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지 못하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의 사건이 15장의 유명한 사울의 불순종인데, 아마 14장과 15장은 꽤 시간이 흐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장의 시기는 다윗이 태어났지만 아직 소년으로서 양치기 하던 때로 16장으로 넘어가는 바로 직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4장 마지막 절은 사울의 업적을 기록하는 마지막으로 그가 전쟁을 위해 용사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52]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있는 자나 용맹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사울의 통치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고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러한 사울의 원리가 결국 15장의 불순종의 사건으로 결말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겐족속이 사이에 끼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남고 아말렉만 깨집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실 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1~3,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겐족속은 모세의 장인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이스라엘에 매우 큰 영적인 귀감이 되는 레갑족속의 조상이 됩니다(렘 35장).

두 번째로, 민수기의 발람의 축복과 저주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압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재물을 주고 고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민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막상 예언을 하는데 발락왕이 요구한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예언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예언했습니다(민 24:17). 그리고 아말렉의 멸망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민수기 24:20,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즉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하는 자들에게 저주의 예언을 했고 이스라엘은 축복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하고 의로워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통해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13~16,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잘 나타난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2:21~23,

[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22] 만일 하

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훈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러나 오래 참고 심판을 보류하시기도 합니다. 그 한 예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여러분이 보신대로 이미 민수기에서부터 그 심판이 선언된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몇 백 년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나 민족이라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죄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도 인류가 당장 멸망하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베드로후서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 이방 민족으로서 아말렉이 등장하게 했다면, 일개인으로서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다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각왕과 품질 좋은 가축들을 살려줍니다. 아마도 아각은 자기가 살아남는 대신 어떤 좋은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남긴 것은 모두 다 없애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생각에는 사울의 행동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왕을 사로잡으면 도망갔을지도 모를 아말렉족속들이 있다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전략상으로 왕을 사로잡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남기면 제사를 드리는 재료로 그리고 군사들의 식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축낼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또 20,21절에,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 말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서도 한편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매우 존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지도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신앙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남긴 이유가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도 아니고 제사를 드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나라 공동체의 지도자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신자들의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1~2,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울의 두 가지 이중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14장에서 사울이 말도 안 되는 금식명령을 내릴 때, 요나단이 자신의 명령에 불응했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

론 백성들이 적극 반대해서 죽이지는 못했지만 거꾸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먼저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에게 같이 제사를 드리자고 하면서 그 이유를 자신의 왕으로서 체면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30]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 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보다 자신의 이미지가 백성들에게 나쁘게 전해질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중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 이번이 사울의 처음 범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 범죄 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무엘상 13:13~14,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어늘 [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지금 15장 22절 이하에서 사무엘은 다시 심판 선언을 반복합니다.

[22]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가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을 두 번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확실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한 예로 요셉의 꿈 해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32,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나 심판 선언이 두 번째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첫

번째 선언만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처음 듣고 니느웨의 모든 백성이 왕과 함께 금식하고 회개하여 살아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선지자 때입니까? - 그렇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 3장,

[1] 여호와와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 요나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삼 일 길이라 [4]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굶은 베를 입은지라 [6]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굶은 베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7]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베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 하나님이 흑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

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짐승까지 멸망할 처지인데 니스웨 백성들은 짐승까지 배움을 입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됐지요. 요나서야말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만약 이들이 두 번째 심판선언이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라면 분명히 심판을 당했을 것입니다.

13장에서 사울의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사울이 곧바로 회개하고 변화했다면 그는 15장의 심판을 듣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왕조가 더 오래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훗날 사울의 후손 중 누군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사울왕조가 다윗에 의해 바뀌게 되고... 아마 다윗은 훨씬 더 늦게 태어나야 했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원래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흥미삼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추측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백성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등 변명만 했습니다(24절).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돌이키려고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을 잡아 선지자의 옷이 찢어지고 맙니다(27절).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돌이킬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29]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사무엘을 따라가서 아각을 불러 오게 하고 아각을 직접 쪼개, 즉 조각을 내어 죽입니다. 사

무엘이 굉장히 화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후 결코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35]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극도로 사울에 대하여 슬퍼했고, 하나님은 후회하셨다고 기록하며 15장이 마칩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 우리들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사울 왕조를 통해 그리스도를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의문!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또 후회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힘을 당신의 기쁨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당신이 슬퍼하시기 위해 그 힘을 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을 들으면서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슬퍼하시기도 하고 고통을 자초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을 벌이셨는지 정답을 짐작하시겠습니까? 제발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학에 서는 ‘은혜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져서 이어져왔습니다. 그 약속 혹은 언약은 불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불변적인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겐 족속이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살아남고 아말렉은 모두 멸절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의 언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무조건적 절대불변의 언약의 성질과, 언약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반응, 즉 믿음에 따른 조건적인 성질이라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건적’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인간의 의지와 공로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듯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신학이 있는데 그것을 알미니안(Arminian)이라고 합니다. 감리교나 성결교가 이 부류에 속합니다(‘신학’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실제 신앙색채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짬뽕입니다). 또 천주교는 인간의 공로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본래의 신학적 차이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한국교회들에서는 장로교든 알미니안이든 순복음이든 이것저것 비빔밥처럼 섞여있습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각기 전통적인 신학은 사라지고 개교회 목사의 신념 위주입니다.

그러니 은사운동의 한 종류인 ‘알파코스’도 장로교 교회들에서 가장 빨리 빨아들인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지와 공로로 구원 얻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적인 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이지만 그렇게 회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을 ‘조건적’이라고 합니다.

즉 사울이 만약 13장의 첫 번째 경고를 듣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본다면 사울의 회개는 그의 구원의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사울이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의 심판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다는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7~10,

[7]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8]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9]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

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10] 만
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
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기에 “뜻을 돌이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사무엘상에 3번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11절, 29절(변개), 35절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nihameti / inahem / niham)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니, 이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말일까요?

본문의 “후회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naham(혹은 niham)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대 언어가 대개 그렇듯 히브리어도 한 단어의 뜻이 다양하거나 함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naham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말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약 100회 사용되는 이 단어를 “위로하다”(약 60회), “후회하다”(약 38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숨을 크게 내쉬는 “후”하는 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둘째 자음 n 은 목구멍 깊숙한 곳에 나오는 h 발음입니다. 사람이 속상할 때 한숨 쉬는 느낌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가엾다, 동정하다, 위로받다, 후회하다, 슬퍼하다, 안심하다, 편하게 하다, 한탄하다, 뜻을 돌이킨다]는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 부친상을 당해서 영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전화를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 엠 쏘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버님 돌아가신 일에 어떤 원인제공을 한 것은 물론 아니죠. ‘네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안됐구나’라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도 sorry가 그냥 ‘미안하다’라고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행에 안됐다’ 혹은 ‘후회를 한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우리도 “유감(遺憾)있다”라고 말하면 본래 ‘나한테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불쾌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도 쓰입니다. 얼마 전(2009년) 북한의 임진강댐 방류로 몇 사람 죽고 남한 정부에 “유감이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라는 표현은 자존심이 있어서 못하고 마치 제 3자가 말하듯 ‘그냥 안됐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고, 남의 불난 집 구경 하듯 돌려서 하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맥과 상황을 잘 살펴서 히브리어 니함(나함)이라는 단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창 6:6~7)

이 구절에서는 나함(니함)이란 단어를 “한탄하셨다”(심히 슬퍼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 인간이 심각하게 타락한 모습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고 한탄하셨습니다. 아마 21세기 지상을 보시면 더 ‘니함’하실 것 같습니다.

2.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민 23:19)

이 구절에서는 ‘나함(니함)’이란 단어가 ‘후회’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에 대한 언약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발람의 꾀에 빠져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징계하기는 했지만(민 31:16), 그들과 맺은 언약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3. “여호와께서...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

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놓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
다.”(신 32:36)

이 구절에서는 ‘나함(니함)’이란 단어가 ‘가없게 여기다, 동
정하다’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죄로 인해 징계하신 후에도
그들을 가없게 여기고 동정하십니다.

4.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삼상
15:11),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
회하셨더라.”(삼상 15:35).

이 두 개의 구절은 나함(니함)이란 단어가 ‘슬퍼하다, 한탄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5.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대상
21:15)

이 구절에서 나함(니함)은 고통 받는 자기 백성을 보고 하
나님께서 징계를 철회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6. “내가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렘 4:28), “여호
와께서 훼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 같이 되었더면”
(렘 20:16)

이 구절들은 나함(니함)이 ‘후회하다, 돌이키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니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 나타날 때는 항상 그 언약이 불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7.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렘 42:10)

이 구절에서는 나함(니함)이란 단어가 우리 말 성경 번역대로 “뜻을 돌이킨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로 인해 징계하신 후에 그들이 받는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징계를 거두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그 밖의 사전적 뜻:

1. to mourn, grieve over, 슬퍼하다, 한탄하다.

삿 21:6,15, [6]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누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15]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누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꺾이 나게 하셨음이라

2. to grieve, feel compassion for, pity with, 불쌍히 여기다.

겔 32:31,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임이여 칼에 살륙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다 나 주 여호와와 그의 말이로다

2. to feel regret, to repent, so as to either a change of conduct or of purpose, 뜻을 돌이키다.

삼상 15:29; 시 110:4,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3. to ease, free oneself of any displeasing object with, 안심시키다.

4. to be comforted, 위로받다.

5. to sympathize with, 위로하다.

우리말의 ‘후회’란 ‘이전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양심으로 느끼고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후회’는 잘못된 일이 있어 뉘우치는 감정이 아니라 벌어진 일에 대하여 ‘탄식하거나 유감스럽게 여김’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도 그가 유감스럽게 행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유는 알고도 하신 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일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일 자체가 유감스럽지만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올 것인지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고집을 부렸고, 하나님의 허락은 그 고집에 대한 징벌

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과 35절은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번역이 되어야 맞고, 29절은 그대로 ‘변개(변경)’가 맞습니다.

* 참고: 다른 본문의 ‘후회’:

(민 23:19)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신 32:3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같은 자나 놓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렘 4:28)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라

(렘 20:16)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훼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 같이 되었던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으면,

(롬 11: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구원에 대해 바꾸시거나 변경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실패했듯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것이 신약시대 왕 같은 제사장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제사, 살아있는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순종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신명기에는 기름부음 받는 직분들을 말하면서 미래에 있을 왕직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중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신명기 17:18~20,

[18]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있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시 119:103,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 40:8,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나 어떤 왕도 심지어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빌립보서 2:6~8,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무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5~10,

[5]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

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8]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인류가 죄에 빠진 것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로마서 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11: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모두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는 것
입니다.

베드로후서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
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세상을 정죄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2:41(눅 11:3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
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여
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전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 선언은 2천 년 전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리
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재림)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
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 재림이 두 번째 심판 선언입니다(계 2:11, 20:6, 20:14).

계시록 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

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심판 선언을 듣고 복음을 믿어 회개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계 20:6).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의 진멸과 사울의 심판 선언 확인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도록 기록되었고 준비된 일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개(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은 영원히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얻을 것이라는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실수에 때로 슬퍼하시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修業 15. “다윗①-왕의 선택②”

사무엘상 16:1~13,

[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언하였음이니라 [2]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3]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4] 사무엘이 여호와와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5]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6]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8]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

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쑥이 남아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3]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는 누구를 선택할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9:15~17,

[15] 사울의 오기 전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16]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 보았노라 하시더니 [17]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왕이 될 자를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원한 왕이었고 백성들의 기준에서 좋아할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자신의 몇 가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무엘은 그 다음 왕이 될 자를 찾아 기름을 부어 세워야 했습니다. 새 왕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13:22,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단지 그 사람이 베들레헴 마을의 이새의 아들 중의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이곳에서 약 천년 후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살던 마을은 갈릴리 나사렛이지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먼 조상들의 고향

으로 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몸이 찢기고 부서져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6: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요한복음 6: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 마을에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는 롯과 보아스의 손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미리 정하셨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장남 엘리압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장남으로서 또 용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준은 사울이 선택되었을 때와 같습니다.

사무엘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 즉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0:9,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의 마음도 변화한 마음입니다. 그는 새 마음을 가졌습니다.

구원받아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지만 한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지 않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이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 사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문제가 우리 대부분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울이 집권한지 약 10년 후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때가 10대 중반이라면, 하나님은 사울이 범죄한 이후,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겠다고 떠난 이후에도 10년 이상의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들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기 싫어서 이것저것 핑계만 만들어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는 일입니까? 다른 일을 못해서 손해 보는 것 같습니까? 좋은 식사자리에, 놀러갈 자리에 다 가지 못해서 많이 손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을 교회 못 가게 하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마귀가 손발 걷어 붙이고 파병 지원 나옵니다. 특히 아이들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통과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못가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못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예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핑계만 제조하는 분이 진정 거듭났는지조차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속 핑계를 만들면 반드시 그 때가 옵니다. 핑계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사울은 믿음에서 실패한 거듭난 신자의 전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시고 왕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택한 백성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고 동참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는 많은 외형적인 조건들을 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직분을 줄 때 그 사람의 헌금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목사를 뽑을 때도 ‘말 잘 듣고 자신들의 교양미와 허우대를 세워줄 사람’에게 눈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 사울만 가득하고 다윗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세울 때의 기준이 이러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6~29,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성공자가 아니고 루저(loser)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합니다.

역대하 16:9,

여호와와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춰진 것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찾습니다.

이전에 룯기 4장을 강해할 때 보아스와 룯의 아들 이름이 무엇이라고 한지 기억하십니까? 오벳입니다. 그 뜻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왜 하필 많은 좋은 이름 놔두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도 있다고 했는데 그냥 ‘종놈’으로 이름 지었는지 잘 생각하시라는 말이 기억납니까?

‘종’이라는 뜻의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떠받드는 ‘대단한 주의 종’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한 명의 종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섬기는 자입니다. 자신의 주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자가 아니라 자신이 낮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양 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편 78:70,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시편 89:20,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주신 첫 사명이 사울왕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후 사울의 궁에 불려가서 사울의 종노릇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울의 정신병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무기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남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신 과정을 보겠습니다.

1. 다윗을 고독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이 혼자 있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혼자서 견뎌다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나 그 형들은, 어린 막내

아들은 당연히 사무엘의 관심에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조차 중대사에서 밀려난 인물입니다. 양치는 일이란 아이들이나 별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천한 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양 치던 들판과 자연은 다윗을 종으로 훈련시키는 학교였습니다. 자연은 가장 큰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는 그 속에서 혼자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인격적인 대접과 환경을 미리 공부했습니다.

한 여름의 땀별과 바람과 폭풍우 속에서 홀로 양 떼를 지켜야 하는 고독이 다윗이 훗날 왕이 되는 수업이 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6:15,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시 68:6,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2. 다윗은 이름 없는 자로 자랐습니다.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다고 남들이 그를 내 세우지 않았습니 다. 사무엘의 방문이 관심 밖에 살던 다윗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의 종은 처음에는 이런 고독과 미천함에 처하는 법을 배웁니다. 무명과 미천함 속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하나님 이 허락하는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12,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3. 다윗은 단조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일상생활은 단조로운 일입니다. 평범한 일들입니다.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 늘 계속합니다. 끝 없는 반복입니다. 다윗은 이런 일들을 몇 년을 했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왕의 수업입니다.

4.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삶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독과 무명함과 단조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성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수행하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더 다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자각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겠다고 하자 사울에게 불려잡니다.

사무엘상 17:33~37,

[33]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34]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35]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36]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다윗에 대한 그 형들의 평가처럼 소년 즉 어린아이를로 취급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대답합니다. 자신이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는데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들에서 양을 칠 때였습니다. 고독과 무관심과 단조로움 속에서도 그는 종종 양을 노리고 습격한 맹수들과 싸워 이겼고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싸워야 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고독한 속에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도 자신은 죽지 않을 수 있다고 사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룩한 성자로 변화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없던 능력이 생기고 세상과 떨어진 별종의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까지 하던 양치기 일을 하며, 고독 속에서 무명함 속에서 단조로움 속에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이 변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하고 사는 모든 일상사를 변하게 합니다. 세상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는 나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하면 자동차사고를 당해도 세상이 달리 보여야 합니다. 팔다리 없는 사람들이, 앞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눈이 떠지고 정상이 되지는 않지만 세상을 바꾸잖아요. 여러분이 변하면 애기들 똥기저귀 갈아주는 것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는 중에도 파리 잡듯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물원에 달려가지 마시고. 일부러 독사 입에 손

을 넣거나 독약을 마셔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걸 보고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했듯,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여러분에게 사자나 곰 같은 어려운 일이 달려들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고 여러분의 속이 변하지 않으면, ‘오늘은 속도 안 좋고 몸이 찌뿌듯한데 그냥 TV보며 쉬지 뭐, 애가 감기 들었는데 핑계대고 쉬지 뭐’하면 아무리 성령 받고 구원받아도 사자나 곰에게 먹히는 일입니다. ‘쭈쭈쭈(강아지 킁 굽으며)... 잘했다 치타.’ 이게 마귀의 애완견이지 골리앗을 이겨 승리할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진실로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사람으로, 종으로 정하시고 사용하시려는데 있어서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아 신자가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게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들어갑니다. 아마 평생 동안이 그 훈련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다윗이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가운데 살았던 것을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으로 여러분의 모

습을 미리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6: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 왕으로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왕의 修業 16. “다윗②-왕의 수업①”

사무엘상 16:14~23,

[14] 여호와와 그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와 그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15]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16]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오시리이다 [17]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18]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다 [19]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20]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21]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든 자를 삼고 [22]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자 동시에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도리어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와 신은 ‘루아흐 엘로힘(아도나이)’인데 이 단어 뒤에 ‘라아’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은 것이 여호와와 악신입니다.

‘악신’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기 위해 쓰시는 타락한 천사 중의 하나입니다. 악신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사람들을 시험하고 괴롭힙니다.

욥기 1:6~7,

[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7]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왔나이다

베드로전서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하프)을 연주할 때 악신이 잠시나마 떠난 이유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자신의 신앙고백의 차원에서 음악을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울도 과거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삼상 10:5,6). 신령한 음악은 사람들의 영적인 감각을 고조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열왕기하 3:15).

사무엘상 10:5~6,

[5]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 네게는 여호와와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열왕기하 3:15,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거의 곧 바로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름 받고 10년 이상 지나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은 그 기름 붓는 일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절차라고 그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비밀리에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목적으로 사무엘이 다윗과 따로 만났다는 구체적인 언급도 없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혹은 사울이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닐 때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이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 그런 의미였구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음 받게 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놔두신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다윗 자신을 위한 왕의 수업입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자 사울에게서 여호와와 신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왜 이런 간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다윗을 불러 자신의 정신병을 치료하는 악사 겸 병기 드는 자로 삼습니다. 즉 미친 왕을 위해 멸절한 다음 왕이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처음부터 왕 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남의 하인으로, 별 볼일 없는 자로 사는 것부터 훈련받습니다.

사울이 악신에 의해 고통을 받을 때 다윗을 부르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사무엘상 16:19,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고독하고,

무명이고, 늘 하던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만들어 나가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기름부음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부음 받았을 때 거의 비공식적이었습니다. 다윗의 부모 형제들은 당시에는 무엇 때문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공식적으로 그 기름부음은 왕으로 임명받는 것으로 선언되어 받았고 즉위식도 대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부터 왕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부음 받고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다윗이 나이 30에 왕위에 오르니까 기름부음 받은 때가 15살이라고 해도 15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다윗을 대할 때 누구로 대하여야 합니까? 골리앗을 이긴 소년 용사로, 사울의 부하 장군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반역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최근까지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

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로마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거리가 되어 고문과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시대 때에도 천주교든 기독교든 야소교는 반유교적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러했고 6.25 전쟁 중에도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잡았습니다.

예수가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까지는 기독교가 겉으로 아무리 변성하고 선교를 해도 수난과 고통과 오해를 받아야만 하는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사울을 왕으로 섬기는 이상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원리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에는 과연 아무 일 없는 것일까요? 잘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주인은 물질과 영광과 성공입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다윗 시대 때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부자 나발의 부인입니다. 나발은 지방의 호족이고 재벌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타난 다윗은 여전히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처지였습니다. 단지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수백 명의

세상에서 버림받은 무리들과 그 가족들만이 다윗을 따라 다녔습니다.

나발은 많은 수의 양을 치는 갈멜 지방의 양 목축업 부호입니다. 마침 양 털을 깎는 시기에 다윗이 부근에 있어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양 털을 깎는 시기란 곡식추수처럼 목축업의 추수이고 잔치하는 때입니다.

이에 대한 나발의 반응을 이려했습니다.

사무엘상 25:10~11,

[10]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누구냐’고 했을 때 다윗이 누구인지 나발이 전혀 모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란 것도 알았고, 사울의 신하였었다가 도망 다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말처럼 다윗이 사울로부터 억지로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위협 때문에 도망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발이 왜곡해서 다윗을 평하는 것은 그를 깔보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의 아내 아비가일조차 다윗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놀라운 고백을 보면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사울 다음

의 왕으로 내정되었다는 소문을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사무엘상 25:23~31,

[23]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7]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좇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좇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30]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31]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

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미 어렸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 받았다는 사실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쫓겨 다니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나발은 가진 자의 편이었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현실과 세상에 바짝 붙은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2:16~21,

[16]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18]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발은 하나님과 영원한 일에 대해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

래서 현재의 패배자인 다윗의 도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신앙심 깊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윗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보는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매일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왕으로서의 한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탄의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시는 그 날에 온전히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름부음받자마자 즉시 왕위에 오르지 못한 이유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다윗에 대한 반응으로 어느 세력에 속한 백성들인지 갈라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가 갈릴 날이 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로 갈릴 때가 옵니다. 양털 깎는 날에 나발이 죽었듯이,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현 세상에서 힘없이 도망만 다니는 패배자로만 보이는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부한 자들의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시고 2천년이 지나도록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고르시고 심판받을 자를 숨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조차도 처음에는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기 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잘난 것, 멋진 것, 성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얼굴이 잘생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장애를 가졌거나 추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욱 하나님의 선택기준을 잘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어떠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얼굴이 못생기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가진 것 없고, 세상적인 출신 배경이 없었다는 이유로 배척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구약과 신약에 각기 이렇게 예언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 53:1~3,

[1]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빌립보서 2:6~8,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선택의 기회들을 만납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9~12,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2:1~12,

[1]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고 [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
호와와 그 기쁨 받은 자를 대적하며 [3] 우리가 그 맨 것
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4]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5]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6]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
로다 [7]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
지 이르리로다 [9]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
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10]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
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11]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
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
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다윗이 선택받았을 때 외모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니다. 중심
을 보신다는 말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
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의미가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만한 품성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결한 사람을 뽑으려하신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잠언 20:9,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예레미야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더니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로, 가진 것으로, 능력으로, 거룩함으
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만이 오직 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
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왕의 수업은 이것입니다. 이 분만을 왕으로 인정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리스도께
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왕의 修業 17. “다윗③-다윗과 골리앗①”

사무엘상 17:1~54,

[1]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뎀에 진치매 [2]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3]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4]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요 [5]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오천 세겔이며 [6]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7] 그 창자루는 베를 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8]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0]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2] 다윗은 유다 베들레헬 에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13]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

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삼은 삼마며
 [14] 다윗은 말째라 장성한 삼 인은 사울을 좇았고 [15]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
 을 칠 때에 [16] 그 블레셋 사람이 사십 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17]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볏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18] 이 치스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
 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19]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
 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20]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
 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싸우려고 고향하며 [21]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향오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
 하였더라 [22]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
 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23]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우는 가드 사람 골
 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향오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24]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
 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25] 더
 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
 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
 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26]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
 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시는 하

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27]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 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28]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뉘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29]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30]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31] 흑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2]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33]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34]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35]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36]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38]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

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
 고 곧 벗고 [40]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
 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41]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42]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
 윷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
 다움이라 [43]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
 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
 노라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
 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
 엘에 하나님이 계신줄 알게 하겠고 [47] 또 여호와와 구
 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
 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48]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향오
 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
 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
 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0] 다윗이 이같이 물매
 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
 에는 칼이 없었더라 [51]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밧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 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52]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앞드러졌더라 [53]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54]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지난주에 교회에서 ‘나사렛 요셉’이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이 갈등하는 장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요셉에게는 마리아의 임신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목수이고 자신의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에게 말하길,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로마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오히려 말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면서도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꿈속에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해줍니다(마 1:20).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혼인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칫하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다윗의 기름부음 받은 사건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만은 기름부음 받은 의미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 그런 신앙의 일들은 너무나 은밀해서 정말 그런가하고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증표도 없습니다. 수료증도 없습니다. 가인처럼 이마에 새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거듭나는 문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다윗 자신에게는,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하게 만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할 때, 말로 잘 설명이 안 되고, 증거를 내놓을 수 없고, 무언가 확신할 수 있는 보이는 사건들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아니 영원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리아의 말을 믿은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6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받았으니 어떤 외적인 증거가 뚜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전혀 자신의 소명에 대해 내적인 고민이 필요 없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다윗이 성령 받은 어떤 특이한 사건을 체험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까? 물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중요하지 않은지, 아니면 우리들의 기대와 다르게 아예 그런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 다윗의 특이한 성령체험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기름부음 받고 특이한 체험을 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버림받은 왕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노래하고 때로는 거의 벌거벗고 예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가장 뚜렷한 증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좋아도 좋습니다. 때로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들어도 좋습니다. 다만, 설교를 듣고 ‘저게 웬 믿지 못할 얘기냐?’고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믿음으로 자신의 기름부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16장의 결론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에 위기가 닥칩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시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과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로 패하였던 그들이 이제 다시 내륙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쳐들어 온 것입니다.

블레셋은 ‘피의 경계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베스담뎀에 진을 쳤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임을 짐작하게 하는 지명입니다.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 엘라 골짜기 쪽으로 접근해 와서 그들도 골짜기 반대편 언

덕에 진을 쳤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좁은 협곡이 아니라 넓은 분지와 같은 형태입니다. 대신 좌우로 언덕과 같은 둔덕이 있어서 그 각각의 둔덕 위에 두 군대가 진을 치고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둔덕 아래로 내려오면 틀림없이 평야전투에 강한 블레셋에 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둔덕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산악전에서 참패한 경험이 있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있는 둔덕 위로 감히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치상태에서 블레셋에서 한 장수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7:4~7,

[4]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요 [5]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오천 세겔이며 [6]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7] 그 창자루는 베틀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싸움을 돋우는 자’란 영어로 Middle man 이라고 합니다. 삼국지의 관우, 장비처럼 전쟁터의 가운데서 적군의 기를 죽이는 선봉장(Champion)입니다.

콜리앗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뺨이라고 합니다. 1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로 약 45cm, 한 뺨은 23cm입니다. 측정방법에 따라 약간씩의 오차가 있습니다만 콜리앗의 키는 약 2m 93cm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갑옷 무게만 오천 세겔, 즉 60kg입니다. 체 몸무게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콜리앗의 무장과 신체 크기를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콜리앗을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떤 기독교반대자들은 다윗이 콜리앗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리앗의 뼈로 보이는 거인의 뼈가 고고학자들에 의해 1993년에 발견되었습니다.

1. Goliath's Skull Found Near Jerusalem?

'The 'Kingdom Times,' Belfast, May 1994, carried the story of how a leading archaeologist had found Goliath's skull in a valley west of Jerusalem with the stone from David's slingshot still embedded in his forehead! Dr. Richard Martin says the discovery proves that David's battle with the 10-foot giant

happened just like the Bible said it did, 1,000 years before the birth of Yahshua. 'This is the archaeological find of the century, if not of all time,' Dr. Martin told reporters at a conference in Jerusalem. 'Many people, including scholars and clergymen, would have us believe that the biblical account of David and Goliath is little more than an interesting piece of fiction,' he said. 'But we found this skull in the valley of Elah, in the foothills of the Judean mountains, where David's battle with Goliath was said to have taken place. Even more intriguing, the skull is HUGE and clearly belonged to a man of ENORMOUS STATUE. 'And if you believe the Bible, you know that Goliath was 9 feet 8 inches tall. 'But the most telling piece of evidence is the small round rock we found embedded in the forehead. The Bible tells that David killed Goliath with a stone flung from a leather sling. 'Dr. Martin found the skull during an archaeological survey 20 miles south-west of Jerusalem on 23rd March, 1993. He and his assistants instantly realized that the find was important; but it was only when they had performed tests which showed the skull to be between 2,900 and 3,000 years old that they began to think they had found the remains of Goliath. 'The Bible places the battle between David and Goliath around 990 B.C., or 1,000 years before the birth of Yahshua,' Dr. Martin said. 'According to the Bible the battle began as a band of Israelites were preparing to

fight a band of Philistines in the Valley of Elah. 'At that point in history it was common for enemies to avoid massive casualties by allowing one man from each side to fight for their respective armies. To quote the Bible, Goliath, challenged the Israelites to 'choose a man and let him come to me. If he be able to fight with me and kill me, then we will be your servants. But if I...kill him, then you will serve us.' 'David answered the challenge and killed Goliath with a single stone thrown from a leather sling. When Goliath hit the ground, David chopped off his head with Goliath's own sword. 'As I said before, the skull that we found had a rock stuck in the forehead. There was also evidence to suggest that the head had been SEVERED from the body by a sharp object, most likely a sword. There can be little doubt that this is Goliath's skull. To be perfectly frank, I'm staking my career on it,' said Dr. Martin.' -- Michael A. Clark, Wake Up! July/August 1994.

2.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famed archaeologist Dr. Simon Dor claims to have found the skeleton of the Biblical giant Goliath – with the stone from David's slingshot still embedded in his forehead. Dr. Dor said, "Those who would have us believe that the tale of David and Goliath is mere myth and is not to be taken literally are wrong – and we now have scientific evidence to prove that." The story of the battle

between Israel and the Philistines is recorded in 1 Samuel 17. It was in the Valley of Elah, in the foothills of the Judean Mountains west of Jerusalem that all the action took place nearly 3,000 years ago. Dr. Dor continued, “We knew we had unearthed something truly remarkable because it’s not often you find a human skeleton that measures 9 feet 8 3/4 inches from head to toe. After one look at those impressive remains and that massive skull with the rock buried in its forehead, in our hearts we felt certain that we had indeed found Goliath’s skeleton, but none of us dared say so, even to each other, until tests confirmed the skeleton was between 2,900 and 3,000 years old – meaning this man lived at the precise time the Bible tells us that David fought Goliath. That, combined with the facts that these remains were found near the very spot of that historic battle, led us to the undeniable conclusion that this could be no one other than Goliath. In the skeleton we found, the head had been severed from the body, apparently by a sharp instrument – giving us yet another reason to feel certain that these are the remains of Goliath.” In the Biblical account David cut off the giant’s head with Goliath’s own sword and took it to Jerusalem, but it is very likely that some time afterwards the head was returned to the Philistines where it was buried with the rest of Goliath’s body.

The true Christian Believer does not need scientific evidence to prove the Bible is the inerrant, infallible Word of God, for the Bible is a Living Book and is capable of defending itself, nevertheless, it is thrilling when the spade of the archaeologist produces confirmation to what is most surely believed amongst us.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진실한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데 과학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 자신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고학자들의 삽이 우리가 믿는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보여줄 때 스릴이 있다.’

콜리앗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두 진영 가운데 평야지역에 내려와 소리칩니다. 이 일이 40일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17:16). 그 40일 동안 콜리앗의 위협과 놀림은 날로 더해 갔습니다. 성경에서 40일이란 특별한 숫자입니다.

먼저, 노아의 홍수 때 40일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7:17,

홍수가 땅에 사십 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 올랐고

창세기 8:6,

사십 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유혹에 빠져 금송아지를 만든 때입니다.

출애굽기 24: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사십 일 사십 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애굽기 34: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출애굽할 때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조사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25,

사십 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민수기 14:34,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사십 일의 하루를 일년으로 환산하여 그 사십 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할 때 시험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마가복음 1:13,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누가복음 4:1,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므로 40일이란 날수는 ‘시험’ 혹은 ‘고난’을 상징하는 날수입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시험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거인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사 걱정거리, 어떤 못된 사람 등등.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의 77%가 직장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사표 쓰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인들은 우리 일생에 한 번만 닥치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은 밤낮으로 엘라 계곡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계곡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갔습니다.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이렇게 다윗을 꾸짖습니다. 28절.

[28]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뉘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말은 다윗이 집안에서 평소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말입니다. 아마 다윗이 얼굴이 잘생기고 악기를 잘 다루었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좀 인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개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대개 잘 놀 줄 아는 타입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도 잘 노는 축에 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형들의 눈에는 다윗이 못마땅하게 생각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게으른 성격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터에 보내는 중요한 심부름을 시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 보수적인 장남들은 일밖에 모르고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엘리압의 눈에는 다윗이 들에서

배짱이처럼 평가평가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뭐, 비교하자면 제가 엘리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압 같은 성격의 사람은 남들이 게으르거나 법을 지키지 않거나 하면 용납이 안 됩니다. 반대로 누가 평소보다 열심히 하면 잘난척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판단을 현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사고를 용납하지 않기도 합니다. 모든 엘리압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압과 같은 보통 사람의 눈에는 골리앗이 너무 크고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할례 받지 못한,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보다, 어떤 것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거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믿음을 갖고 용감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믿음을 본 받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까지는 좋은데 ‘다윗을 본받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름 높은 신앙의 사람들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본받자’라고 합니다.

물론 바울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지만 그 말씀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행동, 인격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제가 전에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죠? 시선을 다윗에게 두지 말고 다윗이 바라 본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눈은 거인 골리앗에게 있지 않았습시다. 그의 눈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습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비결입니다.

역대하 20:15,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울은 보이는 블레셋의 세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관

단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는 겁먹었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20:1~4,

[1]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2]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3]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4]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는 때는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사울이 13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때도 겁을 먹고 도망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3:5~7,

[5]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삼만이요 마병이 육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 치매 [6]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믿음이 없는 사울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그 대표의 믿음에 의해 똑같이 믿음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믿음도 달라졌습니다. 사무엘하 21:18~22(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사무엘하 32:8~37, 역대상 20:4~8에는 다윗의 용사 37명의 무용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골리앗 같은 거인들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즉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다윗의 믿음에 영향을 받아 같이 용감해졌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믿음은 온 백성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반대자들은 사무엘하 21장 19절에서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다고 성경을 잘못 번역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성경 원문에는 ‘아우’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엘하난이 다윗의 다른 이름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증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사무엘하 21:19,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Elhanan the son of Jaareoregim, a Bethlehemite, slew

the brother of Goliath the Gittite ... (KJV)

Elhanan son of Jaare-Oregim the Bethlehemite killed Goliath the Gittite ... (NIV)

정확한 번역은 NIV가 맞습니다. KJV은 약간의 의역을 했고 한글은 좀 더 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한글 번역판에서 ‘아우 라흐미’가 나온 근거는 역대상 20:5입니다.

역대상 20:5,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베틀채 같았더라

And there was war again with the Philistines; and Elhanan the son of Jair slew **Lahmi the brother of Goliath** ... (KJV)

In another battle with the Philistines, Elhanan son of Jair killed **Lahmi the brother of Goliath the Gittite**, ... (NIV)

그러니까 사무엘하 21:19에서 죽은 골리앗은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맞습니다. 과거에 사무엘서를 사본으로 받아 적을 때 실수로 아우라는 빠뜨렸거나 아니면 라흐미가 형의 복수를 위해 골리앗이라는 형의 이름을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복잡한 신학책에나 나올만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성경이 골리앗과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 그리고 다른 거인들을 죽이는 용사들의 이야기를 일부러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치세 하에서의 백성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뿐일까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16,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초대교회인 갈라디아교회에서는 유대인이 주류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당연하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혼자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용사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골리앗이든 골리앗의 동생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인들과 맞서서 용감하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에도

함께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맞서고 있는 전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30~33,

[30]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사야 52:12,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8:8,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 같이 비출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역대하 32:7~8,

[7]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 좃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8]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마지막으로 다윗의 전투 도구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쓰러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목동의 방어무기인 물매돌이라는 평범한 도구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갑옷이나 무기는 다윗에게 맞지도 않고 숙달된 것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 그대로의 차림새가 더 전투에 편했고 무기도 쓰던 양을 몰던 막대기와 물대가 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오죽하면 골리앗이 돌에 맞아죽기 전에 웃겨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에 비해 제대로 된 무기가 없이 이룬 다윗의 승리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익은 말씀이 있습니까? 교회를 십 년 이상 다닌 분들이 어디를 펴야겠는데 하고 성경을 척 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손에 맞는 무기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을 세울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뭔가 대단하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애굽의 열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지진도, 때로는 천둥번개도 사용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일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이 가장 익숙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지겨운 일일지라도 만약 그 일에 능숙하고 성실하게 행했다면 다윗의 물매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다윗은 오랫동안 심지어 기름부음 받은 후에도 양 떼를 돌보면서 물매를 연습했고 실전에 쓰기도 했습니다.

시 144:1,

[다윗의 시]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에 눌려 사는 인간들에게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작은 목자처럼 오셔서 사단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쓰러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2:9~18,

[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0]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불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불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들어 주려 하심이라 [17]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18]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콜리앗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이 바라본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께 주어진 작은 일도 성실히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修業 18. “다윗④-다윗과 골리앗②”

사무엘상 17:55~58,

[55]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뉘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
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56]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
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57] 다윗이 블레
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58]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
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헬 사람 이새의 아들이
니이다

사무엘서 강해가 쉬울 줄 알았는데 정말 어렵다는 점을
종종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합니까? 사무엘서에서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만드시 한번 쯤 성경을 읽다가
“어, 왜 이렇게 기록돼 있지?”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내
용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사무엘서
에는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성경이 거짓’이라
고 주장합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성경적 지식이 부족한 신자들은 이런 주

장들을 만나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이나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사무엘서는 많은 복선과 상징과 은유와 영적인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캐낼수록 보석들이 쏟아져 나오는 광맥과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무엘서가 ‘이스라엘 역사 사건과 개인의 일생들에 대한 이중적 기록이 특징인 책’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서를 그저 신학적인 관점에서만 살펴보고 영적인 깊이로 들여다보지 못한 가벼운 판단에 기인한 말입니다.

제가 사무엘서를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에는 둘 혹은 2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 반복되는 사건들과 예언들이 강조하는 것은 ①심판과 구원, ②거듭남(중생), ③세상과 하나님나라 등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모티브 역할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신자들에게 어떤 적용’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책을 써 놓고 그것을 기초로 설교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약간의 설익은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무엘서 강해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지혜를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큰 고개를 넘어가는데, 다윗의 공식적인 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를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성경의 오류를 집어내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안티기독교사이트를 보니까 이 구절부터 나오더군요.

이거 괜히 의심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신학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문서설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무엘서를 이루고 있는 기본 자료가 적어도 두 개 혹은 세 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그들 말로는, 다윗 이야기는 다른 모든 전설처럼 여러 버전(version)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고지식한 성경 편집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편집을 하지 않고 내려오는 전승 그대로 이야기들을 삽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무엘서에는 한 장면에 대한 두 개의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10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임명될 때, ①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는 장면이 있고, ② 또 미스바에서 제비 뽑아서 사울을 세우는 장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내용도 두 번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의 의미			잘못된 번역?
삼상 17:50	삼하 21:19	대상 20:5	삼하 21:19
다윗이 블레셋 사람(골리앗)을 죽였다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심지어 그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다. 엘하난이 죽인 것을 다윗을 영웅 만들기 위해 편집한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그들의 주장도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선입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골리앗 문제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에 대한 기록이 중복(2:12~17과 22~25)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훗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엘리 제사장의 자손인 아비아달이 물러나고 사독이 대제사장이 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무엘서 2:22 이하의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과 심판의 내용을 추

가했다고 주장합니다.’(왕의 수업 02 참고)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비교,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의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에 나타난 “구별과 동일시의 교차(Crossing Distinction & Identification)”(왕의 수업 02 참고)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와 사무엘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기독교가 작정하고 사기 치는 종교라면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인 성경에 어떤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의 시간동안 성경을 다듬고 조작했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아예 이런 말이 나올 틈이 없도록 좋은 말과 교훈으로만 자신들의 경전에 가득 채웠지, 성경처럼 무슨 오해될만한 소지가 나타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허점투성으로 보이고 다른 종교 경전들이 더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해하게 만드는 책임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책임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신 성령의 깨우쳐주심이 없이는 전혀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변화 생깁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수많은 천재들, 과학자들, 지식인들이 성경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바보입니까? 적어도 지금 기독교를 반대하는 알파한 지식인들보다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공식적인 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에서 어떤 문제와 부딪쳐 보셨습니까? “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라고 솔직하게 양심으로 부딪치며, 신앙으로 고민하며 읽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바로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사무엘상에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두 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의 첫등장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부하로부터 다윗을 소개받고 다윗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목동 노릇을 시키고 있는 중요한 구절로 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19,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분명히 사울은 다윗이 누구인지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다윗을 어느 집 자식인지 알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 다윗이 다시 고향에 돌아간 후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있는 형들을 위해 음식을 가져다주는 과정에 골리앗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7:58,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사울이 다윗을 모르고 묻는 듯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사울의 악신을 쫓아내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궁정에서 활동했는데 그것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병이 정신병에 가까운 현상이라 머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늘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진정이 된 후 다시 고향에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17:15,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러나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58절의 사울의 말은 이상해 보입니다.

정말 사울이 다윗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놓고 성경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로는 성경이 본래 여러 개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에 어울릴만한 좋은 이야기들을 짜집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특히 다윗이 두 번 등장하는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큰 꼬투리가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 앞에 나온 다윗이 정말 누구인지 사울이 몰랐다면 상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네가 누구냐? 기특하구나?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적어도 자신의 갑옷을 주는 때에 어깨를 툭툭 치거나 한 번 껴안으면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야죠. 그러나 사울은 그때 질문을 안 하고 다윗이 승리한 후에야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군장 아브넬에게 그가 누구인지 질문을 하기는 했습니다(55절). 아마도 다윗이 이길지도 모른다는 어떤 예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으로서 일일이 백성들의 출신 집안을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악령의 역사로 정신적인 능력에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사울은 다윗을 완전히 모르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넬도 다윗을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출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어느 집안 출신인지 잊었거나 아니면 다시

확인하려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약속한 상을 용사의 집안에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사울이 질문한 이유는 바로 이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즉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에게 사울이 주겠다고 약속한 상 때문입니다.

사울이 무슨 상을 약속했습니까?

[25] ...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롭게 하시리라

첫 번째는 재물입니다. 두 번째는 부마로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집안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의 집안과 관련된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아닌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준다는 말입니까? 국가 세금과 부역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면제받는다든 것은 귀족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집안을 확인한 것입니다. 물론 ‘자유하게 한다’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주로 노예 신분에서의 자유를 말할 때 사용되지만, 이새의 집안이 노예가 아닌 이상 이것은 ‘더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울의 이 약속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즉 (1) 왕과 백성 사이의 중간 계급 혹은 귀족 계급으로 올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Lemche, Ewald), (2) 세금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Fay), (3) 부역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Smith) 등이다. 그러나 첫번째 견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중간 계급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Mccarter), 그리고 두번째의 견해는 '자유하게 하시리라'(하파쉬)는 단어가 성경 용례상 세금의 면제를 전혀 뜻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출 21:2;신 15:12;렘 34:10) 타당치 않다. 반면에 세번째의 견해는 '자유케 하리라'라는 단어가 대체적으로 육체적 억압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며, 또한 우가릿 문서에 용감한 행동을 한 사람이 왕에 의하여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평행 구절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Klein) 타당성이 있다. 한편 여기 '아버지의 집'은 가문(家門) 전체를 가리킨다. (참고: 호크마 주석)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등장이 두 번으로 보이고 사울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다윗이 누구인지 질문한 이유가 사울이 내건 상 - 실제로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 때문이라고 밝히는 결론뿐이라면 뭔가 부족합니다.

다윗이 마치 이스라엘에 두 번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래서 자칫 사람들이 오해하게 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시와 그림자처럼 나타나도록 그의 역사를 주장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논지를 확증하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1.

사무엘상 16:18,

소년 중 한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구절은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자를 찾을 때에 사울의 부하가 다윗을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천자는 다윗의 고향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다윗을 묘사한 내용은 거의 예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다윗을 가장 잘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을 묘사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은 음악가입니다. 둘째는 용사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다윗의 모습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다윗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묘사입니다.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난 다윗은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들어맞는 부분입니다. 즉 악기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두 가지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병

기 든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용사(기볼 하일)로서 의 병기든 자’에 대한 캐릭터 컨셉은 다소 약하더라도 두 가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의 음악사역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가장 좋아한 일은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고, 그가 평생에 가장 소망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상징인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2.

사무엘하 23장에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이 부분에서 평생을 위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 전쟁왕으로서의 다윗의 업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개를 하기 전에 기록된 주의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앞 구절들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3:1~2,

[1]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

이여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2] 여호와와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어 그 말씀이 내 혀에 있
도다

다윗이 이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러면서 자신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윗은 백성들이 자신을 누구인지 모를까봐 다시 소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자신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러하다
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왕, 혹은 용
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노래 잘 하는 다윗이 말할 때에 그 혀에 하나님의 감동
하심이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를 하는 목적은 찬양입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
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을 때 그 노래는
예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
가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의 저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과 예언의 성격이 있
는 노래입니다. 그의 노래는 예언과 동일합니다. 즉 그는 선
지자로서의 사명도 수행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음
악가 즉 선지자와 용사로서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에 더

하여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세상에 알려지는 모습이 마치 두 번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가 각각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예수님이 네 명이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한 분을 다르게 약간씩 묘사하면서 더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는 그 사복음서의 다른 묘사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오히려 불신의 구실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과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거듭나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속이 변해야 하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다윗을 본받으세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여러분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의 일부를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에는 낭만주의자처럼 찬송

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3~6,12,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2]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 악하고 더러운 일에는 용감한 용사처럼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1:18~19,

[18]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6:10~13,

[10]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왕의 修業 19. “다윗⑤-사울과 요나단④”

사무엘상 18:1~30,

[1]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2]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3]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5] 다윗이 사울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6]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 밖에 무엇이냐 하고 [9]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0]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12]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3]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

장을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14]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
 였으나 [16]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17] 사울이 다
 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와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
 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18] 다
 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
 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관대 내가 왕의 사위가 되
 리이까 하였더니 [19]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
 기에 므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바 되었더라
 [20]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흑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21]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
 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22] 사
 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
 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
 를 사랑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
 니라 하라 [23]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
 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
 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24]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
 차히 말하더이다 [25]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
 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폐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
 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일백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26]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27]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이백 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28]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9]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30]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히 되니라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매우 극과 극입니다. 마치 드라마 제목처럼 ‘사랑과 미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먼저 사랑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와서 사울과 만났을 때 그들의 대화를 요나단이 옆에서 들었던 모양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같은 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과 행동은 사실 요나단의 것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단지 요나단은 사울의 질투로 인해 오랫동안 자숙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만나고 나서 요나단은 자신의 신앙과 열정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서 자신의 젊었을 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3]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생명’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nepesh, ‘영혼’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뭐 눈에는 뭐 밖에 안 보인다고 대응해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2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우정을 동등한 친구관계로는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왕자와 신하 사이의 기사도 같은 관계에, 그 속은 동일한 종류의 신앙으로 어울려진 믿음의 선후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언약을 맺는데, 아마 처음에는 단순히 우정을 변치말자는 짝막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훗날 매우 중요한 의미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가려 할 때 이 언약이 두 번째 구체적으로 세워집니다.

사무엘상 20:16~17,

[16]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7] 요나단이 다
윗을 사랑하므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0:42,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
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
어오니라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우정과 언약으로 인
해 사울의 아들 므비보셋을 보호하고 보살피게 됩니다.

사무엘하 9:1,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
라

사무엘하 9:6~7,

[6]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
아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7] 다윗이 가로되 무
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
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

겻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 후 사무엘하 2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연속 3년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원인이 과거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고하게 피 흘리게 한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주민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일곱 명을 내주어 죽이게 합니다. 이때 사울의 다른 일곱 자손들은 다 죽지만,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다윗이 보호해 줍니다.

사무엘하 21:1~6,

[1]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삼 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3]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와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4]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5]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 자손 일곱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와 배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7]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결국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은 요나단의 후손을 잇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18장에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난 장면으로 돌아오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우정의 표시로 몇가지를 선물합니다. 겹옷, 군복, 칼, 활입니다. 아마도 요나단이 갖고 있거나 걸치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고대세계에서는 자신이 늘 사용하던 물건을 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 특별한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옷이 피가 묻힌 채 돌아왔을 때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 ‘요셉 자신’을 상징하고 ‘야곱의 애정’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창세기 37:23, 32~33,

[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 [32] 그 채색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33] 아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또한 바로 다음 장인 38장에서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속아서 자신의 약조물을 줍니다. 유다의 도장과 끈 그리고 그의 지팡이는 유다의 인격이 담긴 ‘약속’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8:17~18,

[17]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18]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아론이 죽었을 때 그 뒤를 잇는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옷을 입힙니다. 아론의 옷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 및 그 권위’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20:23~28,

[23]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 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24]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므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 [25]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 산에 올라 [26]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27] 모세가 여호와와 의 명을 좇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

전에서 호르 산에 오르니라 [28]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선지자 엘리야가 제자가 될 엘리사를 부를 때 겹옷을 던져 부릅니다. 그의 겹옷은 자신의 ‘선지자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19:19~21,

[19]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열두 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둘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겹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20]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훗날 엘리야가 불병거로 하늘에 올라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겹옷을 받고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됩니다.

열왕기하 2:13~14,

[13]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겹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14]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겹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러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물을 주는 이 행동은 ‘자신

의 모든 권리와 미래까지 넘겨주는 상징적인 일'입니다.

마치 세레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이 기름부음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자신을 대신해서 왕이 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것을 심정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훗날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슬픔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26,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런 두 사람의 언약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 그리고 '신자들 사이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2: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요한일서 3: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 두 번째 미움입니다.

사울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에게 군대의 장이라는, - 장군을 의미합니다. - 직책을 줍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돌아오는 환영식에서 백성들이 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명으로 셀 수 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으로 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속 좁은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꼭지가 돕니다. 그리고 점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더 신망을 얻게 되어 사울로서는 다윗이 원수처럼 생각됩니다. 아마도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 갈 것을 심정적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단창을 던지거나 아니면 오랜 세월을 광야를 쫓아다닌 것은, 그 후 약 천년 후 헤롯왕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시도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16,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

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 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
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사울이 다윗에게 몇 번 단창을 던졌습니까? 두 번입니다.

사무엘상 18:11,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사무엘상 19:10,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
에 도피하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던질 때 그가 과연 악령에 사로잡혀
서 제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책
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8:10,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
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분명히 10절에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야
료’한다는 말은 원래 ‘예언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여
기에서는 마치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예언하듯이 사울이
발광했다는 말입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임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질투와 미움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권에 대한 욕심 사나운 집착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왕위를 유지하고 누리겠다는 욕심이 그에게 악신이 내리게 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자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는 횃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인간 영혼의 가장 약한 점을 파고듭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 못했을 때 오히려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10~11,

[10]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뉘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궤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람이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은 사단이나 마귀에게 전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개인의 죄와 욕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16~21,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울에게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질 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장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귀신들린 자는, 거라사의 광인처럼 스스로를 사람이 아니라 귀신으로 인식합니다(막 5:9).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울은 자신의 의지로 다윗을 죽이려 했다고 합니다. 악신이 아니라 사울 자신입니다.

훗날에는 오히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찾아 온 사울을 오히려 두 번이나 살려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 단창 던지기에 실패한 후,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줄 알고 좋은 계략을 생각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인의 양피 일 백을 갖고 오면 부마를 삼겠다고 합니

다. 이미 다윗이 부마가 되는 조건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사울은 자신의 약속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울의 계략으로는 다윗이 혼자 블레셋인 백 명을 죽이면 다윗도 무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다윗은 그 두 배의 것을 갖다 바칩니다.

교회에서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성도들의 사랑이 있는 대신, 사울의 것 같은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지 경쟁하기도 했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교회에서도 심한 분쟁과 분열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질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왕국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 때문입니다. 말로는 모두 다 올바른 신학과 성경적인 신앙을 이야기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속과 정신은 말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교회가 다투고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에게 설교를 자주 시키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담임 목사의 질투 혹은 부교역자의 설익은 부족함 때문입니다. 질투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에 별 상관이 없더군요. 오히려 성인군자가 더 위험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교역자를 세워 일을 시키기는 하지만 만일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각 담임 목사는 그 부교역자의 설교를 줄이거나 아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질투라고는 자신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질투입니다. 창던지기를 한 거죠.

반대로 실력 있지만 설익은 부교역자들은 자신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그것도 꽤 힘 있는 장로나 안수집사들이 몰려와서 ‘나가서 개척하시지요. 뒤는 저희가 맡겠습니다’라는 말에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본인은 그런 말 듣고 겉으로는 개척한다고 40일 금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 흔들린다면 신령함을 가장한 위선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개척이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의 눈에는 배신이 되는 일입니다. 맞창을 던진 겁니다.

창과 창이 왔다 갔다 하면? 전쟁입니다. 이런 일을 현명하게 잘 처리하고 대처하는 담임 목사나 부교역자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들의 대부분의 교회 분열의 원인이 재산 싸움이나 정치 싸움인데, 그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이유를 담임 목사의 설교로 돕니다. 자신들의 세속적이고 더러운 욕심을 신령한 문제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단창 던지기와 블레셋 양피 요구에 숨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대할 때 한 가지 당황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름부음 받은 일이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공포되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심정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기름부음 받은 것을 처음에는 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으로, 영혼으로 확신했기에 다윗과 후손의 운명을 거는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다윗이 기름부음 받은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울 자신의 영혼이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즉 자신 스스로 알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고,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 받았음을 애써서 증명하려고 한 적도 없고, 그가 기름부음 받은 것은 결과론적으로 인정되고 맙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의 약 10년 이상의 다윗의 생애는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요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때를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 될 것을 미리 보았고, 사울도 미리 알아차렸습니다.

사무엘상 23:17,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러나 그 두 사람이 다윗에게 대한 태도는 영 반대입니다. 사랑과 미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신앙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요나단이 될 수 있고 사울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은 그리스도를 대하는 두 종류의 신자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교회의 왕으로 진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사울같이 불에서 다 태워 남은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15,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요나단의 사랑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원의 구원, 영광의 구원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10,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왕의 修業 20. “다윗⑥-두 종류의 사랑”

사무엘상 18:1,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20~30,

[20]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흑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21]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22]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23]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24]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25]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폐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일백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26]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27]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이백 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28]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9]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30]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히 되니라

사무엘상 19:1~6,

[1]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2]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3]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네게 알게 하리라 하고 [4]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6]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19:11~17,

[11]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12]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13]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누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14]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15]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16]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17]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의 아내들은 아비가일, 밧세바를 비롯해 최소 8명 정도(삼하 3:2~5, 5:13) 되는데 첫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원래 사울은 골리앗을 이긴 용사에게 상으로 자신의 딸을 주어 사위를 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약속대로 하지 않고 첫째 딸 메랍을 다윗을 죽일 이용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8:17~19,

[17]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

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18]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관대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19]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므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바 되었더라

사울의 자녀들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4:49,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야요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그런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18:20). 사울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는 계획을 세웠으나 오히려 실패하고 다윗의 이름만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18장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이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딸 미갈도 사랑하고,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사랑했습니다. 반대로 사울의 질투와 광기는 더 심해갑니다.

19장 1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의논)할 때에 보다 못한 요나단이 나서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변호해 줍니다. 먼저 요나단은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버

지 사울에게 다윗이 큰 공로를 세웠고 무죄하다고 설득시킵니다.

요나단은 의를 위해서 혈연과 권세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말 중에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4절)란 말이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5절)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악을 멀리합니다.

잠언 3: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세상에는 때로 의를 주장하기도 하다가도 혈연 때문에 혹은 자기 자리보전을 위해 악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25:26,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변호했습니다.

요나단의 감동적인 말을 듣고 사울은 잠시 정신을 차리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6절). 그러나 곧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다윗과 결혼하여 부인이 된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울에게 악신이 임합니다. 수금을 연주하던 다윗에게 또 단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으로 일단 피합니다. 아마 다윗은 사울에게 임한 악신의 영향이 가라앉으면 되리라고 좀 쉽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사울이 정신을 차리면 이전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집까지 부하들을 보냅니다. 이 상황을 본 미갈이 다윗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하게 합니다. 대신 드라빔이라는 집안 우상에 염소 털로 짠 것을 머리 부분에 씌우고 옷을 입혀 침대 속에 넣어서 마치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처럼 꾸밅습니다.

사울은 다시 부하들을 보내 침대 짜 다윗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침대를 들춰봤더니 미갈이 위장한 드라빔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이미 다윗이 성 밖으로 멀리 달아난 때여서 사울의 이번 시도도 실패합니다.

다윗 대신 침대 속에 들어간 드라빔은 옛날 야곱의 부인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훔쳐가지고 온 그런 종류의 우상입니다(창 31:19). 라헬이 가지고 나온 드라빔은 안장 밑에 숨길 정도로 작은 형태였지만(창 31:34) 크기가 다양해서 미갈이 갖고 있던 드라빔은 거의 사람 크기만 한 형태였습니다.

아람과 가나안 지방을 포함한 고대 중동에 드라빔이라는 가정 수호신이 널리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신 할머니, 부엌신(조왕신)이나 마을 앞 장승, 성황당 신령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집집마다 장식품으로 앉아있는 제주도 돌하르방(우석목)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는 과거에 장승처럼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과 함께 병마를 쫓아내거나 아기를 낳게 하고 복을 비는 미신적인 기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대 가나안 지방의 드라빔과 그 성격이 딱 들어맞습니다. 돌하르방은 제주산 화산석으로 만들어졌고 드라빔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가나안 지방의 우상 관습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 섞여 들어와 사사기 17장에는 미가가 만든 신상 가운데 드라빔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요시아 왕의 개혁 때까지 이스라엘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3:24,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마도 사울의 가정에 있던 이런 드라빔이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면서 다윗의 집에 까지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당시의 어두운 영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의 미신 신앙이 섞여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이 드라빔을 이용해 다윗을 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허용하셨을까요?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숙제 같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그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요나단과 미갈의 다윗에 대한 사랑입니다. 19장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이 다윗을 각각 한 번씩 살리게 됩니다.

1.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은 직언으로 사울의 마음을 돌려서 다윗을 살리고, 미갈은 위기 상황에서 재치로 드라빔을 이용해 다윗을 살립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사랑에 대하여 더 이상 보탬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 진실하였고 또 최선을 다 한 사랑이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은 다만 자신의 최후가 아무 보답이나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으며 그 자손에게 그 약속 이상의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잘못된 왕의 아들이고 또 그의 신하로서 그런 왕과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나갈 때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구원이나 심판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똑같이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왕의 잘못된 신앙과 결정에 의해 모든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전쟁, 기근에 희생이 되거나 혹은 비참한 포로가 되는 역사가 수다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남겨 두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다시 회복의 소망을 이루어 나갑니다.

요나단과 그 아들 므비보셋은 마치 구약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를 보여주는 축소판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물질과 돈의 우상에 빠져 있는 중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무릎으로 중보기도하는 소수의 남은 자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언약에 의해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영적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2. 미갈의 사랑

그런데 문제는 미갈입니다. 미갈의 경우, 위급한 순간에 거짓말이 용납되느냐는 상황 윤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필 우상이 이용되었느냐는 문제도 다른 기회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요나단의 사랑과 대조되는 미갈의 사랑의 성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여러 명의 아내들과 여러 번의 사랑을 할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만 한

사랑이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6,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이 위급했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훗날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좀 건너뛰어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 남편 나발이 죽은 후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고, 또 다른 여인 아히노암이 다윗의 아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44절에 미갈이 다른 사람에게 재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미갈이 여전히 다윗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미갈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고 마는 파렴치한 일을 저지릅니다.

사무엘상 25:44,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것은 미갈을 이용할 가치가 이제 없어졌다는 말이고, 더 이상 다윗이 자신의 집안과 연관이 없다는 공적인 선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인성까지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남편이 죽어야만 여자가 재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은 다윗을 살아있는 것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반드시 죽이겠다는 지독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미갈 자신도 재가하는 중대한 문제를 스스로의 의지가 없이 아버지 사울의 결정에만 맡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이 다른 여자들과 혼인했다는 소문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혼인관습이 아브라함, 야곱, 모세 등 부인들이 여럿이었습니

다. 그러므로 미갈이 재가한 것은 25:44에서도 보듯이 주어가 사울이라고 한 것처럼 사울의 의지가 가장 강했겠지만 미갈의 동의도 전혀 없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후 첫 아내인 미갈을 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다윗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의 문제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넘어 오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약속의 증거로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3:12~16,

[12]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뉘 것이니이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13]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14]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일백으로 정혼한 자니라 [15]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16]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어떤 방법으로 이스보셋을 설득했는지 이스보셋은 원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현재의 남편 노릇을 하고 있는 발디(엘)과 억지로 헤어지게 하고 다윗에게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상 25:44의 발디와 사무엘하 3:15의 발디엘은 같은 사람의 약간 다른 이름입니다.

3. 미갈의 심판

그 후 세월이 지나 다윗의 왕권이 안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성에 모셔 오게 됩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의 수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 그 행렬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의 성격이 얼마나 낭만주의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갈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사무엘하 6:16,

여호와와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창문 밖으로 다윗을 구해 준 미갈이 나중에는 창문에서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를 소개하는 성경구절이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6:20~23,

[20]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21]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의 서
슬에도 다윗을 살려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
떻습니까?

대부분 이 부분의 설교를 하면, 닳고 닳은 교인들은 목사
님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 주일에 쓰는 본문이
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여자 권사님이나 집사님
에게 기분이 나빠서 한 방 때리려는 설교라고들 하지요. 사
실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성경 특히 구약에서는 여자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미갈의 경우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빈정
대고 무시해서 심판을 받았습시다.

‘미갈이 그때까지 다윗을 사랑했다? 안 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그도 있잖아요. ‘30일짜리 신상 부부와 30
년 묵은 부부’. 어떤 연예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처음에
떨림, 다음에 울림, 그 다음은 살림이라고요. 어느 부부든지
사랑의 감정을 평생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혼인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사
는 과정이 결혼입니다.

우리는 미갈과 요나단의 사랑의 차이를 보려는 것은 남녀 사이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미갈의 가치관입니다.

미갈이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자신의 아버지가 사람들을 채는 가치척도 그대로 다윗을 영웅이나 왕으로만 생각하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영적인 일에는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왕이 그런 식의 체통을 잃은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창피한 짓을 하느냐?’는 내용입니다.

미갈이 사랑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권위와 권세 있는 왕의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백마 탄 왕자를 바라보는 공주입니다.

미갈은 사람들의 평가와 가치기준에 눈이 맞추어진 사람입니다. 남들의 평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왕이 춤추는 것을 보고 나뭇잎 굴러가는 것만 봐도 깔깔대는 사춘기 계집종들이 아마도 히히덕거렸을 것입니다.

미갈의 말처럼 왕이 거리에서 춤춘다는 것은 민망스럽고 가며워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지금까지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하면 감정이 풍부한 낭만주의자이며 하나님 중심주의자인 다윗의 행동이 이해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자신의 행동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갈의 아버지의 집, 즉 사울을 버리시고 자신을 높여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천하게 보일지라도 자신을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무엘서의 핵심 사상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높아지는 자요, 다른 하나는 낮아지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상을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찬송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고 브닌나에게서 심한 놀림과 수모를 받던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합니다.

사무엘상 2:7,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찬송의 내용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송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2~53,
[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것이 사무엘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사상 중의 하나입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지리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모든 세력과 인간의 의지를 굴복시켜 승리하리라는 하나님나라의 완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과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는 자들은 반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11 (눅 18:14, 마 23:12),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시편 59편은 다윗이 미갈로 부터 구출될 때를 기억하여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는 배경이 이것이 맞는지 제목이 없다면 모를 정도입니다. 정작 공을 세운 미갈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고만 합니다.

시편 59,
[1] [다윗의 믹담 시, 영장으로 알다스헛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며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2]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3]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엮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4]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
 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5] 만
 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
 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셀라) [6]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7]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
 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8]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9]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
 를 바라리이다 [10]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도케 하시리
 이다 [11]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잇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흠으
 시고 낮추소서 [12]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13]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
 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셀라) [14]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15] 저희는 식물을 위
 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16]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17]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
 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지키고 실천했습
 니다. 그의 삶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상징하는 아름

다운 헌신으로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반면에 미같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가 위험할 때 구원해주는 것은 했으나 의로운 도구로 사용되는 영광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찬양하는 행동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에도 이와 같은 두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가치관의 기준이 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중심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기준으로 영광과 성공과 명예, 자존심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게 하십니다.

인품이 때로 유치하고, 때로 행동이 못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찾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는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자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세계에 한 걸음 다가선 것입니다.

왕의 修業 21. “다윗⑦-다윗과 사울①”

사무엘상 18:14,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sakal(사칼)은 ‘지혜
롭게 행하다’라는 뜻 외에 ‘깨닫다’, ‘숙고하다’, ‘주의하다’,
‘형통하다’ 등의 다른 의미로도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
다.

sakal (동) 

지혜롭게 하다(창 3:6),

지혜가 있다(신 32:29),

지혜 있는 자(단 12:3),

지혜로운 자(욥 22:2), 지혜(욥 34:35),

깨닫다(단 9:13),

깊이 생각하다(시 64:9)

주의하다(시 101:2)

유심히 보다(단 7:8),

이해하다[이해시키다](느 8:13),

여기다(잠 3:4),

생각하다[손을 어긋맞겨](창 48:14)

능숙하다[통달하다](대하 30:22),

형통하다(수 1:8, 왕상 2:3, 왕하 18:7),

잡다(屠殺)(레 4:24),

끼(단 8:8).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sakal: to be prudent

Short Definition: consider

consider, expert, instruct, prosper, deal prudently, give skillful, have good success, teach,

A primitive root; to be (causatively, make or act) circumspect and hence, intelligent -- consider, expert, instruct, prosper, (deal) prudent(-ly), (give) skill(-ful), have good success, teach, (have, make to) understand(-ing), wisdom, (be, behave self, consider, make) wise(-ly), guide wittingly.

그러므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에 따라 주의 깊게 행동함으로써 일이 잘되는 결과를 얻었다’는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 그밖에 3번 더 ‘지혜’라는 단어가 다윗과 관계되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8:5,

다윗이 사울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무엘상 18:15,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무엘상 18:30,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중히 되니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함에 따라 사울의 반응이 점점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5절에서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일을 잘 처리해서 지혜롭게 행했을 때,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라고 합니다. 사울은 그를 자기의 부하로 만들기 위해 다윗을 인정하고 높은 직위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퍼뜨린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전국을 넘어서 유행하자 사울은 엄청난 질투심을 느꼈고 다윗이 자신을 위해 연주를 할 때 첫 번째 창질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악신이 임하고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 악신을 쫓자 질투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다윗을 창으로 두 번 찌르기를 시도합니다.

[12]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천부장이라는 높은 직책을 줍니다. 천부장은 천 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높은 장군입니다.

다윗의 공로가 충분하니 천부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듯 보여도 사실 사울에게는 다윗에게 크고 어려운 직임을 주어서 창피 당하게 하려 하거나 적의 손을 빌려 죽게 만들려는 숨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는 두 번째 다윗이 천부장의 직임을 지혜롭게 행했을 때, 사울은 15절에서 ‘그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애 같은 젊은 장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자신이 버림받은 사실을 분명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사위가 되는 조건을 걸며 블레셋의 손에 죽게 하는 계략을 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승리를 거두고 약속을 지킵니다.

[28]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9]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더욱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게다가 계획과 다르게 딸 까지 주었으니 사울은 발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예 평생 원수 같이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다윗이 세 번째 지혜롭게 행했다고

합니다. 블레셋 방백이 나올 때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은 블레셋의 고위 귀족들이 군사를 이끌고 공격했을 때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승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19장 1절에서 사울은 아예 자신의 살의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냅니다.

사무엘상 19:1,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자, 그러면 이 세 번에 걸친 다윗의 지혜롭게 행동한 일에 대한 공통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만사형통이었습니까? 인생 대박이었습니까? 전혀 반대입니다.

물론 계급은 올라가고 왕의 부마가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과 부하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실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죽을 뻔하고 지속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살려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고난과 시험을 겪는 일이 신자들에게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13,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현상을 다른 말로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12~13,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겪는 시험과 시련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십자가를 똑같이 졌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그 체험을 하며 오늘을 살아
가는 그리스도의 몸 된 신자들이 어떤 모양으로 그 과정을
겪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당연히 고난을 겪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운명이 하나님
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사야 48:9~11,

[9]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0]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11]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
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시련 중에 우리는 다윗이
미리 보여준 길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첫 구절은 다윗이 배가 부르고 등
이 따뜻해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 중에 하
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1,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 중에 지혜롭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에
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
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은 모든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지혜를 갖
고 계시고, 또한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1:2~5,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
히 기쁘게 여기라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
려 함이라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

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사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지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계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자신에게 눈이 번쩍 뜨이도록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고 들었으나 실제로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감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실 우리가 늘 대하던 성경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만드십니다. 애가 탄다는 정도입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걱정 근심까지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여 응답하시도록 영혼의 신경이 곤두섭니다. 영혼이 마치 칼날이 날카로워진 것처럼 날카롭게 베퍼집니다.

그때에야 평소 같으면 무심코 지나칠 어떤 말씀 구절이나 묵상의 내용들이 달라 보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서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받은 위로의 말씀과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니다.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큐를 갑자기 높여주시거나 해결방법이 떨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응답이고 해결 방법입니다.

시편 111:10,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시편 119:98,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떠나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지혜를 얻어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 1: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어떤 목사내용인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매우 감동적인 글입니다. 많이

인용되는 것으로 보아 유명한 책의 내용 같은데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습관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한다. 그러한 습관은 우리의 영적 연약함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게 된다. 우리는 절대로 실족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함이 많고 유한한 인간의 도움을 구한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는 하나님이 언제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성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앞으로 갖게 될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대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적게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분은 그대가 믿음으로 당신을 찾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대가 그분에게서 보다 큰 것을 기대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영적 사물에 대한 것뿐 아니라 세속적 사물에 대해서도 총명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는 지력을 예민하게 하실 수 있으며 재치와 재주를 주실 수 있으시다. 그대의 재능을 주의 사업에 바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보증으로 삼으라. 그분이 그대에게 오라고 초청하시지 않았는가? 결코 절망적이고 낙망적인 말을 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큰 손실을 당하게 것이다. 어려움과 압박을 당하게 될 때에 외적인 것만을 보고 불평하게 되면 그대의 믿음이 병약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그대의 믿음이 언제나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라. 주께서는 모든 것에 부요하신 분이시며 세상은 다 그분의 소유이다.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라. 빛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참된 믿음에는 시간의 경과나 수고의 과중함이 쇠약하게 할 수 없는 탄력성(彈力性)과 원칙에 대한 확고함과 목적에 대한 견인불발성이 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0, 31).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그들에게 나누어 줄 영적 능력이나 빛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도 그 구하는 바를 은혜의 보좌 앞에 두도록 하라. 그리고 성령을 부어 달라고 간구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의 배후에 서 계시다.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제시하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함입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9:26)는 말씀의 뜻을 해석한 말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즐겨 응답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열정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엡 3:20)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요 14:13).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랑의 사도 요한은 아주 명백하고 확신 있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4, 15)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대가 구하고자 하는 바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즐기게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

<http://blog.naver.com/remnant1009/80095858863>(은혜마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세상의 것들, 욕심을 위하여 그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사람의 중심이 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복으로 헛짓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응답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 초기에는 거의 즉각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대체로 80년대까지 기복신앙에 있었지요. 병 고쳐 달라고, 복 달라고 구하면 실제로 그렇게 응답되었습니다. 교회들도 크게 성장을 했지요.

어쩌면 한국교회 전체와 개인 신앙의 변화 유형이 비슷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 뭔가 달라졌다는 분위기를 느끼실 것입니다.

신자 개인의 신앙 경력이 쌓이면 하나님은 다른 수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십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가 실력이 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의 실력은 언제나 도토리 키 재기이고, 단지 경험과 이해력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증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경력이 붙으면서 처음 믿을 때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최

고 수준의 다루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을 기다려야 했고,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70년 이상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2천 년 넘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다리며 더 간절하게 하고 그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진실한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아니면 더 큰 것을 구하게 하거나 다른 것을 구하게 하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방법으로 다루시며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때마다 오히려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 준비되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과 내적 갈등을 노래한 것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여러분의 시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견딜 수도 없고 믿음의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지혜 자체가 모든 기도의 응답입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큘 큰 위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의 修業 22. “다윗⑧-다윗과 사울②”

사무엘상 19:18~24,

[18]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뉘어서 가서 거하였더라 [19] 흑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뉘에 있도다 하매 [20]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의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1] 흑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고로 사울이 세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2]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에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흑이 가로되 라마 나뉘에 있나이다 [23] 사울이 라마 나뉘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뉘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24]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설교할 때는 설교자와 청중 간의 영적 교감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하다가 어떤 성도를 바라봤을 때 뭔가 막히고 있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어려워도 듣는 사람들이 ‘이게 뭘까? 뭔가 있

는 것 같은데?’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내용이 좀 어려워도 설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쉽게 해도 설교에 반대하는 어떤 기운이 일어나면 무슨 커다란 댐에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눈빛이 설교자를 거부합니다. 조는 것은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저 사람 언제 말씀이 귀에 들어가 확 켜까 하고 잠깐 잠깐 신경 쓰이는 정도? 피곤해서, 지루해서 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팽팽하게 신경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설교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애들 훈계할 때 듣기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과 같습니다. 사실 설교에 저항하는 느낌은 그 이상으로 강하게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한 사람이 있으면 점점 그 분위기가 퍼져갑니다. 반대로 은혜 받는 분위기가 되도 퍼져갑니다. 영적인 분위기란 참 묘합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파문처럼 퍼져 나가고,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를 누군가 만들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 부분 빨간 불 켜지듯 전염됩니다. 참 신기하죠. 미리 짜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거부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설교자의 인격과 관계된 문제가 첫째인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설교자에 오히려 은혜 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설교자의 인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잘 아는 설교자에 대해서 역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설교자의 인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때로 그 사람의 모자란 구석과 부족한 인간성을 보았기 때문에 설교를 그 설교자의 인격에 연관 지어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청중의 입장에서도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혹 제가 작은 교회 목사라서, 이름 없는 목사라서 설교도 별 볼일 없을 것으로 선입관을 갖고 있다면 것처럼 큰 실망은 없습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들의 인격과 교양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설교가 어렵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가 방언이 아닌 이상 아무리 어려워도 알아듣고 은혜 되는 부분들이 중간 중간 툭툭 튀어 나오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짧거나 신앙문제에 대하여 고민의 과정을 적게 겪은 분들은 제 설교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나가면 복 받으러 가는 거고, 교회에 가기 어려운 이유가 헌금 때문인 분들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아직 거둬달라는 문제를 해결 못한 경우입니다.

제가 초신자나 불신자를 위한 전도설교, 구원설교도 종종 하지만 주 종목은 성화와 자람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대개 초신자인 분들은 성화에 대한 설교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해도 거부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철학과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설교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거둬달라 하더라도 신앙에 대해 고민한 일이 적은 분들은 제 설교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물론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한 번 여행해보십시오. 믿음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진지해야만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세계에만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치 세월이 흘러도 자라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열심히 믿는

것과 믿음이 자라는 문제는 다른 세계입니다. 아이들도 열심히 믿고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으로 평생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 그래서 율법주의가 됩니다. 자칭 보수적이라는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단 한 권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건서적들, 신학서적들이 구원 이후의 삶과 성화의 문제들을 다루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자신이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영적 전투를 싸워보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설교할 때 기껏 성화의 문제를 ‘십일조 잘 해라, 주일 잘 지켜라, 새벽기도 잘 나와라, 아브라함 닮아라, 바울 닮아라’로 결론 맺습니다. 설교자 본인이 고민과 생각이 부족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그 찬란한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성경 속에서 발견한 보화들을 여러분께 충실히 전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사람인 이상 실수로 설교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상하게 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일수도 있습니다.

제 설교를 영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물론 제가 인간이 못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설교하는 이 부족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말이 진리일까 하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성경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11,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렇게 연구한다면 제 설교와 가르침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제 설교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경험하신 말씀의 세계관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거부하지 마시고, 신앙의 양심으로 성경과 비교하고 기도하여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권고합니다. 제가 이단적인 설교자가 아닌 이상 제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면, 그다음, 여러분의 인격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교만으로 미쳐가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가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원고에 없이 예화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했습니다. 그 분은 워낙 설교를 잘 해서 ‘한국의 크리스소스톰’이라고 불린답니다. 크리스소스톰,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달 전에 ‘황금의 입’을 가진 교부시대의 순교자로서 크리스소스톰(John Chrysostom, 347~407)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크리스소스톰을 체포했습니다. 독방에 넣으려 하니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어서 좋아할 것이라 신하들이 말해서 못하고, 다른 죄수들과 같이 있게 하면 전도할 것이라 해서 못하고, 목을 치면 순교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황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는 일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물론 순교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 잘하고 똑똑한 이동원 목사님이 요즘은 이상한 기도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상기도’(觀想祈禱)라고 한답니다. 관상기도가 무엇인지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저도 모릅니다.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관상기도가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른다는 종교다원주의에 바탕을 둔 기독교운동이나 뉴에이지식의 명상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도방법과 함께 호흡기도 혹은 배호흡이라는 요가의 호흡방법과 비슷한 호흡을 하며 심신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관상기도할 때도 어떤 불특정한 단어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단전호흡에서 숨을 한껏 등까지 들이마시고 조금씩 뱉어내는 호흡법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호흡방법을 매력적으로 여기고 리처드 포스터, 릭 워렌, 유진 피터슨 같은 미국 기독교계의 저명인사들이 기독교 영성운동의 한 가지로 포장해서 보급했는데 이 목사님이 한국에 수입해온 것입니다. 이런 운동을 레노바레(Renovare: 새롭게 한다)라고 하고, 그 기도방법을 관상기도 혹은 숨기도, 호흡법을 배호흡이라고 부릅니다.

단전호흡이나 요가식 호흡으로 심신의 건강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지, 그것이 어찌 기독교 고유의 신앙형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런 기도가 마치 기독교의 고유한 영성인 것처럼 선전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심신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 장로교였다면 벌써 이단으로 판정되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동원 목사의 설교에 대한 평이라고 본인 자신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신학자들 몇이 나와 그의 설교와 목회에 대한 평을 한 것을 인터넷 기사로 보았습니다. 그게 제대로 논평이 되겠습니까? 논문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업적을 논한다는 것은 환갑잔치에나 할 아부지 평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인이 2만 2천명이 넘고 본인 개인의 명예와 영

광이 이미 절정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미 비뚤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이 ‘미혹의 영’(딤후 4:1; 요일 4:6)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교만해졌고 미혹의 영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잘못은 있어요. 10년 전 ‘예수님이 성적 생활을 했다’(가정행진, 규장문화사, 1999, p.148)고 다빈치코드식의 망발까지 했지만 그 저서를 재빨리 철수하고 교계에 사과문을 발표한 것처럼,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와 목사들에게 이런 일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크기와 성공에, 물질에,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이미 그리스도의 첫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도 그 목회 목적이 대부분 교회부흥입니다. 신도시에 빨리 터 잡아서, 은행 대출받아서 큰 건물 지어놓고 사람들 끌어 모으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성공하면 그 교만의 길을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BMW 아니면 안 타고, 40평 이하는 안 살고, 아르마니 외에는 걸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지금 대충 말해서 그렇지, 못한 일부 한국 목사들이 하는 짓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두 시험 듭니다. 저도 인터넷 기사 검색하다가 놀라서 자빠질 뻔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 중에 어느 목사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소리 질렀는데 이미 21년 전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들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이름이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또 현 기독교 세계를 정확히 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 이니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예언을 하게 되는 희한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예언을 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 번 말고도 이미 먼저 예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울이 영적인 경험을 한 것이 두 번입니다. 그때도 그 예언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부음 받고 그 증거로 예언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할 것이라는 사무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5~6, 9~10,

[5]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

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 네게는 여호와와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9]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0]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예언하자 사람들이 놀라서 비아냥거리는 말로 속담(첫 번째 속담)까지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0:11~12,

[11]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12] 그곳의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몇 년 전 배우 최민수씨의 독설이 인터넷과 방송에서 한 때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개나 소나 다 배우 한다.” 이 말은 ‘사울도 선지자냐’와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백성들이 불평하자 모세가 심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예언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 70 명의 장로들은 모세를 위해 거의 도움도 안 되는 불평분자들이요 선동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세처럼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1:2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때로는 이와 같이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신령한 일을 허락해 주시거나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얻는 줄로 착각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기이한 체험을 하고 예언을 한 것은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왕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언 사건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확실한 외적 증거로 삼고 사울이 개인적인 확신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이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사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택하신 왕을 죽이려고 사무엘의 안방까지 쳐들어 온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목적에서 떠나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길쫓까지 벗어버린 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두 번째 속담이 퍼지게 됩니다.

[24]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다라 그러므로 속담
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때는 이미 사무엘에 의해 사울의 때가 끝났다는 경고를
들은 지 한참이 지난 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수십 년을 왕
으로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면 이제 자신의 진
정한 통치권이 완전히 굳어졌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무
엘의 경고를 흐지부지 잊어버릴 정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한국교회에 시작이 되었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드러져 나타나
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습
니다.

사울의 첫 예언체험캠프가 그의 왕정의 시작을 상징한다
면 두 번째 예언체험캠프는 그의 왕정의 끝을 말하는 것입
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울의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였을까요? 성
경이 말하지 않기에 아무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은 가능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
도의 오심과 그의 통치입니다. 사울의 예언도 그 예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예언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라마 나뭇에서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주님의 탄생에 대한 설교가 나와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사울의 예언체험캠프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도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미친 듯 쫓아다니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사울을 밀어내기 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 바퀴벌레 잡듯 죽이려고 합니다. 바퀴벌레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적 있습니까? 그놈들 더듬이 휘날리며 달릴 때는 잡기 힘듭니다. 약은 오르고 속에서는 열이 나지요. 바퀴벌레 비유가 좀 그렇지만, 곤충채집하듯 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모든 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에 관한 성경 이야기 중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를 죽이려는 헤롯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태어나신 왕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 그리고 헤롯왕이 발각 뒤집혔습니다.

박사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를 알게 되고 박사들을 속여 그 탄생 시간을 알아 냅니다.

시간과 장소라는 중요한 좌표가 파악되었으니 이제 정밀 폭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었죠.

헤롯은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지만 그 시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사실을 공적으로 자신이 증명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일이 실패했던 것처럼 헤롯도 다윗의 후손을 죽이려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한 진정한 왕임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상 모든 세력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 했다는 것이 사울 자신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라는 첫 번째 증거이고, 사울이 예언하며 사무엘 앞에 엎드려진 것이 다윗이 왕이라는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복음입니다. 또한 성경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2천 년 전에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그 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자들과 세력은 그 아들의 적(敵)으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심판과 구원을 대비시키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에 특히 사무엘서와 맥락을 같이 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심판의 날에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2:9,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 2:11,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사야 2:17,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
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러한 표현들이야말로 한나의 찬송과 마리아의 찬송과
또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아볼 수 있
습니다.

사무엘상 2:7,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다

누가복음 1:52~53,

[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
를 높이셨고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한나와 마리아의 찬송이 성경 전체의 핵심을 말하고 있음
을 2주 전(왕의 수업 20. 참고)에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리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모든 세력과 인간의 의지를 굴복
시켜 승리하리라는 하나님나라의 완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과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는 자들은 반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

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고린도전서 15:22~27,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24]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 하시리니 [26]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7]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어리석은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왕임을 알면서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무의식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며 사무엘 앞에 엎드려 세상을 통치하실 그

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종말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이면서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신앙고백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구원받았다는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기를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대신 자신을 높이기 원합니다. 말은 해요,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심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광과 권세가 높아지면 마침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이 왕 노릇 하려는 숨어있던 욕심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전혀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의 때에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런 자들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고 하거나 행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실수하고 자신을 높이는 죄를 저지를 때도 있기는 합니다. 다윗도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곧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굴복한 자는 종말에 영원히 높아질 것이요, 세상에서 먼저 자신을 높이는 자는 종말에 영원히 비참해 질 것입니다.

사무엘상 2:7,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왕의 修業 23. “두 번의 언약”

사무엘상 20:1~42,

[1] 다윗이 라마 나뭇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관대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2]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3]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와 사심과 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4]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5]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삼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6] 네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 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7]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8] 그런즉 원컨대 네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네가 네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케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9]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줄 알면 내가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10]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
 되 네 부친이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11]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12] 요나단이 다
 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
 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 때에 내 부친을 살피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네게 알게 하
 지 않겠느냐 [13]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
 거늘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
 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
 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14] 너는 나
 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
 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16] 이에 요나단
 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
 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7]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므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
 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18]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네 자리가 비므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19]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
 으라 [20] 내가 과녁을 쏘려 함 같이 살 셋을 그 곁에 쏘
 고 [21]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네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평

안 무사할 것이요 [22]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
 이 네 앞편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23]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
 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24]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25]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
 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
 었으나 [26]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
 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
 한가보다 정녕히 부정한가보다 하였음이다 [27] 이튿
 날 곧 달의 제이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28] 요나단이 사
 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
 하여 [29]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
 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
 하였나이다 [30]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발하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
 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
 찌 알지 못하랴 [31]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
 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32] 요나
 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33] 사울이 요나단
 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
 을 죽이기로 결심한줄 알고 [34]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

에서 떠나고 달의 제이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욱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 이었더라 [35]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36]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 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37] 아이가 요나단의 쏘는 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네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38]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달음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39]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40]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41]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42]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여러분이 좀 더 강해설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강해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설명을 들으시면 제 설교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무엘서를 강해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처음 보

는 꽃의 씨앗을 화단에 심으면서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어떤 모양의 꽃을 피울지를 꽃을 한 번도 실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프로젝트화면으로 보시는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꽃입니다. 바로 헤더(heather)입니다.

학명은 *Calluna vulgaris*, Ericaceae(철쭉과)입니다. ‘깨끗이하다 또는 빗질하다’는 뜻의 그리스어 *Kallune*와, ‘흔하다’는 뜻의 라틴어 *vulgaris* 가 결합한 꽃이름입니다. 옛날에는 이 식물로 빗자루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그런 이름이 붙여진 모양입니다. 때로 바구니나 끈으로 엮어 사용하기도 하고, 허브의 하나이기 때문에 차와 음료수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원산지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스칸디나비아, 러시아와 북아메리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번도 헤더의 모양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그 향기를 맡아보지 못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것이 제가 지금 사무엘서를 강해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이 1mm도 안 되는 작은 씨앗이 이렇게 멋진 꽃밭을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서의 어느 이야기나 사건을 놓고 그 속에 감추어진 진리나 교훈을 성경 전체의 관점을 가지고 비교하며 결론을 이끌어 낼 때, ‘아하! 이 말씀이 바로 이 뜻이구나!’라는 공감을 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결론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우리가 몰랐던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약 1:5), 그렇게 기도 응답 받은 경험에 있는 분들은 잘 압니다.

바로, 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무슨 계시 받는 것처럼, 천사 보는 것처럼 환상이나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적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간절하게 되지 않아서 갈급하지 않아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편 42:1,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제 설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에게는 제 결론은 언제나 쉽고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씨앗을 놓고 꽃을 설명해야 하듯 접근 과정과 해석의 방법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같

급한 영혼을 가진 분들은 제 설교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자가 자신의 영혼으로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 전하는 말씀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로 하여금 단지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먼저 그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시편 34:8,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선하심을 알려면 하나님을 맛보라고 합니다. 저는 며칠 전 어떤 책을 읽다가 이 구절이 인용된 것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간을 봐? 그러다가 그 다음 날 진짜 맛을 봤습니다. 그 맛이 어땠을까요?

계시록 10:9~10,

[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퍼뜩 머리에 떠오른 것이 시편 34

편이 다윗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왕 앞에서 미친체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시를 노래할 수 있지? 하는 난관에 부딪치고 또 조금 맛보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약간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나누고 언약한 일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난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때입니다. 요나단은 어린 다윗을 보고 자신의 청년 시절을 회상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첫 대면에 자신들이 같은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왕자인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첫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18:3,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처음에는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이 변하지 말자는 짝막한 내용이었습니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가려 할 때 이 언약이 두 번째 구체적으로 세워집니다.

사무엘상 20:16~17, (언약의 내용)

[16]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7] 요나단이 다
윗을 사랑하므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0:42, (언약의 근거와 대상)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
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
어오니라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우정과 언약으로 인
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보살핍니다.

사무엘하 9:1,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
라

사무엘하 9:6~7,

[6]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
아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7] 다윗이 가로되 무
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
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
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 후 사무엘하 2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연속 3년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원인이 과거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고하게 피 흘리게 한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주민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일곱 명을 내주어 죽이게 합니다. 이때 사울의 다른 일곱 자손들은 다 죽지만,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다윗이 보호해 줍니다.

사무엘하 21:4~6,

[4]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5]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 자손 일곱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와 뺄신 사울의 고을 기브온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7]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은 요나단의 후손을 잇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왕의 수업 19 참조).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약속 혹은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약속이 필요합니까? 보통, 사람 사이에

약속이 필요한 경우는 서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맞아서 친구의 우정을 맺은 사람이 언약까지 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삼국지의 도원결의(桃園結義)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한 이유는 서로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 때문에 그렇게 엄숙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했습니다.

남녀의 ‘결혼’은 ‘혼인의 약속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믿지 못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이혼하는 부부도 있지만 처음 결혼할 때만큼은 서로의 사랑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서로의 사랑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18장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는 20장에서 다윗이 도망가기 직전입니다.

두 언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언약은 단순한 우정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두 사람을 뛰어 넘어 후손과 가문과 미래와 영원까지 바라 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역사적으로 요나단의 후손은 보호를 받고 살아

남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씨앗을 보여주면서 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두 언약의 차이를 만들어낸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 언약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웃에서 도망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예언하는 상태에서 곧 풀려나면 다시 궁전으로 돌아갈 것은 당연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를 죽이려하는 사울의 안마당에 일부러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요나단을 만났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다윗은 도저히 이성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환영했습니다. 자신을 장군으로 임명한 왕입니다. 자신에게 딸을 준 장인이든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창질을 하고 쫓아다닙니다.

아무리 봐도 사울이 악신 때문에 미쳐서 행동하는 일시적인 광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 처한 다윗 자신이 머리가 돌 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요나단 밖에 없

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한 사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요나단을 만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냐고 묻습니다. 물론 요나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라도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이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은 모종의 계획을 시행해 보기로 합니다. 매일 첫날을 월삭이라고 하고 그 처음 며칠 동안 사울과 모든 신하들이 잔치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자리에 다윗이 나오면 사울은 다시 한 번 다윗을 죽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이 궁전에 도착했다는 소문은 퍼졌을 터이고 나중에 도착한 사울은 다윗이 성 안에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계획한대로 일부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요나단의 궁색한 변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눈치 챈 사울은 오히려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시늉합니다.

결국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요나단은 그 사실을 슬퍼하며 다윗과 미리 약속한 장소에 평소에 활 연습 하러 나가는 것처럼 어린 시종 하나만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생애에서 가장 슬픈 활쏘기를 합니다. 요

나단은 화살을 쏘면서 자신을 떠나가는 화살처럼 이제 다윗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병기 든 시종이 화살을 쏘기 위해 화살이 떨어진 자리에 제대로 도착하였는데도 요나단은 다윗과 미리 맞춘 암호로 ‘네 앞 편에 화살이 있다’고 하고 ‘빨리 달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네 말대로 왕이 너를 죽이려하는 것이 확실하니 지금 멀리 도망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병기 든 소년을 성안으로 돌려보내고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매우 슬퍼하며 두 사람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두 번 합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두 번의 언약의 차이를 기억하시죠? 첫 번 언약은 단지 두 사람 사이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의 언약은 두 사람의 후손과 미래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 두 언약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구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했고 그 의도가 확증되었을 때입니다.

처음에 두 사람만의 언약이었던 것이 나중에 두 가문의 미래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평범해 보였던 두 친구의 사랑의 맹세가 사울의 다윗을 향한 살해 의도가 확증되면서 더 큰 사랑의 맹세로 발전했습니다.

사랑의 언약도 사랑이 자라면서 성장합니다. 부부간의 연애감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신혼기분이야’라는 오래 묵은 부부는 원래 비정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없는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나 사랑해?’라고 서로 묻는 묵은 부부는 아직 덜 여문 사람들입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고 신성한 언약에 의해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부부간의 믿음을 지킨다면 그 결혼은 언약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부로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사이에도 두 번의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나중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두 번의 약속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옛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십계명과 그밖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에 근거하여 자신을 나타내셨고 백성들을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들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었고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새로운 두 번째 언약을 말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31~33,

[3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언약은 신약시대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20, (고전 11:25)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히브리서 9:14~15,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5]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이 행위나 율법이나 자신의 의로움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전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과 부활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어 의롭게 된다는 새 언약의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겠다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과 약속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신념이 선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이 약속은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도장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처음 교회 다닐 때의 신앙의 열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집안이 아무 걱정 없고, 남

편이 바람 안 피고, 자손들 일은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미운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만 그래도 꼭 참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정도는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교양과 인격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신자라도 우리의 삶에 불치병, 경제적 어려움, 실직, 취업이 안 되고, 대학 진학이 어렵고, 남편이 바람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해야 합니까?

정말 삶이 막막하고 괴로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을 등진 상태 같습니까? 화살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다른데 있다고 합니까?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까?

[39]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하나님을 믿고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과 하나님 외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우리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13,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상황을 만난 사람만 알게 됩니다. 고통의 원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을 납득하도록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갑니다. 비록 어디로 가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구름기둥, 불기둥(민 14:14)처럼 자신을 인도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자신의 고백이 다윗의 시편들과 같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요? 원인이요? 납득할 만한 설명이요? 답은 이미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증보로 뿌린 예수의 피(히 12:24)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시련을 만나더라도 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혜(약 1:5)를 간구하여 얻어서 가시 면류관 같은 경험을 통해 다윗처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약 1:12)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왕의 修業 24. “다윗과 사울③”

사무엘상 21:1~15,

[1]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2]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바 일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3]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4]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5]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삼 일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6]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 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7]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8]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므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9]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싸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10]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1]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좃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12]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 하고 대문 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영에 흘리며 [14]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2주 전에 다윗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다는 것과, 고난 받는 성도들은 자신이 다윗과 동일한 상황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위로와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두 번 있었듯이,

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계시하셨다는 것과,

②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듭남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령께서 동행하는 확증을 보여 주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고난의 과정을 겪어 가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처음 공식 등장은 마치 영화나 소설을 보는 듯한 짜릿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라클레스가 10가지 사명을 완수해 내는 것처럼 사울의 어려운 일들, 사실 다윗을 죽이려고 만든 함정들을 척척 성공해냅니다. 그가 처리하는 일이 실패한 일이 하나 없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계속 승리합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뒤끝대왕 사울이 죽이려 합니다. 이제 다윗의 초고속 성공과 마찬가지로 초고속 실패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까?

첫 번째, 자신의 모든 직위를 버려야 했습니다.

군인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 직업군인들과 대면해서 그들의 심경을 들어 본 적이 없지만, 언론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미국 직업군인들의 모습은 대개 자신들의 임무를 자랑

스러워하는 것으로 비추어 집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을 지킨다는 등등이죠.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사울의 임명으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진급을 합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다윗이 20대 초반의 나이일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학도 안 나온 청년이 어느 날 인터넷에 경제난을 타개할 똑바른 견해 내 놓았더니 언론을 통해 유명해 지고 급기야 지식경제부 장관이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된 셈입니다. 세간에 유명했던 ‘미네르바’를 놓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고 성취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절정은 아직 더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곧 군대장관이나 총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아마 다윗이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사울왕이 죽으면 다음에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냐?

그러나 사울왕의 창던지기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고대 왕정시대에는 민주주의나 국민의 주권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리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갖고 있더라도 왕이 미워하면 끝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가족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다윗은 신혼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딸 미갈은 비록 사울의 간계가 있었지만 사랑해서 결혼했고 심지어 다윗이 위협에

처했을 때 미갈의 기지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삼상 19장).

그러나 미갈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버지 사울에게 변명을 한 것을 보면 미갈이 다윗을 구해주기는 했어도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상 19:17,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미갈은 잘못된 아버지의 행동에 저항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그만 사울의 불붙는 복수심에 기름을 붓고만 격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복수심에 딸의 목숨을 위협한 악한 사위를 징벌한다는 말도 안 되는 정당성을 더 부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인간적인 애정이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갈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리고 맙니다. 즉 살아있는 다윗을 죽은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에 나누었듯이 나중에 다기 결합을 했어도 미갈이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추는 것을 비난한 후 미갈의 운명이 비참하게 결판나고 맙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망명길을 시작할 때 사실 그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사위로서 모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의지할 사람인 영적 스승 사무엘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망명을 시작하면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파국에 빠지거나 앞으로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영적 스승입니다. 아내와 헤어진 다윗이 라마의 사무엘에게 도망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무엘을 만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신이 기름부음 받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현재 왕인 사울이 저렇게 갑자기 이상하게 되어 자신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처음에 사무엘 뒤에 숨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사울이 쫓아왔고 사울이 예언까지 하는 영적 몽환 상태에서 깨어나면 사무엘이나 주변의 선지자 생도들까지 위험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침 요나단이 궁전에 돌아온 소문을 듣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모든 정황을 묻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궁에 까지 숨어들어 갑니다. 그 후로 다윗은 사무엘과 만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헤어져야 합니다.

처음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어느 보물을 얻은 것 이상으로 기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자신보다 나이는 많지만 최고의 친구입니다. 그 나라의 왕자요 용사인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종류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전폭적인 지지와 애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이, 월삭잔치에 불참한 다윗을 향한 사울의 태도를 통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진실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 많은 것들을 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아름다운 관계를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두 번에 걸친 언약에 의해 그리스도와 신자의 모습을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표다, 반대로 어느 누가 신자의 예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역사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요나단이 사울을 떠나지 않고 남는 모습은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

의 제도에 저항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충성하는 ‘남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로는 계속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사무엘상 23:15~18에서 다윗이 도망 다니던 중에 잠깐 몰래 만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크게 위로하는 시간이 있었을 뿐이고 그 후에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모든 의지할 곳을, 심지어 가장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마저 살아갈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궁을 벗어나 잠간 눈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 도움을 얻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21장의 내용 전반부에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혼자 도망한 것이 아니고 사울의 폭정에 반감을 가진 자신의 젊은 부하들 몇 명과 동행하다가 제사장을 만날 때는 그들과 잠시 헤어지거나 따로 떨어지게 한 후 혼자 만난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과거 사무엘이 어렸을 때 등장한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엘리-비느하스-아히둑-아히멜렉 혹은 아히야)

다윗은 그곳에서 거의 일 주일이 되어 딱딱하게 굳은 진 설병을 얻고 예전에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받아 가지고 다시 망명길에 오릅니다.

원래 성막에서 물린 떡은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출 25:30, 레 24:5~9) 실제로는 다윗과 제사장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율법의 근본정신인 거룩함에 위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레위기 24:5~9,

[5]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열둘을 굽되 매 덩이를 에바 십분 이로 하여 [6]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7]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8]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9]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증거하시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1~4,

[1]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2]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다시 급히 도망 길에 오른 이유는 사울의 부하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 보겠지만, 아히멜렉이 의도하지 않고 다윗을 도운 이 사건의 장면을 당시 성막에 와 있던 사울의 목자장(혹은 ‘근위대장’으로 해석 가능) 에돔 사람 도엑이 보았습니다(21:7). 그의 밑고로 놉의 제사장과 그들의 가족들 85명이 몰살을 하는 비극을 일어납니다(22:9~19).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는 사람이 사는 곳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외에 옆 나라 블레셋 밖에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가 찾아 간 곳은 가드였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예전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는 놉에서 남서쪽으로 약 37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 다윗도 어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니는 정탐꾼이 있었던지 다윗의 정체가 발각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미친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아비멜렉)가 다윗을 잡지 않고 오히려 역정으로 내어 다윗을 자신의 도시에서 쫓아냅니다.

다윗으로서는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통 영화나 소설에서는 이런 경우는 주인공이 용감하게 싸우죠. 그리고 어떤 변수가 일어나서 위기를 모면하는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경험한 후 시를 지어 찬송합니다. 그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윗을 말한다고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신당하거나 모든 신용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윗이 시편 34편을 지은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4편을 읽을 때 눈물이 쏟아지고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척한 마음이 이해됩니까? 모든 것이 절망한 사람에게는 그냥 미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차라리 미쳐버렸으면 이 고통을 잊을 텐데... 사실 사람이 미치는 것은 현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로 다가올 때 비로소 여

러분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시편 34:8,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얻어먹은 하나님의 떡 맛이 좋았을까요? 일주일이나 지났으니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곰팡이나 안 피었으면 다행입니다. 그 딱딱한 느낌이 이제 망명길에 오른 다윗의 고달픈 미래를 보여줍니다.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었습니다(출 12:9, 민 9:11).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연단하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잃어버립니다. 사람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인간관계,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물론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이 있으면 사람은 결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많은 좋은 것들, 복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 처리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맞보아 알아 나가십니까?

왕의 修業 25. “아들람굴의 다윗”

사무엘상 22:1~2,

[1]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도망 다니면서 하나하나 자신이 갖거나 누리던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가정 이 깨지고 가장 가까운 친구와 영적 멘토인 사무엘까지도 헤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라는 가요도 있고 만화도 있고, 수많은 인본주의적 긍정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유행하는 요즘 시대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기 포기’라는 말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 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답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때 한국은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한다고 온 나라가 흥분의 도가니였던 때(1987년)였습니다.

교회들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탓도 있고, 그리고 무슨 변화인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은사위주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오히려 그 색채가 복음주의(?)로 기울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과거 은사와 성령운동 위주의 순복음이 성경중심적인 복음주의로 노선을 변화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미국 기독교계에서 대중성이 있고 인기 있는 긍정주의 혹은 성공주의라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꺾대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긍정주의란 “I can do it!”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자 그러면 성공한다는 식입니다.

당시 한국교회들에서 가장 돋보였던 테마가 꿈 혹은 비전이었습니다. 그 이후 90년대 초까지의 우리나라 설교자들의 메시지 테마는 ‘꿈을 갖자,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어라’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특히 젊은 신학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 흐름을 같이 타고 갔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하나가 ‘꿈을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최근의 영화 ‘국가대표’를 보면 그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삶에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미국식 성공주의나 긍정주의가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주의나 성경관으로 보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긍정주의 신학의 흐름이 교회들을 주도하기 시작하던 때에 제가 성경적인 ‘자기 포기’를 같은 몇 명의 신학생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당시 저는 교내 출판부서의 리더로서

다른 언론부서들을 이끌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의 본문은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 못하는 야곱을 징계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자 어떤 후배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성공회 신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후배는 어느 장로교 교회 소속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후배가 말하길, 자신의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이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포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라’는 말이 웬 말이냐는 겁니다. 제가 한 설교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매우 노골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멍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구별이 안 될까? 다시 설명을 해줘도 그 후배는 자신이 교회에서 받아들인 가르침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제가 지금에야 그 후배가 이해하지 못한 이유를 짐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후배가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고 생각하는 힘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독서나 혹은 인간의 내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좀 했다면 제 설교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성경적 자기포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구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교회 청년부 전도사가 긍정주의 신학에 빠져서 기독교 세계관이 자리 잡아야 할 청년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 어리고 판단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평생 잘못된 가치관을 갖도록 만들어 버렸

습니다.

제가 이 옛날이야기를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제 후배와 똑 같은 오해를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다보면 어떤 청중으로부터 꽉 막힌 느낌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완강히 영적으로 저항하는 거죠.

성경의 내용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는 부분을 하나의 고난으로, 그리고 신자의 영적 성장과정을 그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자체가 신자의 성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이후 다윗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 수단들과 장점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에 대한 포기가 하나님 주권(主權)을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제 해석과 적용에 익숙하지 않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예로 든 후배처럼 자신에게 긍정주의 신학 같은 어떤 강한 선입견이 있지 않은가하고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교자들에게도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세상 사회나 정치, 교회들을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에서 만큼은, 말씀의 기록자이시고 해석자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시면 제

설교가 옳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① 신앙의 결과는 복을 받는 것이다.

②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③ 성공한 결과요 대형교회라면 그들이 그렇게 이루어졌기에 그들의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 설교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본주의적 가치관이고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져도, 기복주의나 성공주의로 믿어도 구원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 사무엘서에서는 둘 혹은 2라는 숫자가 그렇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범주에 이르면 야곱과 다윗이 본 마하나임이 멀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2,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사무엘하 17:24,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본격적인 왕의 수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쓰라린 고통들조차 왕의 수업의 준비과정이었습니니다.

세상의 왕들은 학문이나 정치나 궁중예법 등을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들은 면류관을 내려놓는 방법을 먼저 배웁니다. Holy is the Lord.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둘람 골로 도망하매...

다윗은 블레셋 도시 가드에서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온갖 인격적인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 자신이 진짜 미쳐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절망한 끝에 찾아 간 곳이 이스라엘과 가드의 접경지역인 무인지대, 무풍지대 아둘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 유대의 주요 지방은 차례대로 아둘람골(삼상 22:1), 십 황무지 수풀(삼상 23:14), 마온 황무지(삼상 23:24), 엔게디 요새(삼상 23:29)입니다.

아둘람(Adulam)

본래 고대 가나안 원주민의 왕도(王都)가 있었던 거대한 폐허지입니다. 그 위치는 블레셋의 가드와 유대 베들레헴의 중간 곧 가드 남동쪽 약 14km 지점이고, 그 뜻은 피난처,

은신처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아들 유다의 친구 중에 아둘람 출신 히라가 등장하는 것으로 이 지명이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창 38:1,12,20).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죽인 31명의 가나안 왕들 중에 아둘람왕의 기록도 있습니다(수 12:15). 그 후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정해지기도 하지만(수 15:35), 사울과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과의 잦은 전쟁으로 주민이 없는 무인 지대가 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이 있는 곳이 엘라골짜기 바로 옆입니다. 엘라골짜기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곳입니다. 아둘람굴이 있는 곳은 바로 그 엘라 골짜기의 동편에 위치한 높은 언덕을 가진 지형으로 요새의 역할을 하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곳으로 다윗이 다시 돌아와 처음에는 홀로 동굴들을 전전하다가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소문을 듣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요새로 만들어 나갑니다(삼상 22:1~2, 삼하 23:14~17, 대하 11:15~19).

그 후 르호보암왕 때에 건축한 국방성 중의 하나가 되고(대하 11:7),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 후에 다시 유다 족속이 거주하였습니다(느 11:30).

그 밖의 다윗의 주요 은신처로는,

마온(Maon, 주민, 삼상 23:24, 25:1)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현재의 텔 마인(Tell Ma'in).

1. 갈멜, 십과 같이 기록되는 유대 고을(수 15:55).
2. 나발의 고향(삼상 25:1).

엔게디(Engedi, 염소의 샘, 삼상 23:29, 삼상 24:1)

1. 사해 서안 중앙부에 있는 물이 풍부한 곳인데 옛 이름은 하사손다말(창 14:7, 수 15:62, 대하 20:2).
2. 주위에 종려나무와 포도원의 고벨화가 유명(아 1:14).
3. 모압인과 암몬인이 이곳에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다가 세일산인을 친후 피차 살육하여 한 사람도 남지 않음(대하 20:1~2, 23, 24).
4. 에스겔 선지자는 이곳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되겠다고 예언(겔 47:10).

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그가 아둘람에 거주할 때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과 동행하던 젊은 군사들 몇 명은 어떤 이유로 잠시 헤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바로 그 부하들인 것 같습니다.

그가 당시에 쓴 시편들을 보면 고독과 절망의 표현들이 많이 타나납니다. 시편 34편, 52편, 57편, 그리고 142편이 그 즈음에 쓰인 대표적인 시편들입니다. 57편이 때로 나중

의 엔게디굴과 중복이 되는지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시편 34편, (개역판, 개정판에는 표제가 안 나와 있습니다)

[1]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2]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4]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돌려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8]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1]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12]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13]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궤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14]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5]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6]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시는도다 [17] 의인이 외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 [19]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21]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22]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52편, (개역)

[1]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역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2] 네 허가 심한 악을 꺾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3]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셀라) [4] 감사한 혀여 네가 잡아 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5]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취하여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셀라) [6]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7]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8]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9]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시 57편, (개역)

[1] [다윗의 믹담 시, 영장으로 알다스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5]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6]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셀라) [7] 하나님이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42, (개역)

[1]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3]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
 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4] 내 우편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5]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
 나이다 [6]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
 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7]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
 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특히 142편에는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
 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142편이 아마도 다윗이 아둘람굴
 생활 초기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손에 골리앗의 칼 한 자루
 만 있을 뿐 음식도, 가구도 하나 없는 동굴원시인이 되었습
 니다.

앞으로 자신이 어찌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계약하고 거
 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미래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도
 없습니다.

다윗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잃지 않은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비록 혼란스
 럽고 두렵지만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산기도를 한 거예요.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아들람굴에서 자신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동굴 속 생활이 어떠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까? 육신의 고달픔보다도 응답 없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망한 기도자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렇게 홀로 굴속에서 살던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 몇 달, 일 년? 다윗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그 시간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영적 내면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이 왕궁이 아니라 고독의 동굴 속에서 온전히 틀이 잡혀져갔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그 기간을 감추려는 듯 빨리 그 다음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22장 1절 가운데 성경 글자 사이에 숨어있는 깊은 동굴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동굴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그곳에 있다고 깃발을 내걸 수 없습니다. 사울이 알면 쫓아올 테니까요. 그런데 소문이 몰래 퍼져서 그를 찾아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1] ...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

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별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의 부모와 형들이 자신들의 발로 다윗을 찾아 아들람으로 왔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과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아들을 찾을 때에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도 처음에는 찾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느냐는 질문에야 겨우 다윗을 생각해냈을 정도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음식을 전해주러 갔을 때 다윗이 골리앗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제일 큰 형의 반응은 다윗의 본심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완전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사울왕이 다윗을 찾아내지 못하자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온갖 협박과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이 “개는 버린 자식입니다. 왕께 충성하지 않는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다윗과 완전 결별한다고 선언하고 사울에게 충성맹세하면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향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을 세 종류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환난당한 모든 자

여기에서 ‘환난 당했다’는 말은 개인적인 고생이 아니라 당시 사울의 폭정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22장 후반부에는 다윗을 도운 죄로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 85명이 에돔사람 도역의 밀고로 죽는 일이 나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나답이 몰래 도망하여 다윗 편에 들어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사울이 기브온 백성들을 무고하게 죽인 일이 있어서 기근이 연속 3년이나 든 적도 있었습니다(삼하 21장). 이런저런 일로 사울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힘이 없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과거에 기름 부음 받은 소문이 점점 이스라엘에 퍼지게 됩니다.

2. 빛진 자

사울은 잦은 전쟁과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이 너무 강압적이었기에 백성들은 부자로부터 고리로 돈을 얻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백성들이 마지막 살 길을 찾아 다윗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3.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 치하에서 정치적 혹은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브닌나에게 갖은 모욕과 무시를 받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의 아들람굴의 모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무엘서에서 처음으로 원통이란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한나에 의해서입니다.

사무엘상 1:16,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종류의 다윗을 찾아 온 사람들이 한나의 찬송기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송기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7,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복음 1:52~53,

[52] 권세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세상에서 환난 당한 사람들이 찾을 곳은 은행이 아닙니다. 재판정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낙심한 자들이 찾을 곳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찾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찾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들람굴의 다윗을 발견할 때까지 사울을 통해 괴로움을 겪도록 놔두십니다.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가족을 떠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새 터민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가장 처절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식들은 대학에 실패합니다. 취직은 안 됩니다. 집 나간 자식이 일 년 후에 애를 안고 나타납니다. 마누라나 남편은 딴 살림 차립니다. 직장에서 당신은 퇴직하라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 희망이 사라지게도 하십니다. 신용 불량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파산하게도 하십니다. 돈 빌려달라고 전화할 때마다 상대방 전화가 끊어지게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나 자신에게 조차 의지할 어떤 것도 남아있게 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의 사울은 높은 곳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며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사울의 무덤이 된 것처럼 곧 사라질 것입니다.

사무엘상 22:6,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무엘상 31:13,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칠 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당하게 한 자들은 그 피값을 하나님이 신원(伸冤)하여 주십니다(살전 4:6, 계 18:20).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아달람굴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세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겪어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일으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다윗의 찬송처럼 그분만이 여러분의 힘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피난처이십니다.

왕의 修業 26.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사무엘상 22:3~23,

[3]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4]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6]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나 함을 들으니라 그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7]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8]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9] 그 때에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놈에 와서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11]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둡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놈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12] 사

울이 이르되 너 아히둡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
 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3]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
 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14]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
 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
 니니이까 [15]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
 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
 과 종의 아버지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16]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17] 왕
 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
 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
 어한지라 [18] 왕이 도엑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
 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엑이 돌아가서 제사장들
 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팔십오 명을 죽였고
 [19]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
 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20]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
 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21] 사울이 여
 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22]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날에 에돔 사람 도엑이 거기 있
 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

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23]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삼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적그리스도의 ‘적’이란 요즘 인터넷에서 쓰이는 ‘안티’라는 말과 같은데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란 하나의 인격체나 조직체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교회)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세력들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4번 있습니다.

요한일서 2:18,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한일서 4: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

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이서 1:7,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의 지상생애 중에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헤롯왕입니다. 그는 헤롯이 유대인의 왕, 다윗
의 자손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대한 집착이 사울 못지않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을 죽이려 공모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두 번째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지난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중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들러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돌려받
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사울의 신하인 에돔 사
람 도액에게 들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잠시 갔다가 다시 빠져나왔는
데 이스라엘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블레셋 안에도 들어가
지 못하고 두 나라의 국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아둘람 지역
에 있는 산 속 굴에 숨어 지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런 다윗 주변에 다윗
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환난 당한 자, 빛진 자, 마음이 원통
한 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서 4백 명 정도 되었습니

다. 나중에는 6백 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외가라 할 수 있는 모압 땅에 위탁시키고, - 다윗의 증조할머니 룯이 모압 출신입니다. - 다시 아둘람굴로 돌아오자 이때 합류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요새(굴)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유다 땅은 아둘람굴과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도 15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알 수 없어서 자신의 궁전이 있는 기브아에서 신하들을 모아 놓고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이 만난 사실을 도엑이 고자질합니다. 단순한 고자질이 아니라 사실을 확대해석해서 아히멜렉이 적극적으로 다윗 편에 가담한 것처럼 말합니다.

사울왕은 아히멜렉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사실을 추궁합니다. 아히멜렉은 비굴하지 않게 자신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이에 자존심에 성질난 사울왕이 도엑을 시켜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 심지어 가축까지 다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성경에서는 도엑을 말할 때마다 ‘에돔 사람’이라는 표현을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에서의 아들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뿌리는 이스라엘과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에서의 후예여서 이방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핍박한 전형적인 적그리스도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니다.

특이하게도 다윗 시대에서 천년이 지난 때, 예수님을 죽이려 한 헤롯왕도 예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고 정치공작을 해서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인 메시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예 어린아이였을 때 메시야를 죽이기로 하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가장 시기한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이방인인 로마인들과 결탁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바리새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지 진정한 이유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7:18 (막 15:10),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더라

다윗도,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도 적그리스도들의 시기심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닌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줍니다.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일가족이 몰살을 당했지만 그 와중에 간신히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도 사울의 폭정을 견디지 못하고 다윗을 찾은 사람들처럼 다윗의 세력에 참가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비극이 자기 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지고 아비아달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때는 다윗이 이미 아들람굴을 벗어나서 유다 땅 헤렛숲 속에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아히멜렉입니다. 물론 진짜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히멜렉의 비극을 통해 다윗의 입장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그야말로 애매하게 다윗을 돕다가 희생당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울을 반역하려고 한 의도도 없었고 다윗의 말만 믿고 그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끌려갔을 때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의 억지스러운 심문에도 다윗을 두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신과 행동에 당당하면서도 양심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무릅쓴 용감한 발언입니다.

[13]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

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14]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15]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버지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다윗을 도운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로운 죽음을 한 셈입니다.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애매히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모든 의로운 신자들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일족의 죽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문제를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그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죽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으로 엘리의 집안에 심판을 내리겠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대로 그의 조상 엘리의 아들들의 죄값으로 그 후손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 아히멜렉 때문이 아니라 아비아달 때문입니다.

훗날 아비아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

다윗의 다른 왕자 아도니아와 군대장관 요압의 반역에 참여해서 실패한 후 제사장의 직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2:26~27,

[26]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와 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27]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러므로 엘리의 죄로 인한 심판과 그 증손자인 아히멜렉의 죽음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왜 다윗을 돕다가, 즉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비극을 당해야 하는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왜 다윗은 살아남는데 아히멜렉은 죽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이고 아히멜렉은 재수 없이 줄 잘못 선 죄입니까?

여러분이 모두 다 다윗의 입장으로만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에이……, 모두 다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 설교를 들으면 모두 다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윗의 경험을 하고, 심지어 사울의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경험입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아히멜렉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런 입장이라고 한 번 가정해 보시죠. 옆 집에 사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오시라’고 하도 전도해서 억지로 교회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 나가서 은혜 받고 온 가족이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작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이 세상 떠나거나 평생 식물인간으로 지내야 한다면? 세상에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을까요? 이것이 아히멜렉이 되는 경우의 한 예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위험에도 처하고, 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죽기도 하고,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때로 믿음 때문에 불이익과 순교까지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더 리얼하게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교회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불나서 홀랑 다 타버렸다면? 외아들 애지중지 키워서 대학생 됐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여름방학 동안 단기선교여행 간다고 떠났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리스트들에게 잡혀서 총 맞고 죽었다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로버트 박(박동훈)이라는 미국동포 청년 선교사가 지난 12월 25일 성탄절에 북한

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배고픈 고통 보다 배 아픈 고통이 더 힘들다고 하죠? 실력 있고 능력 있는지 모르지만 남편은 어디에 붙어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공룡 코딱지만 한 지하쪽방교회에서 목회한다고 있고, 별 볼일 없었던 그 남편 친구 목사들은 교수로 불리거나 대형교회 줄 잘 서서 부목사 했다가 1,2 백 명 물려 받고, 재정력 있는 신자들이 떡 하니 교회까지 지어주고 송도신도시에서 당회장 소리 들으며 목회하고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아히멜렉입니다. 왜 아히멜렉은 죽고 다윗은 살아야 합니까? 다윗이 기름부음 받아서요? 아닙니다. 아히멜렉도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안전한가요? 이 현실세계에서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윗은 비록 힘들기는 했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아히멜렉의 비극과 연결 지어서 생각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자신을 지켜줄 어느 세력이나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뼈저리게 고독과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해를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정이 깨져야 했고, 친구를 잃어야 했고, 스승을 잃어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파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피신처가 적국인 블레셋 가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안전을 기약할 수 없었고 창피와 인격적인 모욕감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이제 머리만 구멍에 집어넣은 타조처럼 자신을 아들람 동굴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처절하게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씩 다윗의 굴에 찾아와 그와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마침 자신으로 인해 숙청을 당한 아비아달 제사장과 갓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갓 선지자는 아마도 사무엘에게서 배운 선지생도 중의 한 명이고 예전 라마 나옴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다윗과 만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람굴에 찾아와서 그 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선지자 사역을 하며 다윗을 돕습니다. 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굴속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왕의 바로 코앞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지리적으로 사울이 있는 기브아 아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비롯한 유다 땅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들람굴 보다 더 북쪽입니다. 15km 떨어져 있었는데 딱 절반 7,8km 떨어진 곳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

그러나 이미 콜리앗과의 싸움에서 교만한 성난 적을 상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반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다윗은 이미 아둘람굴에서 단단히 영적 무장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니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 혼자 목숨만이 아니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수백 명의 목숨이 자신의 말 한 마디에 달렸습니다. 사람의 계획으로는 있을 수 없지만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숲속에 자리 잡기로 합니다. 바로 그곳이 헤렛숲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성읍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 안에서는 누가 사울편인지 다윗편인지 알 수 없고 백성들은 내심 싫어도 아직은 권력 잡은 사울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울왕이 제사장들의 마을을 아예 초토화시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전국에 퍼져서 다윗을 조금이라도 협력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백성들에게 박혔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따르는 몇 백 명 외에 누구도 협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은 이전의 요새처럼 인적이 적은 숲 속에서 로빈 훗처럼 터전을 잡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적과의 거리를 벌릴수록 안전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게릴라 병사들이 정규군의 공격에서 살아남으려면 험한 지형을 이용하는 것이 병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리산 빨치산이니 구월산 유격대니 하는 게릴라들은 대부분 도시가 아니라 산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병법은 완전 반대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지역의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과 그 일행들을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사울과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은 안전하게 헤렛 숲 속에 숨어 게릴라전을 준비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23장에서는 그일라 라는 도시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겨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처지에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에 위협에 처하자 그곳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부하들은 자신들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에 블레셋 정규군과 싸우라는 명령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23:3).

그러나 아둘람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한 다윗은 그 말씀을 따릅니다. 이것이 다윗을 사울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한 유일한 차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일라에 들어갔더니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제 다윗을 다 잡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

하죠.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걸까요?

다윗은 처음에 굴속이나 광야의 요새 안에 숨어있으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밖으로 다윗과 그 일행을 몰아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인원수로, 능력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의 차이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왕의 수업 제2장입니다. 제1장은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 거리가 비록 위험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 진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그일라 백성을 구하고도 배신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 알았면서도 결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는 한나의 찬송(삼상 2:7)에 나타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히멜렉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내적 신앙의 모습이나 헌신은 모릅니다. 단지 엘리외의 증손자로 조상 때문에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의 일생에서

다윗을 한 번 도운 것이 그가 한 제일 잘 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결코 후회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자신의 주장과 결백을 사울에게 주장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의 죽음은 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기름부음 받습니다. 그렇다면 기름부음 받은 다윗과 똑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아히멜렉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다윗과 다르게 그와 그의 가족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또한 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극을 경험해야 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비극도,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비극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죽음을 가하는 사람들이 만족하도록 믿음을 배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비록 고통을 당하고 죽었지만 그들은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아돌람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순교의 피를 살아있는 제사로 받으셨습니

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하다는 말은 육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영광된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자의 안전은 아무도 모르는 무인지경에 숨어있을 때, 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사람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사람이 가장 바른 길로 갑니다.

검문검색 잘하고 엑스레이 투시로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전은 순식간에 뺨 뚫립니다. 세상에서 백악관이나 북미방공사령부(NORAD, 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ce Command)가 제일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로버트 박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북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하신 목표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자신이 망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의 할 일이나 상황이 위험하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집안에서조차 믿음으로 인해 사이가 벌어지는 일도 있다고 구약의 미가서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미가 7:6,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마태복음 10:35~36,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은 ‘생명 싸개’ 안에 보호해 주십니다.

신자들이 무조건 다니엘처럼 사자 굴에서 보호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독사에 물려도, 독약을 마셔도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간혹 우리가 착각하듯이 은사가 아닙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죽을병에 걸리면 당연히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그가 로마에서 순교하여야 할 사명이 있기에 로마로 가는 도중에 독사에 물려 죽을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5:29,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마가복음 16:18,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도행전 28:3,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를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이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신앙의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경지를 극복한 분들은 때로 갈등이 있지만 다윗이 아둘람의 안전한 요새에서 유다 땅으로, 그리고 적이 우글거리고 자신을 잡겠다고 밀고하는 배반자들이 가득한 그일라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명과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내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행하십시오. 때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싸개가 여러

분의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룬 분들은 마침내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상속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야고보 1: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
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
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계시록 3:11,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
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왕의 修業 27.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사무엘상 23:1~29,

[1]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2]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3]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리이까 한지라 [4]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5]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6]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7]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8]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9]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10]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

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대로 사울이 내려 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13] 다윗과 그의 사람 육백 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14]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15]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16]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18]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9] 그 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0]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21]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22]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23]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24]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25]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26]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27]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 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29]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두 번째 장(chapter) 즉, 사람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울의 위협에 대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사울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사울도 거들떠보지 않는 변방의 작은 도시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것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다

윗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한 유일한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이 이 아닙니다.

담임목사에게 무조건 절대 충성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입에도 담기 어려운 명령(“XX 내려”)을 여집사에게 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고, 또 집문서를 이유도 묻지 않고 순종해서 목사에게 갖다 바치는 것을 보고 목회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어느 목사의 해피망측한 발언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목사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충성이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 같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지옥행 초고속열차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은 차라리 연자 멧돌을 목에 매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마 18:6).

요즘은 건축현금 단위가 계속 높아집니다.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잘못된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는 집사들은 개인당 3백만 원이었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5백이 넘습니다. 집사가 천명이면 5,000,000,000. 5십억입니다. 그 정도면 일산이나 파주의 신개발지역 대지 200평 정도의 프리미엄 붙은 토지와 건축 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규모로는 수 천 명 교회 건축은 안 되겠네요. 결국 은행 융자를 받아야 하고, 한 달에 몇 백 만원씩 이자를 내서 은행들만 살찌게 하겠군요.

대형교회 짓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

말 생각이 있는 목사라면 그것 보다는 중간 규모의 교회를 나누어 여러 지역에 건축해서 교회를 확산시키거나, 아니면 교회 건축에 어려움에 있는 교회나 외국 선교지를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교회를 짓는 일입니다.

딱 잘라 말씀드리면, 인간이 계산이 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고 신적 권능을 받고 행하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찬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낙인찍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해도, 계산이 가능해도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도움을 바라는 때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독교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인간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자기 증명을 위해, ‘나는 적어도 이런 교회를 다니는 분이야’라고 드러내고 싶어서 신자들은 신자 역할하고, 목사들은 그런 곳에서 목회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떠드는 자들은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개중에도 참된 순진한 신자들이 있죠.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탁한 물속에서 산소를 마시려고 건디

는 물고기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산소부족으로 죽기 일보직전 영혼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신의 상태도 몰라요. 완전히 세뇌되어서 그렇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아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람굴에서 그리고 유대광야의 숲과 들에서 그야말로 야생적으로 방법을 배웠습니다. 영화 실미도의 극한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그 목표가 사람을 위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 계산 가능한 상황에서 한 번 순종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배운 순종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만약 자신이나 일행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원수 코앞에 ‘잡아 잡수쇼’하고 머리를 드립니까?

그 와중에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일족의 몰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히멜렉은 어찌 보면 순교자의 대열에 얼떨결에 끼게 된 경우 같지만 마지막의 모습은 담대하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울을 피해 다녀야 했던 다윗의 가장 힘든 시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대부분의 고난에 관한 시편들이 이때 쓰였을 것입니다.

그를 따르던 4백 명 혹은 6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큰 힘이 되고 미래를 위한 보장이 되었으리라고 짐작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현실 세상에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고 단지 살기위해 사울을 피해 다윗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훈련된 병사들이 아니라 떠돌이 잡류입니다. 한 번은 자신의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정도입니다(삼상 30:6). 그러니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가야하는 다윗의 참담한 속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들람굴을 비롯해서 유다 지경 안에 들어가면서도 계속적인 도피를 해야 했습니다. 그일라-십 황무지-마온 황무지-엔게디굴.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입장에서 다윗을 봤다면 오늘은 그렇게 도망 다니는 다윗의 입장에서 신자가 어떻게 상황에 반응하느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행동하는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7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엘로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

도다

[21]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공홀히 여겼으니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마치 입에 발린 듯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윗을 죽이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진정 찾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1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4]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오늘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대형 교회 건축, 외제차, 총회장 직분, 명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찾았으며, 특히 위급하거나 중대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사울을 피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피할 곳을 찾았지만 진정 다윗이 찾은 곳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5:11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11:1,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 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시편 16:1,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17:7,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시편 18:2,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31:1,19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19]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

시편 59:16,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시편 61:3~4,

[3]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4]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시편 62:8,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64:10,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특히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 즉 마온 황무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지은 것으로 알려진 시입니다. 이 황무지는 훗날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이 거하는 장소가 됩니다.

[1]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 꿀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7]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8]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9]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10]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11]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사울은 승리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다윗은 고난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렸습니다.

십 사람들이 다윗의 거처를 사울에게 밀고하여 다윗에게 최악의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산속까지 왔습니다. 황무지의 바위산이라 그곳에는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산에서 저산으로 도망하는 모습까지 목격될 정도였습니다. 이제 사울은 포위망을 좁혀서 사냥물이 하듯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블레셋군대가 침략해 들어왔다는 전령이 왔습니다. 전에 그일라에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는 그일라가 유다지파 소속이어서 사울이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블레셋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경지나 사울의 궁전이 있는 기브야로 직접 쳐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황급히 군사를 돌려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 잡은 다윗을 그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놓치고 맙니다.

이때 사울이 돌아간 지점을 사람들이 ‘셀라하마느곳’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셀라하마느곳의 정확한 발음은 ‘셀라하마헬레곳’입니다. 그 뜻은, 셀라가 바위라는 뜻이고, 하마느곳은 1. 미끄러움, 순탄함, 2. 분리, 구획이라는 뜻을 가진 할라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셀라하마느곳은 한국말로 ‘분리의 바위’ 혹은 ‘미끄러움의 바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던 바위산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은 그곳을 마치 산양이나 사슴이 뛰듯이 바위를 타면서 도망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된 후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22:34,

[1]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34]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의 상황은 위태로웠지만 승리했습니다. 여기의 암사슴 발은 멋진 동물의 모습을 말했다기보다 자신의 형편을 그

대로 사슴에 비유해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도망자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18편도 다윗이 사울의 추격에서 구원받은 후 지은 시입니다.

시편 18:33,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러므로 셀라하마느곳은 다윗에게 미끄러운 바위가 아니라 사울이 미끄러져서 패배하고 사라질 것을 미리 본 믿음의 바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보아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미끄러워 위험에 보이고 자신을 숨겨줄 굴이나 숲도 없는 곳을 도망하는 것처럼 마음이 조급해지고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자신의 피난처로 찾은 다윗이 승리를 얻고 결국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찾으시고 그분만을 피난처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修業 28. “견리사의(見利思義)”

사무엘상 24:1~22,

[1]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2]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 길 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4]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겹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찢려 [6]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8]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9]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10]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1]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3]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14]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15]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16]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21]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와 그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22]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見利思義 見危授命(견리사의 견위수명)

제가 이 한자를 처음 본 것은 어떤 신문에 연재되는 이문 열씨의 소설 ‘불멸’에서입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안중근(安重根) 의사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여순 감옥에서 쓴 글귀로 유명한 말입니다. 그 뜻은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논어(論語) 헌문편(憲問篇)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가 인간완성에 대해 묻자 공자가, “지혜, 청렴, 무욕, 용감, 예능을 두루 갖추고 예악(禮樂)으로 교양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에는 이익을 보면 정의를 생각하고(見利思義),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칠 줄 알고(見危授命), 오랜 약속일지라도 전날의 자기 말을 잊지 않고 실천한다면(久要不忘平生之言) 역시 인간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2010년)에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세종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하며 이 구절을 인용해서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이런 내용과 그 흐름을 같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투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일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나 안중근 의사의 유훈 등 유명 인사들이

남긴 말들이 성경말씀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
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도덕과 정
의의 관념에는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
다.

사람들의 진리탐구나 도덕적인 노력은, 비록 사람들이 죄
로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사람들의 양심에 심
어 놓으셔서 희미하게나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흉
내 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작은
파편들이 사람들의 진리탐구나 인간완성의 대상으로, 도덕적
가르침으로 변해 세상에서 논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내용은 인간의 궁극
적 도덕의 하나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견리사의는 신자의
궁극적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과
정에서 경험하여야 할 훈련의 한 과정입니다. 왕의 수업의
실전훈련입니다.

고난으로 자신의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게 된 다윗은 고
독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그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
며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훈련을 했
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으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의 하
나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를 다윗이 훈련하게 됩

니다.

24장에서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 다윗의 왕의 수업의 두 번의 수업 중 첫 번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무작정 몰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 등을 통해 힘을 주시거나 예시를 주시고 시작합니다.

아모스 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리고 그에 대한 체험은 항상 실전으로 치러집니다. 실전에 들어가고 나서야, ‘아, 그 말씀이 예시였구나’라고 떠올립니다.

사무엘상에 나타난 다윗의 경우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생략이 되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실전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 즉 지혜의 말씀들은 따로 시편에 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주시는 왕의 수업 해설서입니다.

시편 2:10,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서 사람들의 밀고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 왔다는 소식에 사울의 추격 부대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미끄러움 혹은 분리의 바위’라는 뜻의 셀라하마느곳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삼상 23:28).

이제 다윗은 그곳에서 북동쪽으로 17km 더 가서 엔게디 요새에 가서 거하게 됩니다(23:29). ‘엔 게디’는 ‘염소의 샘’이란 뜻입니다. ‘엔게디 요새’는 한 지점이 아니라 약 20여 km의 거리에 걸쳐 있는 산맥 전체를 가리킵니다. ‘요새’(메차도트)가 단수가 아닌 복수로 기록된 것을 보면, 당시에 다윗은 어느 한 곳에서 머물지 않고, 완전히 빨치산처럼 여기 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은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Power Point Presentation)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넓은 지형입니다. 그 서쪽은 유다 지방을 향해 있고 동쪽은 바로 코앞이 사해(염해)입니다. 다윗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어도 국방이 취약한 곳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암문, 모압, 에돔 등의 침략 경로로 사용되던 변방입니다(대하 20:1).

이 지역의 흙과 돌들은 조개 같은 해양생물의 잔해와 탄산칼슘이 뭉쳐서 된 석회석이 대부분입니다. 석회석은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굳으면 시멘트처럼 단단해지지만 물에 녹아들면 물빛이 뿌옇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물과 바람에 풍화된 크고 작은 석회암 동굴들이 산 전체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산맥의 중심에 있는 협곡에는 매우 유명한 폭포수와 호수가 있습니다. 이 폭포는 가나안 남부 지방의 유일한 폭포입니다. 엔게디 산맥이 염해 해발 670m 인데(염해는 지중해 보다 해수면이 약 400m 낮음) 이 폭포가 있는 곳은 염해 해발 200m 높이에 있습니다.

이 폭포수가 흘러서 작은 호수에 모인 후에 다시 염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물이 석회 때문에 뿌연데다가 수온이 30도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스라엘 국립공원으로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이 풍부하니까 주변에 야생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엔 게디’ 즉 ‘염소의 샘’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들염소 바위’로 갔다고 했는데 그 바위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폭포 옆의 벼랑 중의 한 지형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엔게디의 험악한 지형 때문에 사울의 군사 3천명이 모두 폭포 앞이나 산 중턱에 머물 곳은 없고 지금의 산 아래 넓은 주차장에 대다수 병력이 캠프를 만든 후 병력을 나누어 주요 도로를 봉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사울은 개인적인 볼 일을 보러 길가 양의 우리로 쓰이는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옛 가나안 사람들은 이곳의 야생 양이나 염소들을 잡아 기르면서 주변의 굴을 이용해서 굴 입구에 돌과 가시나무를 쌓아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목자들은 그런 굴에서 양을 지키

거나 자신들의 숙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양 우리 하나가 본문 3절에 나오는 ‘길가 양의 우리’가 그런 굴입니다.

그런 굴 우리는 가축 사육을 위해 지면에서 땅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형태였다기보다는 벼랑 옆으로 굴 옆면이 길게 터진 형태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4절의 ‘그 굴 깊은 곳’의 히브리어 원문도 ‘내부, hinder’ 혹은 ‘옆면, side’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 때문에 지표가 깎여나간 것입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폭포 옆의 굴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물에 석회암이 녹은 것입니다.

3절에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성경에는 사울이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갔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3, (개정)

길 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무엘상 24:3, (개역)

길 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원문에서 ‘가리운다’(사카크)는 말은 ‘덮다’, ‘둘러싼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용변을 보다’란 말을 둘러서 ‘발을 가

리운다’는 말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잠을 잔다는 뜻이기도 한데 본문에서는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굴 밖에서 안을 대충 훑어보고, 용변을 보기에는 무거운 갑옷과 긴 겹옷을 약간 굴 안쪽이나 옆에 있는 돌에 걸쳐놓고 자신은 입구 가까운 곳에서 용변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굴 깊은 곳에는 사울이 그토록 찾아다니던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행 6백 명이 모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일부인 몇 명 혹은 십여 명이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사울을 죽일 때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단지 그의 겹 옷 자락만 베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4]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의 부하가 한 말은 아마 갓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

을 옮겼을 수 있습니다. 그 부하가 아무런 말이나 지껄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복이 다 복이 아니듯, 진실이 어느 때는 진실이 아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구분해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해 낼 수 있는 능력은 실전과 경험으로 얻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체험하라고 여러분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은 광야로 내몰려지고 아들람굴에 처박히게 되고 그리고 엔게디굴에 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정신 좀 차렸을 때 점점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점점 잘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만납니다.

“이봐, 다윗, 네 원수다. 본때를 보여줄 기회가 왔어.” 이것이 유혹입니다.

특히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조건의 직장이 생기거나 승진의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약간의 신앙 양심적인 문제만 눈감으면 큰 이익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 때는 여러분을 제외하고 세상이 모두 다 여러분을 반대하는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심지어 이 자리의 저 자신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굴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울리는 여러 소리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 주어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사울은 무방비상태입니다. 모든 전세를 단숨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칼로 사울이 벗어 놓은 겹옷 자락만 살짝 잘라 간직합니다. 그 한 순간이 일 년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락을 자른 것조차 마음에 가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 세운 왕을 해치는 일이 옳지 않다고 하고 사울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일생의 가장 큰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사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볼 일을 다 본 후에 다시 옷을 걸쳐 입고 굴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부하들과 합류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쫓아 나가서 급히 사울을 불렀습니다.

“내 주 왕이여!” 다윗은 사울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그냥 옷자락만 자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계속 죽이려 하는 사울이 안타까워서 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괴롭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울을 불러 이 문제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자신을 오해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을 그냥 떠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사표내고 말지 뭐.’

그러나 기회가 오면 그를 한 번 용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그 방법은 결코 ‘나는 정의롭고 너 보다는 우월한 인간이다’라는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의 원수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수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다윗처럼 문제를 바라보게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부른 것은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 것과 반대로 다윗은 사울의 신하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도 그렇게 알아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신하의 예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9,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해치려고 한다는 소문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사울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한 것이 아니고 사울 자신이 먼저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사울이나 다윗 둘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며 예들려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사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윗을 가장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다윗이 자신에게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있음을 압니다.

다행히 다윗이 이렇게 에둘러 말하고 있기에 사울이 일시적으로나마 회개의 빛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걸 옷 자락을 보이면서, 오늘 자신이 사울을 해칠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기쁨부음 받은 자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 부분에서 사울을 어른에 대한 극상의 호칭인 ‘아버지’라는 호칭하며 그를 더욱 위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11절).

그리고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는 속담을 인용합니다(13절). 이것은 만일 다윗이 악한 마음, 즉 사울을 반역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를 죽이려는 악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울 사이를 심판하시되, 자기가 사울을 죽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울 왕과 자신의 사이를 공정히 판결하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15절).

사울은 이러한 다윗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도 다윗을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말합니다. 사울도 성격이 솔직하고 감정이 대단히 풍부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울은 오늘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 준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름을 아버지의 집에서 멸하지 않을 것에 대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말한 그대로 다 이행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한 후에 사울은 자기 궁으로,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의 찢긴 옷자락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유혹에 지면 우리는 자신의 맹세를 반복하는 사울이 됩니다. 원수를 쫓는 일은 죽을 때까지 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약의 ‘원수를 사랑하라’(마 5:44, 눅 6:27,35)는 말씀에 우선적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최초 율법 선언은 모세가 했습니다.

레위기 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

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32:35, (개정)

그들이 실족할 그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신명기 32:35의 개정판은 이 구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예전의 개역판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35, (개역)

보수(報讐)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 때에 갚으리로
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
리로다

(NIV) It is mine to avenge; I will repay....

(KJV) To me belongeth vengeance and
recompence;...

‘보수’란 ‘보복’ 즉 ‘원수 갚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li naqam”은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화 제작
자들이 성경을 많이 읽나 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기반으로 신약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
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

게 있으니 내가 갇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30,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갇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구약성경에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오늘날의 윤리개념으로 치자면, 자신에게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대적하지 않고 해를 가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생길 때 만약 불의한 배경이 있거나 혹은 그 이익을 취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아마 우리의 작은 자존심 문제까지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찌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왕이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라는 유일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修業 29. “일어나 바란 광야로”

사무엘상 25:1,

사무엘이 죽으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으매

저는 ‘OO의교회’가 천문학적인 재정으로 새 교회 건물을 건축한다는 데에 무조건 반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정녕 필요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2천 백억 원으로 교회를 짓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논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협소하고 불편함, 미래에 대한 비전 등...

하지만 만약, 만약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의 영광이라면, 그런 교회를 다닌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 위함이라면, 그 2천 백억 짜리라는 것도 들에 핀 꽃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 4만 5천명의 성도들은 그 교회를 다 건축한 후에는 자신이 앉아야 할 예배당 좌석에 교회 밖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전도하여 앉히고, - 원래 OO의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모였고 그것이 ‘OO의교회’라는 이름이

생긴 배경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동하여 새 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건축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OO의교회 같은 교회들이 수 없이 ‘자가복제’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것이 신약의 초대교회 정신이고 진정한 교회 건축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들은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는 격이 될 것입니다. 일인당 5백씩 건축 현금한 것이 아까워서 그렇게는 어려울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니까? 교회가 바벨탑이 되느냐 천국문이 되느냐의 차이는 동전 양면 사이만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계 여러 나라로 심지어 로마에 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 대형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너도나도 니므롯이 되고자 하는 영웅심 때문에 한 곳에 모이려는 이상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거나 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다르게 만드시기까지 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나그네처럼 흩어지고 방랑하는 것이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나 혹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부러워하는 하나님백성의 관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무슨 명품 뺨을 들고 다니느냐, 어디에 사느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부러워하고 평가 기준으로 삼는 소유와 능력, 명성, 재능을 보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는 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일한 잘못은 자질 없는 두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던 것뿐입니다(삼상 8:1~3).

사무엘은 성경에서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를 모세와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5: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물론 이 두 사람을 말씀하실 때 죄를 지어 심판받을 수밖에

에 없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겠다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겠다고 까지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평생을 탁발 수도하듯 이스라엘을 순행하면서 하나님나라의 예비를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의 베드로, 바울 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기준은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어떤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본 이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산 믿음입니다.

창세기 바벨탑 백성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유명인들의 명성과 능력만 보겠지만, 하나님나라의 백성들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고 자기를 포기하고 낮추어 살기를 원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살고 죽는 일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때로는 아무 보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사무엘도 열심히는 했지만 무언가 내세울 만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세운 것도 없고 보여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예언이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무

엘의 가르침을 깨달았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운 갓 선지자가 있고 아비가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씩 등장하는 것을 보면 결코 그 가르침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런 자세한 기록들을 생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볼 때, 성경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 가장 담담하게 표현한 대표적인 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대단해 보이는 인물들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세상의 영웅들이나 위인들의 장례처럼 무언가 있음직한 것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세상에는 마지막인 것처럼 보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이 정말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보았습니다. 그 세대 너머 그들이 바라고 추구하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기 마련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으나 때가 되어 자신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올려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누구나 다 만족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빠르고 시간은 화살 같습니다. 한 일은 없

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하고는 싶어도 능력과 기회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내려놓고 언젠가 하늘을 향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탄할까요? 얼마나 아쉽고 허전하겠습니까?

사무엘은 평생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슬퍼했습니다. 자신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사울에게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후회하고 슬퍼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 학교를 세워 선지자들을 길렀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때도 다했습니다. 그도 80,90 인생을 마치고 지상 사역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나라의 기업을 준비하는 일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과 일들을 생각하십니까? 당장 내 인생에 바벨에서 높은 대를 쌓지는 못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성공을 하지

못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바라는 대박, 형통, 성공,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높은 눈, 그리고 낮은 무릎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무엘의 죽음 이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절입니다.

일어나 바란 광야로

사무엘이 죽으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우리는 사무엘상 2장의 하나의 기도찬송이 사무엘서의 정신을 말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구절들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보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런데 7절보다 앞선 한 구절에는 그 사상과 함께 또 다른 의미를 하나 우리에게 먼저 시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
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 사람의 때가 지나면 다른 사람의 때가 옵니다. 한 사람
이 지나면 다른 사람의 시간이 됩니다.

사무엘상 25:1의 ‘일어나’(kum)가 사무엘상 2:6의 ‘높인
다’(alah)와 같은 원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습
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죽음을 듣고 사울을 피해 갔던지 아니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주둔지를 옮긴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의 훈련코스 제4장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가장 남쪽 지경인 바란 광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바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바란 광
야 여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도 없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 행적이 비밀에 싸여 있
는 것처럼, 성경은 다윗의 바란 여정에 잠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17,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란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 땅 중간의 고원(해발 6~7백 미터) 광야지대입니다. 그 중심은 가데스바네아입니다.

우리가 비록 바란 광야의 다윗의 여정은 알 수 없으나 그곳에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충분히 성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민족에게 바란 광야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바란 광야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쫓아낸 이스마엘을 살았던 곳으로 나옵니다(창 21:21).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인상 깊게 기억 남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열두 정탐꾼을 보낸 곳(민 13:3)으로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고 다시 긴 여행을 합니다. 성막과 법궤를 앞세우고 각 지파별로 큰 무리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머문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이 기록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10:11~12,

[11]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12]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 제목은 “광야에서(베미드바르)”입니다.

니다. 시내광야를 떠난 후, 바란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반복 되는 역사들을 수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첫 구절은 우리말 성경과 약간 순서가 다릅니다.

개정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이 본문에서는 영어번역판이 오히려 히브리어 원문과 비슷합니다.

KJV:

And the LORD spake unto Moses in the wilderness of Sinai,

‘말씀하셨다’가 민수기의 첫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광야’라는 히브리어 ‘미드바르’와 ‘말씀하다’는 뜻의 ‘다바르’가 앞의 ‘멤(m, mem)’이라는 알파벳 하나 차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매우 놀라운 표현입니다. 바로 그 광야가 이스라

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대부분의 시간, 38년을 보낸 바란 광야입니다.

이 바란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은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으로 선발된 열두 명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민수기 13:3,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 된 사람이라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입니다. 각 지파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사람들입니다. 수 만 명 중에서 선발되었습니다. 각 지파의 명예와 운명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탐한지 40일 만에 돌아 온 이 12 사람들의 보고가 두 가지로 결론이 나는데 그 비율이 10:2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민수기 13:23~33,

[23]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24]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 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25] 사십 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27] 모세

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열 사람은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미 강하고 많은 수의 원주민과 심지어 거인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요즘말로 하면 현실을 보라고, 실적을 보라고, 주변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똑 같은 현실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들 12명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단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습니다.

민수기 14:36~37,

[36]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37]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8]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의 증보 때문에 당장의 죽음은 당하지 않았지만 10명의 보고만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이 다녀 온 40일의 날 수대로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나머지 38년을 그 광야에서 자신들이 다 죽을 때까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단지 당시 그들의 20살 미만의 자손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말씀을 듣는 일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속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훈련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 때문에 38년을 그곳에서 고통 속에서 보내며 자신들의 불신의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바란 광야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광야에서 얻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속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십니다.

왕의 修業 30. “왕 같이 그리고 왕답게”

사무엘상 25:2~44,

[2]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오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 털을 깎고 있었으니 [3]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던라 [4]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 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5] 다윗이 이에 소년 열 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6]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7] 네게 양 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8]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9]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10]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즈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12]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

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13] 다윗
 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사백 명 가량은 데
 리고 올라가고 이백 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14]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
 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15]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
 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16]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
 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17] 그런즉 이제 당
 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
 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18] 아비가일이 급히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
 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붉은 곡식 다섯 세아
 와 건포도 백 송이와 무화과 뭉치 이백 개를 가져다가 나
 귀들에게 싣고 [19]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
 지 아니하니라 [20]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그들과 마주치니라 [21]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
 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서 나
 의 선을 갚는도다 [22]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
 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 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3] 아
 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었

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 그가 다윗의 발에 엎
 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
 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
 을 들으소서 [25] 원하옵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
 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 내 주여 여호와
 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
 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
 를 원하나이다 [27]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 주의 여종
 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
 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30]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
 도자로 세우실 때에 [31]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
 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
 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32] 다윗이 아비가일
 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
 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3]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34]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 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35]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36]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37]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갠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39]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40]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41]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42]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43]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44]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부자(富者)라는 의미는 단지 소유가 많아서 부자만이 아닙니다. 선업(善業)을 많이 이루는 자도 도덕적인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은 자도 학문의 부자입니다. 또한 사람 됨됨이와 인품에 의해 인격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분야의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한 가지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 소유의 부자는 가장 낮은 부자에 속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물질의 부자를 다 원하고 동경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파멸시키기에 가장 좋은 부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9:22~24,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나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발이라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어리석다’는 뜻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본명

이 아니고 별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큐가 떨어진다는 뜻이라기보다 판단력이 현명하지 못하거나, 재물의 소유와 권세의 유무로만 사람을 보는 선입관으로 인격과 머리가 굳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현명하지 못하거나 어떤 분야에는 보통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똑똑함이 남들을 잘못 평가하는 우를 범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재물의 부유함이 세상과 사람을 잘못 판단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정상(頂上)에 오른 사람일수록 그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머리가 매우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철학박사인데도 인사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나발을 묘사하는 본문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유독 눈에 띕니다. 한 번은 하인이 아버가일에게 말을 할 때, 또 한 번은 아버가일이 다윗에게 말 할 때입니다.

사무엘상 25:17,25,

[17]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25] 원하옵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

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사무엘상 2:12, (개정)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개정판은 그냥 ‘행실이 나쁘다’라고만 의역해서 번역했고, 예전의 개역판에서는 ‘불량자’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벨리알의 아들들’(sons of Belial)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알’이란 ‘무가치함, 악’을 의인화한 명사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상 2:12에서 엘리의 두 악한 아들들을 표현한 단어였습니다.

사무엘상 2:12 (개역),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즉 나발은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종류의 하나님을 경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비가일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비가일은 외모뿐만 아니라 현명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행한 것이 있었으니, 결혼의 상대자가 어리석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재산밖에 가진 것 없는 나발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거의 주권을 가질 수가 없었기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만 짐작할 뿐입니다. 동기야 어떻든 현실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자신의 소유로만 세상을 보는 가진 자들도 있지만, 그 권세 아래에서 할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러나 현명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의 각 조직체의 머리가 되는 대표들이 현명하다면 좋겠지만, 세상에 남편이 맘에 드는 아내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거의 모든 사회 조직체들이 나발과 같은 지도자들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직원들이 생고생과 속앓이를 하면서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북한의 국민들이 살고 싶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김정일과 그 일가들, 그리고 그 권세에 빌붙어 기생하는 권력자 몇 뿐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선진국으로 이민가고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자녀교육입니다. 선진국의 교육을 아는 사람들은 한국의 학교 교육이 얼마나 엉망인지 잘 압니다.

한 번은 영어를 가르치다가(먹고 사는 일로 바울처럼 천막은 못 지어서 학원 일을 합니다) 어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truly dangerous’를 해석해 왔습니다. 어떤 환경문제 때문에 ‘~가 정말로 위험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진실하게 위험한.’ 어찌면 좋아! 영어보다 한국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찌다 발견한 일이 아니고 늘 이런 현상을 보아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의 글 쓰는 필체는 심봉사가 지팡이로 휘두른 모양입니다. 영어보다 한글을 못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를 보고 한글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글씨가 엉망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산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학생만의 문제뿐입니까?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분들, 교육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리석으면 그 전체 소속원들이 고생바가지입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가일은 그런 잘못된 남편 밑에서 숨어 지내는 믿음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지혜를 주십니까?

베드로후서 3:14~18,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

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곤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은 잘못되고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날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잘못된 조직이나 그 고통에서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아버가일이 그랬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결혼 생활이라도 이혼이 능수가 아닙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낸다는 것이 요즘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과 지혜를 사모하여 자신을 영적으로 정결하게 유지하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12~19,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 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자 집에서는 여전히 나발이 잔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까? 36절에 보니,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와 세계에 취해 있었습니다. 마치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왕이 잔치할 때 손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는 괴기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눈으로 글씨를 보고도 어느 누구도, 심지어 나라의 학자들도 그 글을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했을 때 다니엘만이 해석하여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다니엘 5:8,

그 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 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 알려 주지 못하는지라

다니엘에게 그 글자를 해석하라고 그때만 갑자기 하나님 이 지혜와 계시를 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글자들을 판독할 수 있었던 능력은 그때에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았던 태도와 삶에서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글자들을 읽을 수 있었다하더라도 전체와 역사를 바라보는 지혜가 없었다면, 그리고 목숨을 걸고 왕이 심판받을 것을 말할 믿음이 없었다면 그 글을 해석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주인공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그는 24장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유혹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쁨 부음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팔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팔이 물론 다윗을 푸대접하고 다윗이 도와준 일에 대해 무시한 잘못을 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다윗이 유명한 장군 출신이 아니고 평범한 백성이었어도 그렇게 사람을 대접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에 완전히 자

존심이 상하고 당연히 징계를 해도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말을 몰고 달려가는데 도중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현명한 충고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관습적으로 보면 다윗의 행동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말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말을 최대한 겸손히 다윗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 다윗에게 당장 필요한 막대한 양의 음식으로 다윗의 처음 결정을 돌리고 맙니다. 26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26]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7]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30]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

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은 그 지혜로 사무엘서의 핵심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동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 정신을 훈련받았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아마 혼이 나갈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그는 세상의 관습이나 법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임을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큰 실수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영혼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처지와 인생의 고달픔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죽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칭찬하고 두 사람은 맺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혹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

신의 백성들이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는 다윗처럼 왕답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입
니다.

참고: 다윗의 아내들

메랍(삼상 17:25, 늘어난다). 사울은 약속을 어기고 메랍
을 므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었고(삼상 18:19) 그 아
들 5명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함(삼상 21:8)
미갈(누가 하나님 같으랴). 사울의 작은 딸(삼상 14:49).
아비가일(내 아버지의 기쁨). 본래 어리석은 부자 불량한
사람(잡류) 나발의 아내였던(29:14) 아비가일은 나발이
죽자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25:39~42). 다윗의 아들들
다니엘(대상 3:1~9)과 길르압(삼하 3:3)을 낳음.

아히노암(내 형제는 아름답다). 이스라엘 여자. 암논을 낳
음(삼상 25:43, 삼하 3:2)

마아가. 그솔왕 달매의 딸. 첫 번째 반역자요 제3왕자인
압살롬의 어머니(삼하 3:3)

학깃.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넷째 아들이며 반역자인
아도니아의 모친(삼하 3:4)

아비달. 아버지 하나님은 이슬이다. 제5왕자인 스바대의
모친(삼하 3:4, 대상 3:3).

에글라(젊은 암소). 이드로암의 어머니(삼하 3:5, 대상
3:3).

이상,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릴 때 자식을 낳은 여인
밧세바(맹약의 여자). 가나안족 헷사람 우리야의 아내.
(삼하 11:3, 12:24).

아비삭(내 아버지는 나그네된 방랑자). 동정녀.

기타 10명의 후궁(삼하 16:20~23, 20:3). 압삼롬의 반역 때에 더럽힘을 당함. 평생 과부로 지냄(삼하 16:20~23, 20:3).

왕의 修業 31. “두 길을 가는 사람들”

사무엘상 26:1~25,

[1]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2]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3]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 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4]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5]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 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벨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 쳤더라 [6] 이에 다윗이 헛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7]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9]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1]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 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13]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14] 다윗이 백성과 벨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15]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16] 네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17]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 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나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18]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19]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와 기름에 참

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하니라 [20]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
 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21]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
 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22] 다윗이 대
 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
 가게 하소서 [23]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
 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 오늘 왕의 생
 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
 다 하니라 [25]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대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
 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
 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시몬(Jeshimon)에서

다윗의 도피처가 된 하길라산이 있는 광야는 성경에서 '여
 시몬'이라는 고유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시몬은 '광야'
 라는 뜻입니다.

여시몬이라는 고유명사는 구약성경에서 두 곳을 말합니다.

하나는 민수기 21:20과 23:28에 나오는 ‘광야’입니다. 사해(염해) 북쪽에 있는 거친 광야입니다. 이곳의 브올산에서 발람이 이 광야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염해 서쪽 유다지과의 땅에 있는 거친 광야입니다. 이 광야 끝자락에 하길라(검은 빛)산이 있고 이곳에 다윗과 그의 600명의 사람들이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글 번역판 중에는 새번역판, 공동번역판 등이 여시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영어판은 KJV).

민수기 21:20(새번역),

바못을 떠나서는 비스가 산 꼭대기 부근,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모압 고원지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 ㉠히, '여시몬이'

민수기 23:28(새번역),

발락은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브올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 ㉠히, '여시몬이'

사무엘상 23:19(새번역),

십 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24(새번역),

이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 광야로 떠나갔다. 이 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

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무엘상 26:1(새번역),

십 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 ㉠또는 '황폐한 땅 맞은쪽'

사무엘상 26:3(새번역),

사울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 속으로 들어가 길 가에
진을 쳤다. 이 때에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
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이 유대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
습니다.

마태복음 4: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
으러 광야로 가사

이곳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낮추게 하는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다윗이 머물면서 왕의 수업 다
섯 번째 장을 시작합니다.

이 광야 부근에 살던 십 마을의 사람들이 23장에서 유다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했듯이
(23:19), 지금도 다시 한 번 사울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사울은 24장에서 엔게디굴에서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한 맹세를 어기고 다시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숨어 있는 하길라산 아래에 있는 도로에까지 왔습니다.

이 장면을 다윗의 정탐꾼이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시간은 밤이 되어 하루 종일 행군한 사울의 병사들은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 잠을 잡니다. 자신들의 수적 우세만 믿고 경계도 허술히 했습니다. 이 깊은 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12절).

다윗과 그 부하이며 다윗의 사촌인 아비새 두 사람만이 그 노숙하는 진 한 가운데로 몰래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군사들이 좌악 누워있는 한 가운데에 몰래 잠입한 다윗과 아비새만이 서 있습니다. 그들 바로 옆에 사울이 누워있고 사울의 창이 땅에 꽂혀 있고 그가 마시던 물병이 놓여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소곤소곤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아비새가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가 사울왕을 죽이는데 사용하겠다는 창은 바로 사

울왕이 머리맡에 꽂혀있는 사울왕의 창입니다(영어성경 NIV에서 아비새가 ‘my spear’라고 하는데 의역입니다. 원문에는 ‘my’가 없습니다). 이 창은 사울 왕권의 상징입니다. 큰 나라의 왕이나 황제들은 창 대신 화려한 왕홀을 사용하지만 왕국 초기의 사울은 실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긴 장창이 아니고 짧은 길이의 투창용 창(javelin)입니다.

사울이 기브아산 높은 곳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신하들에게 호령할 때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삼상 22:6).

사울은 궁중에서 이 창을 늘 옆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고, 다윗을 위한 충언을 하던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려고도 했습니다(삼상 18:10~11, 19:9~10, 20:33).

한 때 다윗의 목숨을 두 번이나 노렸던 그 창이 지금 다윗을 추격하다가 잠이 든 사울의 머리맡에 꽂혀 있습니다.

다윗을 위협하고 사울의 왕권을 상징하는 사울의 창이 사울 자신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살짝 뽑아서 다시 사울을 향해 내리 찍으면 모든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왕이고 그 폭정으로 인해 백성들의 인심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지도자를 대신할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역사상 오래전에 쿠데타가 일어났어도 별

써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불의한 지도자를 물리치고 일어나면 방법이 어떠하든 권력을 쥔 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혁명이니 의거니 의로운 행동이었다고 역사에 남기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2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았음을 다시 말합니다. 그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것이라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몇 번이나?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두 번이나 발생하고 또 기록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무엘서에는 두 번 혹은 2이라는 숫자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번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과정 중에 이 땅에 살면서 인생과 역사라는 시간과 공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구원 받으면 그 즉시 천국백성이 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과 죄와의 싸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훈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의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등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란 평생이 걸리며 그 성화의 완성은 어느 때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화의 목표는 신자를 단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원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왕의 수업’을 거치는 과정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화의 과정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제가 사무엘서를 보는 관점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왜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비슷한 상황에서 살려주는 일을 다윗에게 허락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이 답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보다 더 귀한 답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24장에서 엔게디굴에서 불 일 보던 사울의 옷깃을 칼로 잘라낸 것조차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께 판단이 되어서 다윗이 한 번 더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아마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이라는 숫자가 성화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고통을 받았는가? 나는 이 사람 때문

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심지어 거짓으로 미친 흉내까지 내야만 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살려준 일도 있는데 다시는 나를 쫓지 않겠다고 서로 맹세까지 했는데 이자가 먼저 약속을 어기고 다시 군사를 이끌고 왔다. 이제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맡기셨다는 뜻이다. 이렇게 군사들이 멋모르고 깊이 잠에 빠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같이 간 부하 아비새 마저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니 나중에 잘못된 소문이 돌아도 자신은 책임을 면할 방법도 되는 것입니다. 정말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이럴 때 권력을 쫓는 자들은 대개 아무 말 안 하고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자들이 권력자의 속망을 헤아려서 충성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지도자 다윗은 또 어리석은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그는 24장에서 첫 번째로 사울을 살려주고, 25장에서 나발을 죽이려는 실수를 할 뻔합니다. 다행히 아비가일의 현명하고 겸손한 질책으로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기름부음 받은 사울뿐 아니라 자신에게 대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왕의 수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자에 대해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한번쯤 용서해서 인격자의 관용을 보여주고 그래도 기어 올라오면 처절한 복수를 합니다. 아니 요즘은 아예 남들이 자신에게 접근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려야 자신이 살아남는 생존경쟁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2010년) 자신의 연봉만 10억인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남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인은 대기업 임원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서운 세상의 생존경쟁에서 남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섰겠지만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인격적으로 남들을 용서하고 양보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리석은 그런 일을 두 번이나 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21~22,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랑을 훈련시키신 것

입니다. 다른 신약의 구절을 보시죠. ‘복수는 나의 것’ 기억하시죠?

로마서 12:17~21,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쏘아 놓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마 삼성의 그 부사장이 이 성구를 알고 깨달았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2:15~16,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지난 주 보신 영화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으시는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사탄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봤자 인간들에게 아무 쓸데없다고, 그리고 쉬운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그 고통의 길을 가려느냐고 질문합니다. 매우 논리적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길을 가셨습니다.

두 길을 가는 사람들

사울을 살려준 다윗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울과 그 군대를 소리쳐 깨웁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다는 증거물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쫓지 말도록 간청합니다. 사울의 권력과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의지의 상징이기도 한 사울의 창을 돌려주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 다윗 자신이 얼마나 피로움과 고통을 겪었는지 간접적인 표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할 때, 사울이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핑계 들었습니다. 실제 다윗을 죽이려는 의지를 갖고 행동한 사람은 사울뿐임을 사울도 다윗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있지도 않는 다른 사람들의 모함 이야기를 들칩니다.

사무엘상 26:19,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와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하니라

물론 이 이야기의 목적은 사울이 자신의 판단을 쉽게 되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다윗 자신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을 충동하여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사울이 왕이라서 사울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사람들의 말이라고 둘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은 다윗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백성으로서 수년 동안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로도, 심지어 블레셋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권세가 있는 땅에서 산다는 것은 약속의 민족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택할 밖에 없는 다윗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7장에서 다시 블레셋 가드로 다시 달아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의 진실을 듣고 사울은 다시 감격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무 솔직하여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21절입니다.

[21]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24장에서도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만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다윗에게는 ‘끝없는 사랑의 훈련’이라면, 사울에게는 ‘두 번의 회개 기회’입니다.

사울은 이번에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만 결국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을 계속 할 수 없었기에 사울의 추격전이 멈춘 것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회개할 때 어떤 말들을 사용할지도 잘 압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등등. 그러나 그것이 말로만 끝난다면 사울의 회개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은 두 번의 이상한 만남 때마다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말로 24장과 26장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4:22,

...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상 26:25,

...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두 사람의 다른 길이 영원히 다른 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 권력을 쫓고 싹을 잘라버리는데 열심이었던 사울왕입니다. 그는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고된 왕의 수업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그도 왕이 되었을 때, 때로 죄를 저지르지만 단호한 회개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스리는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당분간 계속 왕이고 권세를 휘두를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자신의 산속 은신처로 돌아갔습니다. 순식간에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마치 하늘이 준 것 같은 절호의 기회를 버리고 여전히 고달프고 기약할 수 없는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훗날의 그들이 각자 선택하여 걸어간 길의 끝은 얼마나 다를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내가 반드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만 하는 길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길 바랍니다.

사무엘서의 해설서가 시편입니다. 그중 시편 18편에 이런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게 한 다윗의 내면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고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속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4] 사망의 줄이 나를 엮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7]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으로다 [8]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9]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캉캉하도다 [10] 그름을 타고 다니심이여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11]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 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백백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12]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백백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렛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14]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흠으심이여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

도다 [15] 이럴 때에 여호와와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16]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7]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18]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9]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20]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1] 이는 내가 여호와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3]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2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25]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27]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28]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29]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30]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31]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2]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3]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

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4]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낫 활을 당기도다 [35]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6]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37]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38]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39]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40]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 버리게 하셨나이다 [41]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42]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 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의 진흙 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43]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룸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4]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여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45]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어져 나오리로다 [46] 여호와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7]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오다 [48]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49]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50]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
과 그 후손에게로다

왕의 修業 32. “나쁜 왕, 이상한 왕①”

사무엘상 27:1~12,

[1]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육백 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4]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5]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6]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7]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일 년 사 개월이었더라 [8]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9]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10]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겍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겍과 겐 사람의 네겍이니이다 하였더라 [11]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12]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어제(2009년 12월) 뉴스에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5일에 북한의 비참한 인권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김정일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갔던 로버트 박(박동훈) 씨가 북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하고 석방되었습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의 한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왔고 곧 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를 석방한다는 이유와 그가 했다는 인터뷰 내용이 저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로버트 박의 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입북 동기가 “서방의 그릇된 선전 영향을 받아 조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된 데 있다.” 또 그가 국경을 넘을 때는 총에 맞아 죽거나 감옥에 끌려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군인들만이 아니라 공화국(북)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가 인권을 보호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들을 아직 보지 못했다. 나의 건강에 대해 부모 이상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평양 봉수교회 예배에 참가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

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창피를 느꼈고, (북한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로버트 박의 발언이 당연히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 아닐지라도 고문이나 어떤 협박에 굴복해서 그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좋은 의견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 먼저 사이트 주소만 알려드립니다.

인용: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16401§ion=section20

“로버트 박, 북한인권운동은 이제부터다” - 로버트 박의 석방을 축하하면서, 부활의 당부 하나. 조영환 편집인(올인코리아)

지난해 12월 25일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인권개선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무단입북했던 로버트 박(자유와 생명 공동대표)이 43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2월 6일 오전 고려항공 편으로 북경(北京) 수도(首道) 공항에 도착했다고 한국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몸이 상했지만, 죽지 않고 돌아온 것은 참으로 축하할 일이다. 로버트 박은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잠깐 모습을

비쳤으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많이 지친 표정이었고, 고개를 떨구는가 하면 시선을 아래로 깔면서 취재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한다. 입술이 부르텨올 정도로 로버트 박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시달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박씨는 북경의 수도공항 제2터미널에서 주중 미 대사관이 제공한 차량으로 제3터미널로 향했고, 미 대사관 측은 박씨의 향후 행로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았으나, 3터미널에서 대기했다가 곧장 미국행 비행기 편에 탑승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2월 5일 조선중앙통신이 로버트 박을 석방시켜준다고 보도한 하루 뒤에 전격적으로 풀려준 것이다. 로버트 박은 북한에서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창피를 느꼈고, (북한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은 로버트 박을 대외 정치선전용으로 역이용하려 했다. 북한에 종교자유가 있다는 로버트 박의 말 자체가 허구적이다.

이런 로버트 박의 모습에 "로버트 박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세뇌나 고문을 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로버트 박과 함께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일해온 글러벌정의네트워크의 조성래 대표는 조선중앙통신의 발표는 로버트 박의 주장이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로 북한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로버트 박이 행한 모든 언행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모두 북한 당국이 요구한대로 정치선동용 언행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진단일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정치적

사건들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조작된 정보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 행한 모든 로버트 박의 언행에는 일체 자발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성래 대표는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외용 선전 매체로서 그 진실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로버트 박에 대한) 비디오나 오디오 자료도 없고, 로버트 박이 실지로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며, 허위 사실 유포로써 로버트 박의 진실을 심대하게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 주의와 시정을 요청한다"고 5일 동아일보 앞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 기자회견 전에 조성래 대표는 "로버트는 북한에 굴복하지 않고, 북한의 회유와 협박에 당해서, 그의 진정성은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올인코리아에 밝혔다.

조성래 대표는 "로버트 박은 역시 조선중앙통신 인터뷰를 통해 사랑과 용서, 화해의 메시지, 특히 그가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와 감사를 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 종교의 자유 문제, 체제 문제 등을 용서하고 허용하는 메시지로 둔갑된 것은 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남한의 언론들이) 받아서 전달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전하고자 한 사람의 진정성을 짓밟는 것과 같다"며,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편의대로 해석하여

로버트 박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육체적으로 생환한 로버트 박의 대북 인권운동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로버트 박은 북한에서 김정일 집단이 원하는 모든 언행을 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로버트 박은 인간적으로 많은 한계와 모순을 북한 당국에 남겼을 것이다. 미국에 돌아간 로버트 박은 이제부터 인간의 약함을 깊이 명심하고 다시 북한동포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서 목숨걸고 싸워야 할 것이다. 수백만 명을 굶겨죽이고 수십년은 세습독재를 해온 김정일 집단의 악마성에 대해 과소평가한 자신의 종교적 낭만성(naivete)을 반성하고, 자신이 믿은 신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실수와 한계를 모두 털어 내어놓고 북한인권운동을 다시 하게 되면, 훨씬 더 폭발적인 북한동포의 해방을 위한 인권운동가가 될 것이다.

로버트 박은 '가룟 유다가 되느냐' 아니면 '베드로가 되느냐'의 기로에 오늘부터 서게 되었다. 고립무원 상태인 북한에서 행한 그의 행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로버트 박은 북한에서 어떻게 자신을 다뤘는지를 이 세상에 공개하고, 예수를 세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인류에게 던져준 반성의 위대함을 교훈삼아 부활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어떤 몫쓸 언행을 해도 모두 용서될 수 있다. 북한의 사악함을 잘 폭로하는 것이 로버트 박이 진인(眞人)이 되는 길이다. 죽음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인간의 한계는 결코 죄악이 아니다. 자신이 스스로 김정일의 악마성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착각한 점을 정의와 자비의 신 앞에서 반성하

고, 이제부터 북한의 악마성을 진실하게 폭로하기 바란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세번 부인하고도 위대해진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도덕적 약함에 실망해서 북한의 회유와 협박에 침묵하면, 로버트 박은 가룟 유다가 될 것이다. '하느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북한으로 무단 입국한 로버트 박은 이미 충분히 위대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있었던 모든 인간적 약점을 무시해도 된다. 자신의 북한 행적을 일체 무시하고 다시 북한인권 운동을 하기 바란다. 북한에서의 모든 언행은 죽음 가운데서 벌어진 것으로 책임지지 않을 언행임을 로버트 박은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더욱 힘차게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기 바란다. 가장 먼저, 북한에서 자신이 저지른 실족과 한계를 모두 당당하게 인정하면서, 북한의 회유와 협박을 폭로하라. 그것이 진짜 북한 인권운동의 첫출발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다윗에게서 로버트 박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심지어 다윗에게서 당황스러움, 배신감을 느끼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만지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아마도 다윗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비록 고단하고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었지만 그를 하나님나라의 왕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알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어려운 시험의 때를 이겨나가기도 합니다. 고독과 싸웠고, 사울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가능했던 일들이 점차 일행의 숫자가 많아지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과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그 자신도 변해갑니다.

첫 번째로 나발의 문제에서, 그가 아마 혼자였다면 자신만 음식을 구해서 먹으면 될 문제이기에 문제의 발단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인원만 600명에 그에 딸린 식솔들까지 아마 천 명이 넘을 인원을 광야에서 먹여 살리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생사 수많은 어려운 고달픔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발의 문제가 터지죠. 하지만 이 문제도 아버가일의 도움으로 결국 이겨냅니다.

훗날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두 번의 큰 범죄를 짓습니다. 하나는 밧세바를 얻기 위해 자기 부하인 우리아를 죽인 일(삼하 11장)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힘을 측정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한 일(삼하 24장)입니다.

그밖에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자식들에 대한 우유부단하고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와 매사에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그의 약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감상적이고 나이브한 태도가 그의 인생의 끝까지 자신의 발목을 잡는 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상한 왕’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윗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윗의 이런 개성이 싫다는 말이었습니다. 때로 즉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때로는 철부지 같이 행동합니다. 부모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막내들이 대체로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저 같이 딱 막힌 장남들은 이런 자유로운 감성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런 성격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의 몇 가지 중대한 잘못을 발견하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했는지는 몰라도 제게는 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겉으로만 보면 그 친구는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나 어떤 단체의 입장에서 어떤 대상을 미워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념이나 주장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미움 혹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 대상이 역사적으로 정당한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전 세계를 전쟁과 살육으로 몰아넣은 히틀러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과 유럽을 지배한 최고 권력자로 권세를 누렸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누군가가 여전히 남들

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위선적인 면을 감추고 세상에 당당히 살아갈 때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혼란스럽고 이상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대단한 신앙의 인물들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범주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단지 그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주일학생들이 마침 같이 예배드려서(연합예배)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어른들 가운데 오늘 제 설교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애들 보는 만화책도 단순한 선악대결, 권선징악으로만 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애들도 세상이 선악으로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는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마징가 제트나 로봇 태권브이가 아수라백작 같은 악당들과 싸웠다면, 요즘에는 건담,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도 주인공의 선악이 구분 안 가는 세상입니다. 개구리중사 케로로에 악당이 안 나와도 애들은 다 이해합니다.

저는 제 마누라랑 몇 년 전 처음 캐리비안 해적 1편을 보고 나서도 주인공이 잭 스패로우(조니 뎀)인줄도 몰랐어요. 반지의 제왕에서 잘 생긴 요정으로 나오는 이 사람(올란드 볼룸)이 주인공인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 둘째 게릴

(girl의 사투리) 후란이가 고등학교 때 잭 스페로우를 열심히 그리는 겁니다. 그걸 고개 너머 보고 ‘그 나쁜 녀은 왜 그리니?’ ‘그 악당이 주인공이라니?’ 요즘은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요즘 영화나 막장 TV 드라마에도 누가 악하냐, 선하냐로 대립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은데도 여러분들은 즐겁게 보시잖아요? 애들 만화영화나 TV 드라마를 이해하실 수준이면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누구를 본받으라. 누구처럼 믿으라!’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 애당초 성경 자체도 윤리교과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윤리적인 면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왕

다윗은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디다. 그러나 사울을 이어 곧 왕이 될 사람이기에 ‘나쁜 왕’인 사울에 대응시켜 ‘이상한 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그가 저지르는 큰 실수로 꼽히는 일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다윗이 정말 의외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최대의 혼돈의 세월, 1년 4개월로 몰고 갑니다. 마치 로버트 박이 말했다는 보도내용(진심은 아니라도)을 보고 놀라는 것 이상으

로 우리는 다윗의 태도 변화에 놀랄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바로 몇 년 전 사울로부터 망명길을 시작했을 때 처음 도망간 블레셋 땅으로 움직이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강해, 주석, 설교들이 백이면 백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결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걸려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로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해석자들은 다윗이 1년 4개월의 이 시기에 그가 시편을 하나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측입니다. 150개 시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73개입니다. 그 시편에 붙은 제목(표제)만 보고 짐작할 뿐입니다. 그 시기에 지었다는 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목이 없다고 그 때 전혀 시편을 짓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 이론대로 다윗이 그때 시편을 짓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다윗의 영적 상태를 증명하는 일이 사실 어렵습니다.

설혹 그 시기 동안 다윗이 영적으로 둔해졌고 윤리적으로도 거짓말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해도 한 가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걸린 문제는, 다름 아니고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다윗의 블레셋 이동에 대해 선악간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처럼, 아니면 우리아를 죽였을 때처럼 심판하시는 일이 없냐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미스터리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자식 교육 망쳤습니다.

집안에 망신사건이 일어나고 자식들끼리 서로 죽입니다. 그중 망나니 자식 하나는 백성들한테 사기 쳐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까지 차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심지어 그 못된 아들이 전쟁 중에 죽었는데 그 전쟁을 위해, 다윗을 위해 생명을 바친 백성들과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사기 떨어지게 영영 울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만약 다윗의 군사 중 한 명이었다면 그런 다윗, 정 떨어져서 떠납니다. 옛날에 친했던 친구와 단번에 헤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10년 전에는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목사님의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참지 못하고 두 달 만에 사임하고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성질이 안 죽었나 봐요.

어쨌거나 문제를 그렇게 만든 원인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불상사의 조짐을 알고도 미리 대처하지 못한 못

난 다윗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까지 문제 삼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여러분이 아까 들으신 대로 단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심각한 윤리문제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 하는 대로 놔두시더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이미 풀린 미스테리를 단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녓니까?

지금 이제 생각하니 다윗의 형 엘리압 같이 사람을 보는 윤리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 자신을 다윗의 입장에 한 번 놓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너무나 사소한 일에 우리가 부딪치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대상이 생기지도 모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아비가일이 되려고 나서지 말고, 아비가일도 다윗이 블레셋 가는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는데 아무 말 없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는 못난 우리 자신들을 용납

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일’조차 그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27장에 대한 강해나 설교들을 들으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주로 데살로니가 전서 5:16~18을 인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6~18,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윗이 이 시기에 시편을 짓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실수를 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쉬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설교의 대부분이 기도를 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라면 24시간 기도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기도원도 아니고 평상시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기도 조금 더 한다고 내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기도는 쉬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역시 불가능합니다.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화냈습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찌다 감사한 ‘척’은 할 수 있으나 예수 믿고 평생 모든 일에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불평이 있었고 지금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도 해내지 못한 불가능을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해야지 너는 왜 못해?’ 하면 생명의 말씀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뜻’의 사전 풀이:

1.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2.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동 따위로 나타내는 속내,
3. 어떠한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Θελημα (thelema)

- 1) what one wishes or has determined shall be done
 - 1a) of the purpose of God to bless mankind through Christ
 - 1b) of what God wishes to be done by us
 - 1b1) commands, precepts
- 2) will, choice, inclination, desire, pleasure

‘하나님의 뜻(will)’ 즉, 의지는 우리가 따라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라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나 우

리를 결국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못하니 죄책감을 갖고 영 안 되는 일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기도 안 해서 실패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어찌면 너무 가벼운 결론입니다. 다윗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는 다윗이 비록 블레셋 왕의 도움을 구하여 잠시 도망을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는 블레셋 왕 앞에서도 나아만 장군처럼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왕하 5:18), 아닥사스다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묵도했으리라고 봅니다(느 2:4).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말씀은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짧은 순간이라도 당신의 주님이, 왕이 하나님이나를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찾으면 내가 무슨 못난 짓을 하고 있어도, 때로 실수를 하고, 죄를 좀 지어도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다윗의 역사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살면서도 얼마든지 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발견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오해, 서

로를 불편하게 하는 차이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처럼, 그들을 용납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修業 33. “나쁜 왕, 이상한 왕②”

사무엘상 28:1~25,

[1] 그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3]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4]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벰에 이르러 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 쳤더니 [5]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7]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8]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9]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10]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

고 맹세하노니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1]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
 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랴 하는지라 [12]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
 이시니이다 [13]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
 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14] 사
 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
 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겹옷을 입었나이다 하더
 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15]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
 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
 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
 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16] 사
 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17]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
 윗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18]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
 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
 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19] 여
 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
 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
 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
 시리라 하는지라 [20]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
 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21]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 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22]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잠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23]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24]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25]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이상한 왕

27장에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에 망명해서 블레셋왕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이라는 땅을 받고 용병이 됩니다. 이제는 아예 아기스가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자신의 군사로 같이 참여하자고 말할 정도로 아기스가 신임하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다윗의 입장을 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성경에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가시적인 간섭이나 판단하는 내용의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다윗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느정도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쁜 왕

그러나 이어 28장에 나타나는 ‘나쁜 왕’ 사울의 이야기는 마치 가파른 언덕길에 가속이 붙어 스스로를 제어 못하고 굴러가는 돌덩어리처럼 사울의 파멸의 상황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블레셋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으로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진친 곳은 수넴이라는 곳입니다. 그 뜻이 두 개의 휴식처라는 의미인데 사울에게는 전혀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5절에 보니 사울이 두려워 마음에 떨었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막상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는 어이없는 결론을 내립니다.

부하들로부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만나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영혼은 사울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곧 죽을 것을 말해줍니다. 이에 크게 낙담한 사울은 모든 소망을 잃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10장에 의하면, 사울의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13~14,

[13]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죽음의 원인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범죄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항은 다시 두 가지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의 치세 2년째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한 이레 동안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고 백성들도 두려워 흩어지자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

리지 못하고 사울 자신이 번제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3:13~14,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왕과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22~23,

[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 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한글판’ 성경에는 23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邪術)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邪神)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 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이 부분에서 한 말 가운데,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사술의 죄, 즉 점치는 죄와 같고,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귀신을 만난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9:31, (레 20:6, 27; 신 18:11; 사 8:19)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접한 자’(바알라트 오브)라는 말의 뜻은 ‘죽은 자의 혼령을 통해 미래의 일을 알아보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숭배의 죄와 같은 것으로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악한 왕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사울은 그의 평생 우상을 섬김 일이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입니다. 절대 부정하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그가 우상 숭배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범한 큰 두 가지 죄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의 왕정 30여 년 동안 하나님은 그가 비록 범죄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과정 속에서도 그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비록 사무엘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이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사울, 길을 묻다

물론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무엘상 28:6,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런데 아까 보신 역대상 10장의 기록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 말입니까?

역대상 10:14,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무엘상의 ‘묻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알’입니다. 역대상의 ‘묻다’라는 단어는 ‘다라쉬’입니다. 두 단어가 같이 ‘묻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쓰일 수 있는 단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묻다’

‘샤알’과 ‘다라쉬’의 성경에서의 사용 용례:

샤알 sha'al or sha'el

묻다(問), 구하다, 문의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상의하다, 간구하다, 빌리다, ~의 책임으로 하다, 의론하다, 요구하다, 원하다, +인사하다, 허락을 얻다, 빌려주다, 기도하다, 간청하다, 문안하다.

to ask, enquire, borrow, beg

AV - ask 94, enquire 22, desire 9, require 7, borrow 6, salute 4, demand 4, lent 4, request 3, earnestly 2, beg 2, misc 16; 173회

다라쉬 darash

묻다, 찾다, 구하다, 밟다, 자주가다, 따르다(추적, 혹은 찾기 위해서), 묻다, 예배하다, 돌보다, 요구하다, 조사하다, (점)쟁이, 질문, 청구하다, 찾다, 찾아내다.

to resort to, seek, seek with care, enquire, require

AV - seek 84, enquire 43, require 12, search 7, misc 18; 164회

‘샤알’(삼상 28:6)은 ask에 가까운 일반적인 ‘묻다’입니다. ‘다라쉬’(대상 10:14)는 영어로 seek, follow에 가까운 ‘묻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다라쉬’는 ‘추구(追求: 목적을 이를 때까지 뒤쫓아 구함)하다’는 뜻이 더 강한 말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께 응답을 얻을 때까지 진심을 다하여 간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답을 구한 것이 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닙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셨다는 해석도 있기는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라고 단정할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 꿈이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았는데 하필 신접한 여인이라는 하나님이 금하는 수단을 통해 역사하셨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사무엘의 영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다른 신을 찾는 사람들의 결말

옛날에 김기동파라고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의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르침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다시 세상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빙의니 신내림이니 마귀의 장난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이 이것들을 저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모든 통로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다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어떤 이름값이 걸린 문제에 혹은 자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일에 마음이 완고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예전의 개역한글판 성경에서는 ‘강박하다’고 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완악하다’라고 쉽게 바꾸었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5경은 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거나 솔로몬처럼 꿈을 통해 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른 계시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가 되면 점집이 성황을 이룹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환영’이라는 간판을 단 점집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시들하지만 예전에는 은사운동이 활발할 때, 예언한다는 권사님들이 교회마다 꼭 한 명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담임목사들 앞에 대놓고 말은 못해도 신자들은 다 압니다. 대개 그런 분들은 목사님들보다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단이 나게 되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거나 그런 은사를 금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자가 교만해지면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받으면 겸손해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 교만의 끝까지 갑니다. 자신은 그게 교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은 자입니까? 특히 기름부음 받아 왕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것을 자신의 능력과 소유로 알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재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강박하게 되면 이미 사울처럼 ‘돌아갈 수 없는 최악의 정점’에 서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경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9:1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하시느니라

히브리서 4:7,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
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
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런 경우를 믿음에 있어서 ‘파선’하였
다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18~20,

[18]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
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
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 그
가운데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
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
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믿음에 파선하는 경우도 있다
는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울처럼 교만하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늘 믿음에 바로 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왕의 修業 34. “시글락방성대곡”

사무엘상 29:1~11, 30:1~4,

[1]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백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 쳤더라 [2]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3]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4]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 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5]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이까 [6]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말라 [8]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9]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10]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11]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르엘로 올라 가니라

[1]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삼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블레셋이 준 시글락에 대한 대가로 다윗과 그 일행은 생존을 위해 용병 겸 마적단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시글락이 아말렉부족에 의해 약탈당하고 가족들은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방성대곡합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울음을 터뜨렸다는 히브리어는 ‘bakah’입니다.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방성대곡, 소리를 크게 내어

울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1:16,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창세기 37:35,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식의 죽음을 보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상황을 당한 두 가지 경우에 다윗이 통곡했다는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질 때,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울었다는 표현들이 사무엘상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41,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사무엘하 1:11~12,

[11]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

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무엘하 3:32,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
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사무엘하 15:30,
다윗이 감람 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
고 맨 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사무엘하 18:33,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
가 올라 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
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였더라

다윗이 시글락에서는 왜 울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
버려서요? 가족들을 빼앗겨서요?

다윗은 그런 상황까지 가게 한 현실에서 많은 고통을 받
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을 느낄 수 없고 내 상황이 왜 이럴까하는 괴로움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향복하라’는 랍사게의 편지(왕하 18장)를 간직한 채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마치 하나님
없거나 그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체험을 하는 때가 성도들
마다 있습니다.

시편 속에는 이런 체험을 하는 다윗의 주관적 감정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고통과 내적인 갈등이 울음과
한탄, 그리고 찬양과 노래가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과 단
절된 영적 고통을 말합니다.

시편 13:1~2,

[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
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
느 때까지 하리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말
은 여러분에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얼굴빛을 숨기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절규를 오늘날 여려
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
셨나이까”(시 22:1)라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일치하면서 그
는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 자녀의 고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시편 22편,

[1]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엘렛사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 내 하나님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4]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이다 [5]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이다 [6]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훼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쭈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

다윗이 이 22편을 지을 때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한 것이 될 수 있었고, 바로 십자가의 후예인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38 (마가복음 14:34),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요한복음 12:27,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상태까지 내려오신 인간 예수的高통이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형벌과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왜 울었습니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자신을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바로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33~35,

[33]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5]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69~75,

[69]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1]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表明)한다 하거늘 [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맹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다는 것,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다는 것, 가이사랴빌립보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고백하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새로 받았던 승리의 과거들이,

마태복음 16:15~16,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알고 자신을 한탄하여 통곡했습니다.

마태복음 16:75,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러한 통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통곡이 다윗의 울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의 통곡이요 고통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에 절망을 느끼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보더라도 그 얼굴은 여러분에게 숨겨졌던 사랑의 얼굴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심지어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생존을 위해 블레셋에 들어가서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여 울어보았습니까? 도저히 일은 안 되고 살던 마을은 연기가 치솟아 불타고 있고 가족들은 끌려가서 무슨 짓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자신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을 때 땅에 엎드려서 통곡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음을 속 상해하고, 울어본 사람만이 위로를 받는 사람이고, 천국

을 소유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만약 사울이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얼마 안 있어 왕위를 물려주었다더라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됩니다. 신앙은 있지만 성공만하고 승승장구의 인생을 누리고, 패배를 몰랐던 전형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그 솔로몬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풍요 속에 우상이 들어왔고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고난의 시절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곧바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치명타를 입고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 왕이 되기는 쉽습니다. 누구나 영웅을 좋아하고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이 짧은 기독교역사 동안 큰 변화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1860년대 고난의 선교 초기

와 일제시대(1884 최초 선교사 내한), 그리고 1950년대 전쟁을 겪은 약 100여 년 동안 선교 초기와 수난의 **사울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시대에 걸치는 20세기 초, 평양대부흥시대(1907년)부터 20세기말까지 약 100년 가까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다윗의 시대**를 지냈습니다. 특히 70년대와 80년대에 이르는 20년 가까이 한국은 세계 기독교가 놀랄 정도의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시대에 걸치는 1980년대 말 이후 지금까지 물질적 성장과 함께 물질우상과 극심한 영적 빈곤의 시대를 같이 가고 있는 **솔로몬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다윗과 같은 **왕의 수업**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때로 암울한 영적 고통과 어두운 밤 같은 시절을 보내는 것 같아도 그 경험을 통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마지막 왕의 수업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극장에서 보고 두 번째 보았는데 역시 감동적이더군요. 약간 신과적인 약점이 있지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스키점프 선수들

이 결국 결승에서 메달을 놓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항에서 환영식을 받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감동적인 장면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 결승전에서 한국 아나운서가 인터뷰했다는 마재복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수는 식당을 하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키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아나운서와 인터뷰를 했는데, 아나운서 질문이,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였습니다. 그 선수의 대답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국에서 TV로 보던 식당주인 아버지는 손님 고기를 잘라주면서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 한 마디로 무너졌겠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존경(사랑)한다는 나의 고백이구나.’

뿔뿔이 고향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1:15~17,

[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

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응답 없는 것 같고 얼굴을 돌리신 것 같고 십자가로 죽은 것 같아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 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화창한 날씨만 바라다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아랍 속담에 ‘햇빛이 사막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없다면 식물이, 곡식이 자랄 수 없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에는 햇빛도 필요하지만 흑암도 필요하고 천둥벼락도 있어야 합니다. 태양만 있다면 옥토도 사막이 됩니다. 때로 폭풍과 비와 밤이 있어야 추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돌들로 얼마든지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마 3:9, 눅 3:8).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세계최대 교회를 만드는 능력

자가 아닙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 42:1) 신앙의 최고의 정점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6: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왕의 修業 35.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30:6~30,

[6]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7]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9]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육 백 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10]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이백 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11]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 그에게 무화과 움 치에서 썬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13]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14]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15]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16]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17]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사백 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18]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 다윗이 또 양떼와 소 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21]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이백 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22]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23]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4]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들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5]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26]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와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27] 뵤엘에 있는 자와 남방 라뭏에 있는 자와 앓딜에 있는 자와 [28]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뭏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29]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므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30] 훌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오늘의 본문에서는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나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승리했으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처음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먼저, 다윗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다윗이 무엇을 배우고 스스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6백 명의 군사들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 살기 위해 약 1년 4개월 동안 용병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가하자고 했을 때 다윗은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행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은 다윗과 그 일행의 삶의 터전입니다. 본래 이스라

엘 소유였는데 블레셋에 빼앗겼던 마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블레셋의 영토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서 사울의 군대를 피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울무가 되어 다윗은 아기스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고, 다른 이방 부족의 마을을 습격하면서 마적단 노릇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부대와 헤어져서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겨우 얻은 삶의 터전이 습격당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남아있던 가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언제 이 일이 발생했는지, 누가 그랬는지, 그리고 그 약탈자들은 어디로 돌아갔는지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한 다윗의 일행 중 악당들이 선동하여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 주셨으리라고 추측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온전히 깨뜨려진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시글락의 위기에서,

1.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는 전쟁이 끝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고 그때는 이미 빼앗긴 가족들과 재산을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만유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2. 그는 자신의 소명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지금은 마적단처럼 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실 것을 언제나 믿었습니다.

3. 그는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 많은 전쟁터에서,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남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험악한 위기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신자들 곁에 있습니다.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신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②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소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③ 예수 믿은 후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로마서에서 이 세 가지, 다윗이 기억했던 사항들을 한 구절로 묶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도 낙담하고 슬픔에 빠졌으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냅니다. 혹시 습격자들이 아직 멀리가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도중이라면 가족들을 구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습격자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수없이 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묻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이 갖고 있던 예봇(우림과 둠땀)으로 하나님께 방도를 묻습니다. 제사장의 예복 예봇에는 우림과 둠땀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떤 도구가 들어있는 앞주머니 비슷한 포켓이 달려있습니다(출 28:30, 레 8:8).

제사장은 예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땀이라는 아마도 동그란 모양의 돌 혹은 보석 중 하나를 꺼내어 ‘예스’ 혹은 ‘노’를 알게 됩니다.

예전에 사울이 전투 중에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맹세를 어긴 범인을 찾으려 할 때 요나단을 뽑았던 방법이 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삼상 14:41~42).

다윗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용기를 내어 추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연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오늘날에도 때로 비상수단으로 꿈이나 환상 혹은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정확한 말씀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 지혜를 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거나, 목사들의 설교에서,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 성경 말씀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터지는 듯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가 부딪친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다윗에게 하나님이 에봇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면,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가 아니면 이런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몇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① 다윗 자신입니다. 그는 극심한 좌절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응답을 받은 후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흠어진 백성들을 위한 리더쉽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서 구출 받은 사람은 다윗이 구해준 아말렉의 노예인 ② 애굽 출신 노예입니다. 그는 병들었기 때문에 당장 죽을병은 아니어도 아말렉인들이 데리고 다니기 귀찮아서 버렸습니다. 음식도 없이 사막에서 사흘간이나 방치되어 죽기 일보 직전에 다윗의 일행을 만나 살아났습니다.

왜 하필 애굽인입니까? 애굽은 과거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종노릇하다가 모세의 이도로 출애굽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은혜였습니다. 죄의 노예인 모든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의 군대로부터 구출 받은 ③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들은 노예로 팔려가거나 노리개가 될 운명에서

구출됩니다.

이들과 다윗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입니다.

사무엘상 2:6,

여호와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요한복음 5: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에베소서 2:1~6,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습격한 군대를 따라 잡고 다시 도로 찾을 것이라는 응답을 받은 다윗은 600명 전 부대를 이끌고 추격

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6백 명 중 벌써 며칠을 쉬지 않고 행군한 자들 가운데 2백 명이 지쳐서 더 이상 추격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새벽부터(삼상 29:11) 저녁까지 뜨거운 사막길 행군에 피곤이 겹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브솔 시내 부근에 남겨두고 나머지 4백 명이 다시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추격 도중에 병들어 쓰러져 있는 아말렉의 노예인 애굽인을 만납니다. 다윗은 가족들의 목숨이 달린 급한 중에도 시간 낭비일지 모르는 친절을 베풀어 그를 도와주었는데 뜻밖에 가족들을 구출할 매우 중요한 단서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습격자들이 아말렉 군대인 것도 알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속력을 내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베이스캠프에서 잔치를 벌인 후 잠에 푹아 떨어졌을 때 다윗의 군대가 습격을 하여 대승리를 거둡니다. 가족들을 찾고 잃어버린 재물을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군대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마을들을 지금까지 약탈했던 많은 재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물을 분배할 때 다윗의 일행 중 악한 자들이 브솔시내에 남아 있던 2백 명에게는 자신들이 수고하여 탈취한 재물들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자신들의 가족만 데리고 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놀라운 결단과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모든 재물들을 6백 명이 똑같이 나누게 한 것입니다. 그 원칙은 그 후의 이스라엘 역사에 남아 하나의 규례와 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이 남은 재물들을 유다지파의 마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아말렉의 피해를 입었던 마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이 ‘여호와와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번의 승리가 결코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아무것도 회복할 수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선물(은사)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 ‘다윗의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장 큰 위기 중의 하나에서 하나님나라의 대리 지도자가 무엇인지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 은혜로 살고 또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손실과 희생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원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이스라엘을 전체로서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를 이해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7~10,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위에 세워져 있고 자라나갑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12~27,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 [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 [22]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

라 그런즉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
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
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 만일 한 지
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
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특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마치 다윗의 시글락 사건을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에베소서 4:3~16,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
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
셨나니 [8]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
다 하였도다 ...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
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구원이라는 믿음의 세계에만 국

한되지 않고, 전 우주와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도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일제 수탈과 전쟁으로 황폐화할 정도로 가난하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금년에는 G20이라는 세계정상급 회담을 주최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족 스스로가 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동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신이 이룩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사도행전의 헤롯왕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큰일을 해내는 정치인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스포츠맨이라도 자기 자랑으로 끝나면 결국에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예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사도행전 12:21~23,

[21]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물론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모든 국민들에게 신앙의 모습

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민족공동체의 대표인 교회들이 그리고 신자들이 모든 국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받은 만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이 세상을 책임져야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욕망하는 ‘세상의 시글락’에 주저앉기를 계속 원하면 여러분의 시글락은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태가 아마도 육신적으로는 좋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앞두고 홍해에서 얼쩡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글락은 여러분의 영광이 아닙니다.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 앞에 있고, 입성해야 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어떤 기대의 대상이 완전히 불타고 없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어떤 기대와 가능성까지도 불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 사탄을 이기신 총사령관입니다. 그는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엡 2:1)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자신의 지체가 된 신자들이 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엡 4:8).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자신의 소명과 은사를 따라 사랑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힘과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10,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

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 우리는 우리 자
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왕의 修業 36. “활의 노래를 불러라”

사무엘상 31:1~13, 사무엘하 1:1~27,

사무엘상 31:1~13,

[1]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3]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4]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5]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7]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8]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뵤산 성벽에 못 박으매 [11] 길르앗 야

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뽀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13]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칠 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하 1:1~16,

[1]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2]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3]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4]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5]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6]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7]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8]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9]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 그가 엎드

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11]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와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13]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4]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16]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사울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이 스스로 죽었다는 결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에서 어느 아말렉 용병이 다윗에게 찾아와 보고한 것을 보면 그 아말렉인의 손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사울이 아말렉인의 손에 죽지 않은 증거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음을 당하기보다 이미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자신이 죽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무엘상 31:4,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직접적으로는 사울과 싸우고 있는 블레셋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이방민족을 말합니다. 아말렉인도 포함이 됩니다.

사울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칼로 죽지 않겠다는 말은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마지막까지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인이 사울이 죽기 전에 자기를 죽여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말렉인을 죽이는데 그 죄목은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였다는 죄목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가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음 왕으로 인정받는 다윗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한 말을 처음에는 사실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아말렉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가볍게 보고 그 비참한 죽음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

로 이용하려고 한 것은 당연한 죄값이 됩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의견

사울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블레셋의 화살로 죽음 직전에 이르러 블레셋의 모욕을 받는 일을 피하려는 하나의 안락사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울의 죽음의 도덕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역대상 10:13~14,

[13]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와 말씀의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

다윗은 ‘사울을 폐하고 나를 왕으로 세울지라도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지 하고 이를 갈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흥내만 낼뿐입니다. 속에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까지 용서하는 일은 모든 일의 결말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우는 것도 폐하는 것도, 기름 부어 주시는 일도, 죽이고 살리는 것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것을 사무엘상 2장에서 예언하듯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이었고 자기 멋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오랫동안 왕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 목적은 다윗의 훈련 즉 왕의 수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 쉬웠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고, 고통스럽고, 탄식했습니다. 때로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고민과 슬픔이 수년 동안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 절정의 현장이 ‘시글락의 방성대곡(통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지은 애가, ‘활의 노래’가 시글락 방성대곡의 결정체가 됩니다.

다윗의 활 노래

사무엘하 1:17~27,

[17]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8]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19]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
라 두 용사가 앞드러졌도다 [20]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
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
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21]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물 낼 받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
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22]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
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
였도다 [23]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
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
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4] 이스라
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
다 [25]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앞드러졌도다 요나
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 내 형 요나단
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
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
였도다 [27] 오호라 두 용사가 앞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
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노래를 지어 대대로 전해지게 명령합니다. 이 노래가 기록된 ‘야살의 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을 기록한 역사책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수 10:13). ‘야살’이란 ‘의로운 자’를 의미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활 노래’인데 원문에는 ‘노래’는 없고 ‘활’만 있습니다. 제목이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22절에 ‘요나단의 활’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지만 뭔가 약하다는 느낌입니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19).
2.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게 되기를 원함(20).
3. 전쟁터였던 길보아산에게 그들의 죽음을 슬퍼할 것을 요청(21).
4.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을 기리고, 그들이 생사를 함께 한 일을 노래(22~23).
5.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죽음을 애도할 것을 요청(24~25).
6. 자신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의 죽음을 슬퍼함(26).
7.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다시 한 번 애통해 함(27).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노래를 즉석에서 만

들었다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사울에 대한 원한을 갖지 않고 있었으며 그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높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을 용서하고 그에 대한 복수심이 전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충격적인 두 사람의 죽음을 듣고 그 슬픔을 담아 노래를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이 노래를 지은 목적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 자신이 책임이 없음을 공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다음 왕이 되기 위해 소극적으로 사울의 죽음을 원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았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치적으로 슬픔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단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만을 노래한 것일까요?

다윗의 노래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슬픔과 당혹 속에서

이 노래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슬픔은 왕과 친구인 왕자의 죽음에 대한 단순한 애가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들의 죽음에서 말할 수 없는 신앙적인 고민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죽이시는가?’입니다.

사울은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거의 십년 이상을 바친 인물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 인물이지만 그는 하나님 이 세우신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두어 가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이런 죽음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왜 요나단도 그렇게 같이 죽음을 당해야 하느냐? 다윗의 은인이며 가장 가까운 친구인 요나단까지 같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그들에게 벌어져야 합니까? 그것이 다윗에게 더 큰 충격입니다.

앞부분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블레셋의 여인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고 그들의 목을 베고 성벽에 못질을 했습니다.

그들의 승전 소식은 오히려 다윗에게보다 더 일찍 블레셋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승전 파티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굳이 이런 말을 합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슬픈 소식을 전하지 말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슬픔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왜 이 비극적인 결말을 당해야 하는지, 그 원인을 알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다윗의 고통과 슬픔의 근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현실이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고민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복 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하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기도만 하면 척척 응답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천막교회로 시작해서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라면만 먹고 살면서 목회했더니 지금은 수 천 명 교회로 성장했다는 교회도 많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새로 나온 오징어해물라면을 먹지 않아서 그럴까요?

금식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지 맙시다. 헌금 못 해서 그렇다고 하지 맙시다.

물론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남들은 밤새워 공부해도 안 되는데 탕자탕자 놀면서, 합격하면 한 달 용돈 감사헌금 하겠다고 기도하고 서울대만큼 합격이 어렵다는 ‘한예종’ 같은데 덩석 합격한 증인도 여기에서 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딸의 한 달 용돈이 필요하셨겠습니까?

불합격한 그 많은 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 비슷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부모가 금식하고, 서원기도, 천일기도, 천번제사 한 사람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떨어졌다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수 천, 수 만 명 모여야 능력 있고 은혜 있는 교회라면, 반대로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교회 부흥이 목회자의 자질과 열심에만 달린 것이 아니잖아요.

또 살아가는 문제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가 금메달이 당연하면, 이규혁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신앙의 문제는 무슨 법칙과 공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의 어느 해설위원의 말처럼 ‘하나님이 허락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특히 순복음 영향으로 너무나 엉뚱한 것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그렇게 가르쳐 온 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이다.’ 이런 식입니다. 아주 율법화시켰습니다.

기도하는 행위를, 교회에서 ‘주여, 주여’ 외치는 소리가 클수록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을 예배시간 잘 지키고, 십일조와 감사헌금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은사를 받아야, 능력을 행해야,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야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원기도할 때마다, 금식할 때마다 대학에 척척 합격하고, 취직 다 되고, 결혼 잘 하고... 그래야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전체 한국교회 교인들 머릿속에 뿌리까지 들어차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믿음 약한 신자들 시험 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신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안 해도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기도, 예배, 헌금, 전도와 같은 교회 일들에서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안 주고 괴롭게 하는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모이지 않아서요? 매달 당회원비 12만 원을 내지 않아서요? 탈세해서? 자식들 군대에서 빼돌려서? 부동산투기해서? 의원직이 뭔지도 모르고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약하고 세고가 없습니다. 신앙은 길을 제대로 가느냐, 잘못 가느냐의 문제만 있습니다. 잘못 갔으면 빨리 되돌아오면 됩니다. 새롭게 출발해도 전혀 늦은 것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고저도, 강약도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일 밖에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믿은 새신자가 몇 십 년 묵은 장로, 목사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구별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슬퍼하고 애통해야하는 활의 노래를 부를 자’에 속합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활의 노래의 신약판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신약의 사도들은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물론 신앙적 갈등의 문제는 다윗처럼 해결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생애 끝까지 사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8~9,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

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성도들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골 1:24, 뵤전 4:13)입니다.

심판 받아야 할 사울 같은 자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의 죽음을 거짓 보고한 아말렉 사람을 죽게 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사울도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부음 받아 세움을 얻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4의 전체 구절을 기억하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진정으로 믿음의 문제로 고민해보고, 당황하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민과 슬픔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경험이 자신만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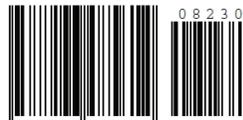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지상교회들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모습이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13,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값 3000원



9 788996 485612

ISBN 978-89-964856-1-2